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01-01

정책보고서

2012-00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이윤경 정경희 오영희 염주희 김향아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제1장 서 론.....	3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5
제2장 노인 여가활동 유형화 및 여가 현황.....	39
제1절 노인 여가의 개념 및 유형.....	39
제2절 미래 노인의 여가활동 변화 전망.....	60
제3장 노인 여가복지 정책 현황 분석.....	69
제1절 노인 여가 복지 정책 현황	6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여가 복지 사업 현황.....	80
제4장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현황 실태.....	94
제1절 경로당 운영실태.....	94
제2절 노인교실 운영실태.....	111
제5장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연구.....	125
제1절 도시형.....	125
제2절 중소도시형.....	147
제3절 농촌형.....	169
제4절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 비교.....	194
제6장 해외 노인여가복지 사례분석.....	201
제1절 일본의 정책 및 사례.....	201
제2절 미국의 정책 및 사례.....	229

제7장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방안	255
제1절 노인여가복지 개편의 기본방향	255
제2절 노인여가복지정책 개선 방안	258
제3절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모형 제안	266
 참고문헌	 276
부록	284

표 목차

<표 1> 노인특성 유형별 동·읍·면 분포	3
<표 2> 노인특성유형별 교육수준	5
<표 3>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10
<표 4>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 출처 현황	12
<표 5> 노인여가복지사업 관련 기관 현황	13
<표 6>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15
<표 7> 지역별 경로당 지원 사업비 노인여가복지 예산(년)	16
<표 2- 1> 노인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 노후생활유형화	41
<표 2- 2> 지역별 노인특성유형화 분포	43
<표 2- 3> 노인특성 유형별 노후생활유형 예측	44
<표 2- 4> 노인특성유형별 경로당 이용현황	45
<표 2- 5> 노인특성유형별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46
<표 2- 6>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 장소(전체)	46
<표 2- 7>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장소(도시)	47
<표 2- 8>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장소(농촌)	48
<표 2- 9> 노인특성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여부	48
<표 2-10> 노인특성유형별 평생 교육 참여 여부	49
<표 2-11> 노인특성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여부(동호회)	49
<표 2-12> 노인특성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여부(친목단체)	50
<표 2-13> 노인특성유형별 컴퓨터(인터넷) 이용 여부	51
<표 2-14> 노인특성유형별 1일 평균 TV 시청시간 및 1년 평균 여행횟수	52
<표 2-15> 노인특성유형별 교육수준	53
<표 2-1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및 횟수 · 54	
<표 2-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국내외 여행 방법	54
<표 2-18>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55

<표 2-19>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55
<표 2-20>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56
<표 2-21>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56
<표 2-2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57
<표 2-23>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57
<표 2-24>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 희망률	58
<표 2-25>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58
<표 2-2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59
<표 2-2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59
<표 2-28>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별 노년기 일에 대한 욕구 및 이유	63
<표 2-29>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64
<표 2-30>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여부	65
<표 2-31>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노후 생활	65
<표 3-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	70
<표 3- 2> 노인복지관 사업	72
<표 3- 3>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 출처 현황	76
<표 3- 4> 노인여가복지사업 관련 기관 현황	79
<표 3- 5>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81
<표 3- 6> 지역별 경로당 지원 사업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82
<표 3- 7> 지역별 등록 경로당 수 및 지원율	83
<표 3- 8> 경로당 관련 현물 및 기타 지원 현황(지원율)(복수응답)	84
<표 3- 9> 경로당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84
<표 3-10> 경로당 활성화사업 위탁상태(복수응답)	85
<표 3-1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	86
<표 3-1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근무처(복수응답)	86
<표 3-13> 지역별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88
<표 3-14> 지역별 노인교실 수	88

<표 3-15> 지역별 노인교실 지원내용(복수응답)	89
<표 3-16> 지역별 여가문화활성화 사업(복수응답)	90
<표 4- 1> 경로당의 일반특성	95
<표 4- 2> 경로당 대표자 일반사항	96
<표 4- 3> 경로당 시설규모 및 설비 용품 보유율	97
<표 4- 4> 경로당 설비 용품 설치율 및 보유 개수	99
<표 4- 5> 경로당 난방운영 현황	101
<표 4- 6> 경로당의 등록·이용 회원 수	102
<표 4- 7> 경로당 운영 및 식사지원	104
<표 4- 8> 경로당의 수입금 총액 및 구성(2011년)	105
<표 4- 9> 경로당의 수입금 내역별 현황	107
<표 4-10> 경로당의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율	108
<표 4-11> 경로당의 프로그램별 실시율	110
<표 4-12> 노인교실의 일반특성	112
<표 4-13> 노인교실 운영자 일반사항	113
<표 4-14> 노인교실 시설규모 및 설비 용품 보유율	115
<표 4-15> 노인교실의 등록·이용 회원 수	116
<표 4-16> 노인교실 수입금 총액 및 구성(2011년)	117
<표 4-17> 노인교실의 수입금 구성(2011년)	118
<표 4-18> 노인교실의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율	119
<표 4-19> 노인교실의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자(복수응답)	120
<표 4-20>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현황	121
<표 5- 1> 인천광역시 구·군별 인구현황	126
<표 5-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전체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수 현황	126
<표 5-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구성	129
<표 5-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129
<표 5- 5>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30
<표 5- 6> 인천광역시 계양구 각 동별 경로당 현황	131

<표 5-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연령 분포	132
<표 5- 8>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133
<표 5- 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노인문화센터 이용노인의 연령 분포	134
<표 5-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135
<표 5-11>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137
<표 5-12> 광주광역시 각 구별 인구현황	137
<표 5-13> 광주광역시 북구 각 동별 인구현황	137
<표 5-14>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변동	138
<표 5-15> 광주광역시시 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139
<표 5-16>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구성	140
<표 5-1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141
<표 5-18> 광주광역시 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42
<표 5-19>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43
<표 5-20> 광주광역시 북구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북구노인종합복지관)	143
<표 5-21> 광주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인원(북구노인종합복지관)	144
<표 5-22> 광주광역시 북구 동별 경로당 현황	145
<표 5-23> 경기도 용인시 인구현황(2010년)	147
<표 5-24> 경기도 용인시 각 구별(읍·면·동별) 인구현황(2010년)	148
<표 5-25> 경기도 용인시 인구변동 현황	148
<표 5-26> 경기도 용인시 예산구성	150
<표 5-27>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 예산	150
<표 5-28>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52
<표 5-29>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152
<표 5-30> 경기도 용인시의 각 구별(읍·면·동별) 경로당 현황	152
<표 5-31>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수지노인복지관) ..	154
<표 5-32> 전라남도 목포시 각 동별 인구현황(2010년)	157
<표 5-33> 전라남도 목포시 예산구성	158
<표 5-34>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159

<표 5-35>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2년)	160
<표 5-36>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161
<표 5-37> 전라남도 목포시 동별 경로당 현황	162
<표 5-38>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201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	164
<표 5-39> 전라남도 목포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165
<표 5-40> 노인대학 프로그램 예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167
<표 5-41>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별 인구규모(2010년)	170
<표 5-42> 충청남도 예산군 연령별 인구분포	171
<표 5-4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구성	173
<표 5-44>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174
<표 5-45>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75
<표 5-46>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175
<표 5-47>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별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수 및 노인인구대비 비율	177
<표 5-48>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	177
<표 5-49>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 리스트	178
<표 5-50>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178
<표 5-51> 충청남도 예산군 각 읍·면별 경로당 현황	179
<표 5-52> 경상북도 의성군 각 읍·면별 인구현황	184
<표 5-53> 경상북도 의성군 예산구성(2012년)	185
<표 5-54>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 예산	186
<표 5-55>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187
<표 5-56>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188
<표 5-57> 경상북도 의성군 읍·면별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수 및 노인인구대비 비율	189
<표 5-58>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	189
<표 5-59>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 리스트	190
<표 5-60>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190
<표 5-61> 경상북도 의성군 각 읍·면별 경로당 현황	192
<표 5-62> 사례지역별 특성비교	197

<표 6- 1> 일본의 고령화 현황	202
<표 6- 2>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별 고령화 현황	203
<표 6- 3> 일본에서의 교육위원회 및 주민회관의 고령자 대상 학급·강좌 상황 ...	212
<표 6- 4> 가나가와현의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지원 서비스	219
<표 6- 5> 가나가와현의 고령자의 기업·취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220
<표 6- 6> 가나가와현의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 추진	221
<표 6- 7>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생활영역별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백분율	231
<표 6- 8>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여가시간 사용 형태	234
<표 6- 9> 55세 이상 남·여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가 사용량	237
<표 6-10> 노인복지관 현황(2009~2010년 자료)	239
<표 6-11> 노인자원봉사자의 비율	243
<표 6-12> Friendship Terrace 노인 아파트 내 여가 활동표: 2012년 6월 기준·	246
<표 6-13> The Harry and Jeanette Weinberg Wellness & Arts Center	247
<표 6-14> Iona's Active Wellness Program at St.Alban's Episcopal Church 아이오나가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2012년 5월 기준) ..	248
<표 6-15> 엘리컷 시티 시니어 센터 여가 프로그램(2012년 6월 월요일)	249
<표 6-16> 엘리컷 시티 시니어 센터 플러스 여가 프로그램(2012년 6월 기준) ..	250

그림 목차

[그림 1] 노인특성유형(경제활동·연령·성별)별 노후생활유형 분포	3
[그림 2]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 수	8
[그림 3]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인구수	8
[그림 4] 노인의 연령구성의 변화	9
[그림 2- 1] 노인특성유형(경제활동·연령·성별)별 노후생활유형 분포	42
[그림 2- 2]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 수	60
[그림 2- 3]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인구 수	61
[그림 2- 4] 노인의 연령구성의 변화	61
[그림 2- 5] 연령별 교육수준 변화	62
[그림 5- 1] 과거 10년간 인구 수 및 고령화율의 변화	172
[그림 6- 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 추계	202
[그림 6- 2]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 참가현황(복수응답)	204
[그림 6- 3]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 참가 의향	204
[그림 6- 4] 일본 노인의 NPO 활동 참가실태	205
[그림 6- 5] 일본에서의 NPO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205
[그림 6- 6] 일본 노인의 학습활동 참가 현황(복수응답)	206
[그림 6- 7] 일본 노인이 참가를 희망하는 학습활동 내용	206
[그림 6- 8] 노인의 세대 간 교육의 기회 여부	207
[그림 6- 9] 노인의 젊은 세대와 교류 기회에 참여 의향	207
[그림 6-10] 일본에서의 대학원의 사회인 학생 수 추이	210
[그림 6-11] 일본에서의 대학 공개강좌 실시 추이	211
[그림 6-12] 일본의 노인클럽 수와 회원 수의 추이	214
[그림 6-13] 고령자 해외자원봉사 파견실태	215
[그림 6-14] 자원봉사수의 추이	217
[그림 6-15] 55세 이상 응답자가 4가지 행동에 대해 하루 평균 사용한 시간	232

[그림 6-16] 연령대별 스포츠 및 운동에 사용한 분포도	233
[그림 6-17] 65세 이상 근로 유무별로 본 여가사용 시간 형태(단위: 시간)	235
[그림 6-18] 65세 이상 비수면, 비근로 시간 사용을 함께한 사람(단위: 시간)	236
[그림 7- 1]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 방향 및 정책과제	255
[그림 7- 2] 대도시형 노인여가복지	267
[그림 7- 3] 중소도시형 노인여가복지	270
[그림 7- 4] 농촌형 노인여가복지	273

요약

1. 연구 목적 및 내용

- 평균수명의 증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국민들 개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됨.
 - 점차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향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고령화율 증가, 노인인구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됨.
- 본 연구는 현 노인과 미래 세대 노인의 특성 변화, 그리고 지역별 변화에 초점을 두어 노인여가복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노인여가복지의 주요 기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의 지역별 장·단기 인프라 관리방안과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됨.
 - 첫째, 노인의 노후생활에서의 여가 욕구를 파악하고자 노후생활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노인의 여가 실태 특성을 파악함.
 - 둘째, 노인여가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함. 이를 위해 노인여가복지 사업과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 검토와 노인여가복지사업 내용 및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 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에서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 셋째, 노인여가복지사업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
- 넷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유형별로 6개의 시·군·구에 대한 여가복지 지역 사례연구를 실시함.
- 다섯째, 외국의 노인여가복지 현황 파악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
- 마지막으로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다측면적인 접근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함.

II. 주요 연구결과

1. 노인 여가활동 유형화 및 여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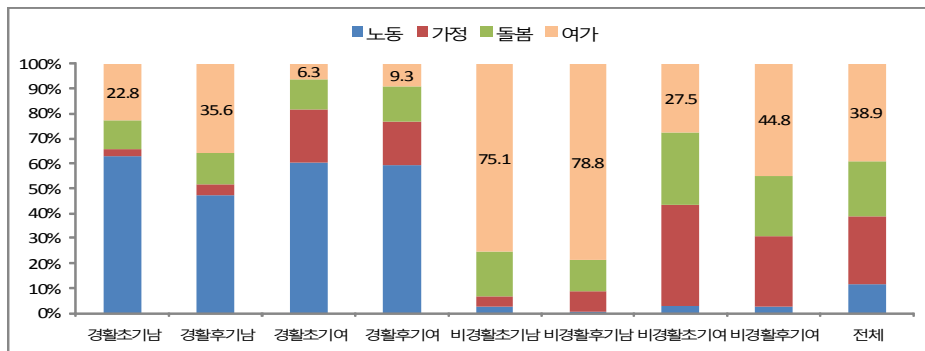
- 일반적인 여가의 개념은 의무적인 일(노동)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활용됨. 노년기의 여가의 개념을 위해서는 노년기에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연령 규범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짐.
-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의무적인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노년기 이전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경제활동 등은 노년기 이후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되며 스스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거나 설계해야만 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됨.
- 일반적인 여가개념에 따라 노인의 여가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유지(수면, 식사 등)를 위한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의미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일)과 무보수 노동의 관점에서는 가정관리 업무를 제외한 시간을 여가로 볼 수 있음.
- 노인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노후생활유형을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비경제활동 남성 노인의 경우 여가활동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 노후생활유형은 경제활동여부, 연령, 성별에 따라 유형차이를 크게 나타냄. 따라서 이들 특성별 조합에 따라 경제활동초기남자, 경제활동후기남자, 경제활동초기여자, 경제활동후기여자, 비경제활동초기남자, 비경제활동후기남자, 비경제활동초기여자, 비경제활동후기여자로 8가지 군으로 노인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구체적인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살펴봄.

○ 전체 노인 중 경제활동형의 비율은 21.4%, 가정관리형은 19.6%, 돌봄 및 자원봉사형은 19.1%, 여가중심형은 39.8%임.

[그림 1] 노인특성유형(경제활동·연령·성별)별 노후생활유형 분포



자료: 200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원자료 재분석

주: 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경제활동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초기'와 '후기'는 75세를 기점으로 초기노인(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뉨.

<표 1> 노인특성 유형별 동·읍·면 분포

	동	읍·면	전체
전체	100.0(7,258)	100.0(3,418)	100.0(10,676)
경제활동초기남	11.4(831)	19.6(671)	14.1(1,502)
경제활동후기남	2.2(159)	8.4(288)	4.2(447)
경제활동초기여	7.2(524)	19.2(655)	11.0(1,179)
경제활동후기여	2.3(168)	8.0(273)	4.1(441)
비경제활동초기남	17.2(1,250)	6.0(206)	13.6(1,456)
비경제활동후기남	12.7(925)	8.1(276)	11.2(1,201)
비경제활동초기여	25.9(1,877)	11.9(406)	21.4(2,283)
비경제활동후기여	21.0(1,524)	18.8(643)	20.3(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경로당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의 약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하는 노인 중에서는 남녀 후기노인의 이용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이용비율이 19.5%이며, 농촌 지역은 64.2%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노인복지관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경활 후기 남성노인과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의 약 11%,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9.3%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또한 비경활 초기 여성노인의 12.8%, 비경활 후기 여성노인의 약 10.0%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음.
-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집, 경로당, 공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 여가활동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집과 공원·산의 비중이 높고 경로당은 비중이 낮게 나타남.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여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5~7% 내외로 나타남.
-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비경활 노인의 경우 경활 노인에 비해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특히 비경활 초기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동호회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경활 노인과 비경활 노인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친목단체의 경우, 경활 노인에 비해 비경활 노인의 친목단체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활 노인의 경우 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친목모임이 더 많을 수 있으며 친목활동을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비경활 노인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예측되어짐. 단지 도시에 거주하는 비경활 초기 여성노인의 경우 43.1%가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여성노인유형에서 가장 활발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컴퓨터 이용 능력을 살펴보면, 도시 초기 남성노인 중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비율이 약 15~20% 내외로 나타나며, 도시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경우는 10.8%로 나타남.
 - 1일 평균 TV시청시간을 살펴보면, 도시노인은 평균 5.3시간을, 농촌노인은 평균 4.7시간을 TV를 시청함. 경활 노인에 비해 비경활 노인의 TV시청시간

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활 노인 중에서도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시간이 길게 나타남.

- 1년간 여행경험을 살펴보면, 평균 여행횟수는 전체 0.7회이며, 도시지역은 0.7회, 농촌지역은 0.8회로 년 1회 미만의 여행경험을 갖고 있음. 특성별로는 경활 초기 남성노인과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0회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 여성노인의 여행횟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도시지역의 경우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0회로 높았으며, 그 이외에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음.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노인의 여가활동은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기관 등에서의 활동보다는 가정이나 공원·산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가활동 형태는 경제활동이나 가정관리, 돌봄 등의 주요 활동이 있는 형태에서는 여가시간이 휴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여가중심의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경우 단순하고 목적이 없는 여가활동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후를 보낼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비경활 남성노인이라고 볼 수 있음.

□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생활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성별, 연령, 지역과 함께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포함되는데 이는 경제활동,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특성 유형과 상관성을 갖고 있음.

<표 2> 노인특성유형별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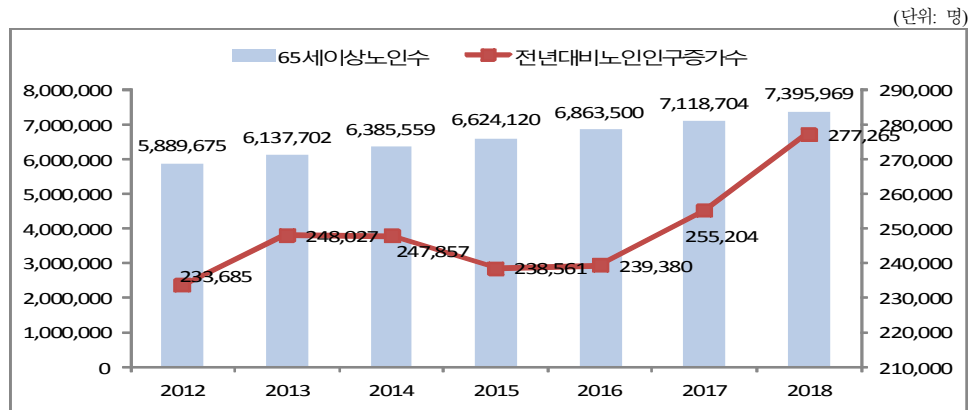
구분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계
전체	11.0	20.7	35.4	25.9	6.9	5.1(10,674)
경활초기남	1.7	7.1	37.2	45.9	8.2	3.6(1,502)
경활후기남	4.9	18.6	44.6	27.1	4.7	4.5(446)
경활초기여	13.9	27.4	47.1	10.8	0.8	3.6(1,179)
경활후기여	26.3	42.4	27.4	3.2	0.7	4.9(441)
비경활초기남	1.9	7.1	26.6	48.8	15.7	5.3(1,456)
비경활후기남	2.9	14.3	33.8	31.2	17.8	6.2(1,200)
비경활초기여	8.9	22.5	40.9	23.3	4.4	5.4(2,282)
비경활후기여	26.6	33.5	28.7	9.3	1.9	6.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노인 중 1년간 여행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3.7%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이 높아지며, 횟수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여행방법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보다는 개별여행 또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교육수준별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컴퓨터 이용능력이 월등히 높아, 응답자의 45.2%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중·고등학교 이하 집단에서의 이용능력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이들 매체를 통한 여가활동에 제한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짐.
- 평생교육 참여 형태를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율이 14.9%로 노인 전체의 평균인 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 교육 참여빈도에서는 교육수준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교육수준별로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노인 전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대학부설의 비중이 11.7%로 높게 나타나며, 문화예술회관이나 사설문화센터·학원의 비율도 전체 노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 교육수준별로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학력 노인의 경우 일반교양 강좌를 가장 많이 듣고 있으며, 다음으로 여가 및 취미, 정보화의 순서로 나타남. 전체 노인의 경우 여가 및 취미, 건강관리/운동과 일반교양의 내용을 수강하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중·고등 학력 노인의 경우 정보화 강좌의 수강이 높게 나타남.
 - － 교육수준별로 향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에서는 노인복지관, 시·군·구/동·읍·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자의 경우 시·군·구/동·읍·면과 노인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교 부설이나 사설문화센터·학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성을 가짐. 또한 초등학교 미만의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도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 학력에서는 정보화, 전문대 이상에서는 일반교양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별로 단체활동 참여의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체활동의 참여율이 높으며,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향후 이용희망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임.
-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11.2%로 전체 노인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 경험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이유를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 환원의 이유를 제기하고 있음. 이는 노인 자원봉사활동 이유에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실시한다는 비율이 70.9%인 것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6.1%로 낮고 사회 환원을 이유로 하는 비율이 42.7%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짐.
-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도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미활동과 자아개발,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노인인구 규모의 변화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2년 현재 11.8%이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됨. 또한 노인의 인구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889천명에서 5년 이후 2018년에는 7,395천명으로 약 1,506천명이 증가하여 년 평균 300천명씩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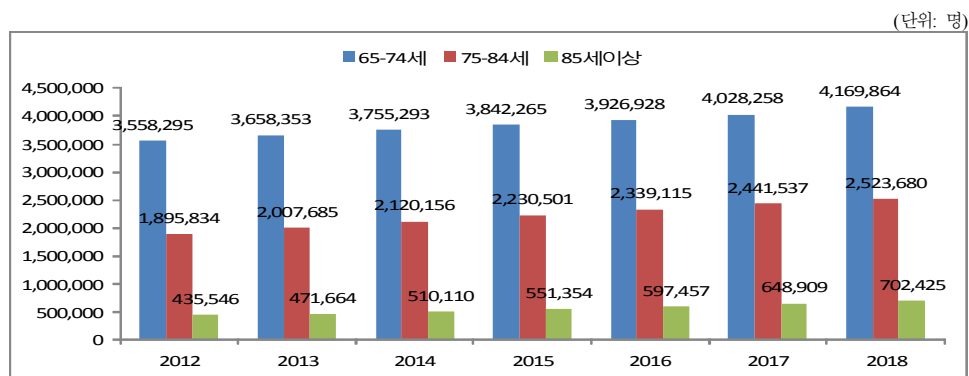
[그림 2]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 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 노인의 연령군별 노인 인구수의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65~74세 노인인구는 3558천명이며, 2018년에는 4169천명으로 증가하게 됨. 75~84세는 1895천명(2012년)에서 2,523천명(2018년)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 노인 인구수도 435천명(2012년)에서 702천명(2018년)으로 증가함.

[그림 3]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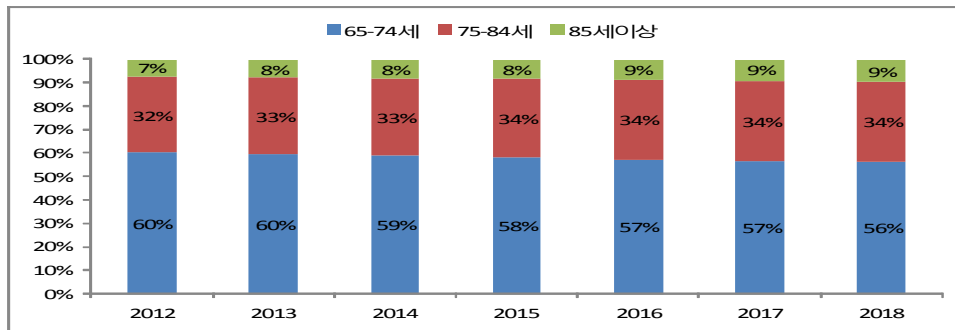


자료: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

-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75세 미만의 비율이 2012년 60%이며, 2018년 56%로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75~84세의 연령비율은 32%(2012년)에서 34%(2018년)로 약간 증가하며, 85세 이상의 비율도 약간 증가함.

[그림 4] 노인의 연령구성의 변화



자료: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통계청

○ 노인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향후 노인세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많이 진입하게 되고, 이들의 경우 연령이 젊은 노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계층으로 적극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베이비부머가 진입되기 이전 2018년까지는 우리 사회가 높은 고령화를 뿐 아니라 대규모 노인 인구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요구되어지며 향후 노인세대로 진입할 전후세대와 베이비부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짐.
-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의 일에 대한 욕구는 현 노인층 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향후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에 대한 욕구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서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짐.

<표 3>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현재의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8.0	5.9	8.8	8.0	9.7
중요하다	60.4	60.0	60.6	57.9	63.7
보통이다	23.5	26.0	22.6	24.9	20.0
중요하지 않다	7.4	7.6	7.3	8.3	6.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0.4	0.7	0.9	0.5
노후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15.6	13.2	16.4	14.7	18.5
중요하다	66.8	65.6	67.3	66.0	68.8
보통이다	15.2	18.3	14.1	17.0	10.7
중요하지 않다	2.4	2.9	2.2	2.3	2.1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0.0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자료: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2010)

- 컴퓨터와 인터넷 매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함. 따라서 현재 노인에 비해 미래 노인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가 여가 활동에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됨.
- 노인세대로 편입된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하는 노후생활에서는 취미생활, 자원봉사, 종교활동, 소득창출 등 다양한 유형이 나타남. 특히 취미생활과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 노인층에 비해서 높은 특성을 나타냄.

2. 노인 여가복지 정책 현황 분석

- 노인 여가복지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경로당 설치와 관련된 주택건설 기준법임.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봉사활동과 근로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 권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의 의무(2011. 6.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련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함. 본 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정의함.
 - 경로당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기준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한 규정」 제55조(경로당 등)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함.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인복지관 지원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과 제37조 3항에 의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여가복지사업의 대부분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2005년 지방이양의 취

지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인 지방이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기존의 운영비 지원과 명목상 큰 차이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음.

<표 4>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 출처 현황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경로당 관련사업	· 경로당난방비 · 경로당 지원 · 광역센터운영 (2012년 도입)	· 경로당 운영비 · 경로당활성화사업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 경로당순회프로그램비 · 양곡비지원	·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관	-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비경상적 사업) · 노인복지회관 운영	-
노인교실	-	· 노인교실 프로그램비	-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프로그램 · 자원봉사대축제 · 대한노인회 · 자원봉사활성화	-	-
기타 노인여가복지사업	-	· 지자체별 노인여가복지사업	-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복지관은 전국 281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1.5개소, 농어촌은 0.8개소가 평균적으로 설치되어있음.

<표 5> 노인여가복지사업 관련 기관 현황

(단위: 개소, %, 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노인복지관	104	109	68	281
평균수	1.5	1.5	0.8	1.2
최대값	4	6	3	6
최소값	0	0	0	0
시·군·구 중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3(4.3)	12(16.0)	25(29.1)	40(17.3)
경로당	9,548	27,066	25,135	61,749
평균수	138.4	360.9	292.3	268.5
최대값	362	930	634	930
최소값	28	31	22	22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236.0	89.0	41.3	92.3
노인교실	666	653	240	1,559
평균수	9.7	6.5	2.8	6.1
최대값	27	57	19	57
최소값	0	0	0	0
시·군·구 중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1(1.4)	16(21.3)	29(33.7)	46(19.9)
사회복지관	232	162	34	428
평균수	3.3	2.2	0.4	1.9
최대값	10	9	3	10
최소값	1	0	0	0
시·군·구 중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0(0.0)	9(12.0)	55(64.0)	64(27.7)
시·군·구 중 사회/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0(0.0)	0(0.0)	4(4.7)	4(1.7)
시·군·구 수	70	75	86	231

자료: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1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12월 현황)

- 경로당은 전국 61,749개소(2011년 말 현재)로 평균 노인 인구 92명당 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고 전국 시·군·구별 평균 269개소가 운영 중임. 최대 930개소부터 최소 22개소가 운영 중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노인교실은 전국 1,559개소가 운영 중이고, 시·군·구 평균 6.1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대 57개소, 최소 0개소로 파악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

인교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또한 파악된 모든 노인교실이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관은 전국 4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군·구 평균 1.9개소, 최대 10개소, 최소 0개소로 편차가 크게 발생함. 대도시의 경우 시·군·구별 평균 3.3개소, 중소도시는 평균 2.2개소, 농어촌은 0.4개소가 운영 중으로 지역별 편차가 노인복지관 설치 수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모두 부재한 곳은 경북 청송군, 경북 산청군, 경남 함양군, 강원도 인제군의 4개 지역으로 나타남.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국 287명이 활동 중이며, 시·도 단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18명이며, 시·군·구 단위는 267명으로 나타남. 시·도 단위에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대부분 1명이 근무하며, 서울, 광주, 경기도는 2명이 근무하고 있음.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1명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23개 지역에서는 2명, 3개 지역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여가복지 및 경로당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2년 노인여가복지사업에 1개 시·군·구 평균 지출액은 약 24억원이며, 최소 1억 7천만원에서 최대 221억으로 나타남. 노인여가복지예산의 2/3은 경로당 관련 사업에 지원되며, 1/3은 노인복지관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표 6>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단위: 천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여가복지사업비					
평균비용		1,752,446	3,469,217	2,038,075	2,381,362
최소		472,000	173,030	179,427	173,030
최대		10,186,960	22,063,623	13,083,026	22,063,623
노인1인당 평균 노인여가복지사업비		67.6	138.3	179.5	128.5
시·군·구 여가복지 사업비 대비 개별사업 비율의 평균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	48.4	54.7	67.4	57.0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	41.9	32.2	20.6	32.1
	노인교실	2.2	2.5	2.0	2.3
	여가복지 행사	2.8	3.4	4.2	3.5
	자원봉사활성화	1.3	1.7	2.4	1.9
	기타 여가복지	11.9	18.1	12.0	14.0
(N)		(50)	(45)	(51)	(146)

-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1개 구별 1년간 평균 노인여가복지예산은 약 17억이며, 최소 5억에서 최대 101억으로 나타남. 대도시의 경우 노인여가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의 비율이 48.4%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나타냄.
- 중소도시의 경우 1개 시별 1년간 평균 노인여가복지예산은 약 35억이며, 최소 1억 7천만원이며, 경로당 운영에 지원되는 비율은 여가복지사업 예산의 평균 54.7%로 나타남.
- 군 지역은 1개 군의 여가복지사업비는 평균 20억이며, 최소 1억 8천에서 최대 130억으로 나타남. 군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노인여가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의 평균비율이 67.4%로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의 평균비율은 20.6%로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 1개 경로당에 투입되는 지원 금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경로당별 지원되는 년 평균 지원액은 7,074천원이며, 중소도시는 9,513천원, 군 지역은 6,366천원으로, 전국적으로는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평균 금액은 7,585천원으로 나타남.

<표 7> 지역별 경로당 지원 사업비 노인여가복지 예산(년)

구분	(단위: 천원, %)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1개 경로당 평균 지원 금액	7,074.0	9,513.0	6,366.8	7,585.7
운영비 비율	37.9	25.8	24.5	29.5
난방비 비율	24.6	28.9	33.2	28.9
양곡 및 식재료비	4.2	4.4	3.2	3.9
기타 지원예산	22.2	33.5	33.8	29.7
경로당활성화사업비	6.7	4.3	3.1	4.7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	4.4	3.1	2.3	3.3
(N)	(48)	(45)	(51)	(144)

○ 경로당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는 전체의 46.9%, 전기요금 할인이 31.5%,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13.3%, 전자제품 지원이 82.5%, 기타 물품지원 등의 지원이 43.4%로 나타남.
- －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조사응답 시·군·구의 93.8%가 실시하고 있으며, 타 사업 통합실시 중인 비율이 4.1%로 전체 응답 지역 중 97.9%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군 지역의 경우 타 사업과 통합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9.8%로 다소 높게 나타남.
-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당 관리해야 할 평균 경로당 수는 응답 시·군·구 평균 200개소로 나타나며, 대도시는 127개소, 중소도시는 247개소, 군 지역은 226개소로 나타남.

○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문화기관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규모(시·군·구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총합)를 살펴보면, 200명 미만이 26.4%, 200~400명 미만이 21.6%, 400~600명 미만이 16.8%, 600~800명 미만이 11.2%, 1000명 이상이 18.4%로 나타남.
- －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000명 이상이 31.1%로 이용노인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중소도시는 소규모 시설의 200명 미만의 비율이 22.0%로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군 지역의 경우 200명 미만이 평균 53.8%로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음.

-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 노인교실에 대한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시·군·구의 7.9%는 노인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1~3개소가 44.3%, 4~6개소가 18.6%로 나타나며, 7~9개소는 10.7%, 10개소 이상이 18.6%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지역별로 노인교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지원 및 강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31.5%, 운영비지원 90.8%, 교육장소 등 물리적 지원이 20.0%, 교육기구 지원이 18.5%,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10.8%로 나타남.

3.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현황

1) 경로당 운영 현황

□ 경로당 일반사항

- 현재 경로당의 운영시작 시기는 2000년 이후라는 응답이 45.1%로 거의 절반 정도이고, 1990년대 37.1%, 1980년대 15.0%, 1980대 이전 2.8% 등임. 지역별로 2000년대 이후 운영을 시작한 경로당의 비율을 비교하면 군 지역은 48.9%로 대도시(39.9%)와 중소도시(43.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경로당의 지역특성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지역 18.6%, 주택밀집지역 16.1%,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2.1%, 주택·상가 혼합지역 2.0% 등으로 나타남.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지역이 53.2%로 절반 이상인데 반하여,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아파트지역이 각각 22.4%,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농어촌지역(54.4%, 84.0%)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임.
- 경로당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20평~30평 미만이 45.0%로 가장 많으며, 10평~20평 미만이 20.2%, 30평~40평 미만이 18.8%, 40평 이상이

12.2%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40평 이상의 비율이 21.6%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2.3%)와 군 지역(8.8%)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20평~30평 미만의 비율은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경우 각각 44.2%와 52.5%로 대도시(26.4%)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

□ 경로당 회원 수 및 이용 현황

○ 등록 회원 수는 20~39명이 5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59명이 24.5%, 19명 이하가 10.8%, 60명 이상이 11.8%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20~39명 시설(61.4%), 중소도시는 40~59명 시설(26.6%), 군 지역은 19명 이하(16.2%)와 60명 이상(12.0%) 시설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임.

○ 연평균 1일 이용 노인 수를 보면, 10~19명이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29명 27.2%, 30~39명 12.3%, 9명 이하와 40명 이상은 각각 8.9%임. 지역별 1일 이용 노인 수는 군 지역은 9명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대도시는 40명 이상의 시설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임.

○ 노인 1인당 경로당 월 회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이고, 월 회비가 있는 경우 1000원~3000원 미만 25.0%로 가장 많고, 3000원~5000원 미만 18.4%, 5000원 이상 17.0%, 1000원 미만이 2.4% 등임.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000원~3000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은데 비하여, 중소도시(37.0%)와 군 지역(51.9%)은 월 회비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경로당 설비 용품

○ 냉방시설의 설치율을 보면, 에어컨은 72.5%, 선풍기는 91.9%, 기타 2.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에어컨 보유율은 대도시가 86.2%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4.4%, 군 지역 66.0% 등임. 지역별 선풍기 보유율 역시 대도시가 95.0%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90.2%, 군 지역 92.3% 등임.

○ 취사시설 설치율을 보면, 가스레인지 95.6%, 1화용 가스레인지 27.1%, 전기스토브 6.7%, 전기밥솥 90.3%, 기타 7.5% 등으로 취사를 위하여 가스레인지 사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전기밥솥 순임. 지역별 취사도구 소유율

은 군 지역의 경우 가스레인지(97.5%), 전기밥솥(91.4%), 1화용 가스레인지(33.5%)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의 경우 전기스토브(10.4%)와 기타 취사도구(9.5%)가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화기 또는 비상벨의 설치율은 70.9%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6.4%)가 중소도시(70.8%)와 군 지역(65.5%)에 비하여 더 높음.

□ 경로당 난방유형

- 개별난방이 93.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난방식이 3.1%, 지역난방이 3.4%로 나타남. 지역별로 개별난방의 비율을 살펴보면, 군 지역은 98.0%, 중소도시는 92.2%, 대도시는 84.1%로 나타남.
 - － 개별난방인 경로당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형은 기름(경유 등)난방(55.7%)이고, 그 다음은 삼아보일러(23.5%), 가스난방(18.1%)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가스난방(63.0%)의 비율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52.1%)와 군 지역(66.6%)은 기름(경유 등)난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 2011년 동안 난방을 사용한 개월 수를 보면, 6개월~9개월 미만이 60.5%로 가장 많고, 3개월~6개월 미만이 33.2%, 9개월 이상이 5.9%, 3개월 미만이 0.4% 등으로 전체의 약 2/3정도는 6개월 이상 난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 2011년 동안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20.5%,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19.9%, 250만원 이상이 16.9%, 100만원 미만이 15.6% 등의 순임. 지역별 난방비 지출금액을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지출의 비율이 대도시 28.1%, 군 지역 14.0%, 중소도시 13.1% 순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200만원 이상 지출의 비율은 중소도시 41.7%, 군 지역 36.3%, 대도시 24.7% 순인 것으로 나타남.
 - － 난방비 지출방식으로는 93.7%가 시·군·구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5%는 아파트 등의 공동관리비에서 지출된다고 응답함.

□ 경로당 재정 현황

- 경로당의 2011년도 수입금 총액을 살펴보면, 300~500만원 미만인 5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300만원 미만인 27.0%, 500~700만원 미만 13.1%, 700만원 이상 5.6%, 100만원 미만 2.2%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500만원 이상(47.3%)의 비율이 중소도시(17.7%)와 군 지역(9.9%)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임.

□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 식사 활동: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80.4%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2.5%)와 중소도시(82.3%)가 비슷한 수준이고, 군 지역은 77.8%로 약간 낮음.
- 경로당의 개별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
 - － 취미·오락프로그램 실시율이 3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관련프로그램 실시율 29.7%, 운동프로그램 실시율 19.2%,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12.6%, 교양프로그램 실시율 7.8%, 소득연계사업 실시율 2.7%, 정보화프로그램 실시율 2.3% 등의 순임.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건강관련프로그램(44.1%), 취미·오락프로그램(44.5%), 운동프로그램(33.9%)의 실시율이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 비하여 약 10%이상 더 높은 수준임.
 - －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로당의 경우 운동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시설이 84.5%이고, 대도시의 경우 88.1%로 조금 더 높음.

2) 노인교실 운영현황

□ 노인교실 일반사항

- 현재 노인교실의 운영시작 시기는 2000년 이후가 68.0%, 1990년대가 21.7%, 1990년대 이전이 10.3% 등임. 지역별로 2000년대 이후 운영을 시작한 노인교실의 비율을 비교하면 군 지역은 77.7%로 대도시 63.3%와 중소도시 67.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교실의 운영주체를 보면, 종교단체가 54.9%, 대한노인회가 20.5%, 각종 복지관이 8.4%, 개인이 6.9% 등이다. 지역별로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인 노인교실의 비율을 비교하면 대도시가 64.1%로 중소도시 48.7%와 군 지역 44.6%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교실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40평 이상이 7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30~40평 미만이 11.1%, 20~30평 미만이 6.8% 등임.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0평 이상의 비율이 80.8%인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79.6%, 군 지역은 64.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화기(또는 비상벨)의 보유율은 98.6%로 지역별로는 대도시(99.3%)에서의 소화기(또는 비상벨)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화장실이 있는 비율은 91.7%로 지역별로는 중소도시(93.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교실 회원 현황

- 등록 회원 수는 50~99명이 3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149명이 25.2%, 200명 이상이 19.1%, 150~199명이 11.8%, 50명 미만이 4.8%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등록 회원 수가 50~99명인 노인교실이 대도시(42.2%)와 군 지역(4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28.9%)에서는 100~149명인 노인교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교실 재정

- 노인교실의 2011년도 수입금 총액을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이 2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00만원 이상이 22.6%, 500~1000만원 미만이 22.1%, 1000~1500만원 미만이 19.3%, 1500~2000만원 미만이 10.4%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경우 500~1000만원 미만이 30.2%로 대도시(17.4%)와 중소도시(23.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노인교실 프로그램 현황

- 연평균 수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9개월 이상이 5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6~8개월이 46.8%, 5개월 이하가 3.2%로 나타남. 지

역별로는 대도시에서 9개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6~8개월이 각각 56.8%,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업 빈도는 주 1~2회가 8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도 주 1~2회인 경우가 대도시 82.8%, 중소도시 86.8%, 군 지역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강사 초빙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실의 88.2%가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9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가 88.1%, 중소도시가 84.5%임.
- 개별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9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초교양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81.7%, 노인복지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9.3%, 취미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2.1%,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1.7%, 시민생활교육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이 63.5%, 기술전문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11.3% 등의 순임.

4.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구는 351,026명이며, 노인 인구수는 22,563명으로 고령화율은 6.4%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노인여가복지정책으로 1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문화센터, 145개의 경로당, 5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음.
- 2012년 전체 계양구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52.2%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23.0%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8.9%에 해당함.
- 노인여가복지 특성
 - 노인의 여가복지욕구 수준에 따른 인프라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문화센터 - 노인복지관 - 광역단위의 노인종합문화센터

- －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단일화: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경로당 혁신사업)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킴.

□ 광주광역시 북구

- 174,151명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9.0%로 다른 구에 비하여 낮은 편임.
- 2개의 노인복지관(효령노인복지타운 제외)과 365개의 경로당, 20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음.
- 2012년 전체 북구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59.6%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18.5%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5.8%에 해당함.
- 노인여가복지 특성
 - － 노인여가복지 이외의 다양한 노인복지자원을 타운형태로 집중화하는 특성을 가짐.
 -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리가 우수함.

□ 경기도 용인시

-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총인구는 891,708명으로 이 중 8.5%인 75,827명이 65세 이상임.
- 2012년 전체 용인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8.9%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28.6%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9.4%에 해당함.
- 노인여가복지기관은 2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723개의 경로당, 9개의 노인교실이 있음.
- 노인여가복지 특성
 -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노인여가복지대응형태를 갖고 있음.
 -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경로당 관리의 우수성이 나타남.
 - － 단, 도시지역의 노인복지관 이용욕구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함.

□ 전라남도 목포시

- 전라남도 목포시는 서남권의 중심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2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는 247,442명으로 노인 인구수는 25,134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전체 목포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34.9%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24.4%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6.3%에 해당함.
- 168개의 경로당과 4개의 노인복지관, 12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특성
 - －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수 규모를 타 시·군·구와 비교할 때 노인복지관의 수가 많음.
 - －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임.

□ 충청남도 예산군

-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19,14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임.
- 1개의 노인복지관과 350개의 경로당, 2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음.
- 2012년 전체 예산군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8.4%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31.8%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9.6%에 해당함.
- 노인여가복지 특성
 - － 노인복지관 1개소로 여가복지 욕구대비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남.
 - －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남.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으로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인구는 59,422명으로 현재 의성군의 노인 인구는 18,655명으로 전체 인구 중 31.4%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임.

- 3개의 노인복지관과 421개의 경로당, 1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음.
- 2012년 전체 의성군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5.3%이고,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56.9%임. 그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17.1%에 해당함.
- 노인여가복지 특성
 - －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인여가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5. 미국과 일본의 노인여가복지사례

□ 미국의 정책 및 사례

- 미국의 여가복지 정책을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가프로그램, 노인교실을 통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들의 여가 생활측면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봄.
-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주관하는 미국생활시간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를 이용해 미국 노인들의 시간 사용 형태를 분석함.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량 및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소개함.
- 도심형 모델로 워싱턴 D. C 및 인근 지역인 메릴랜드 주로 한정지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도심 외각에 있는 주거지 중심 모델로 Howard County, Maryland 내 구립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되는 여가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음.
- 미국 내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시로 노인가파트 내 여가 프로그램, IONA Senior Services 내 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노인국 산하 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여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여가 활동 형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가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일본의 정책 및 사례

- 여가복지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중앙정부차원의 노인여가복지 정책들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봄.
- 노인복지정책수행의 법적 기반 및 전달체계와 「학습·사회참가」라는 시책 영역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함.
- 노인여가복지 사례로 가나가와현((神奈川県)과 요코하마시의 고령자보건복지계획(2012~2014년) 중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음.
- 가나가와현의 노인여가관련 정책 현황으로는 사회참여활동사업, 기업·취업에 대한 지원,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 추진이 있으며, 요코하마시의 노인여가관련 정책 현황으로는 개호 지원 자원 봉사자 포인트 사업, 사회 참여 등 삶의 보람 활동 지원, 고령자의 취업 지원, 평생 학습 지원, 평생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 있음.

III. 결론 및 시사점

□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 기본방향

- 노인의 다양성 및 개별화
 -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문화적 욕구는 점차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며,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형태 및 성, 청·장년층의 여가문화 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양화된 여가문화활동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여가문화의 활동 종류의 다양성 뿐 아니라 수준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등장할 것이므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점차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함.

- 지역의 특수성: 고령화 수준과 향후 인구변동에 대한 고려
 - － 노인여가복지 개편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은 미래 인구규모의 변화, 산업구조, 지리적 특성 등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미래지향성
 - － 현 노인세대와 향후 노인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효율성 및 책임성
 - － 노인여가복지 개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편과 서비스(지원)에 대한 점검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복지자원의 다원화
 - －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은 노인 욕구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개별적 노인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으며, 효율성에도 기대할 수 있음.

□ 노인여가복지정책 개선방안

-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체계 정립 방향
 - － 향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여가의 다양하고 계층화된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따라서 높은 수준(대학수준 등)의 교육기회, 프로그램 제공(시·도 단위) - 중급 수준(시·군·구 단위 노인복지관) - 대중적 여가문화 욕구(시·군·구 내 권역 수준, 노인복지관 분관형태 수준) - 향유 및 친목 중심 여가 욕구(경로당)로 단계적 체계 방안을 제시함.
- 경로당 인프라 정비 책임성 강화
 - － 경로당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은 양적 증가 제한, 경로당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반의무화로서, ①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및 정비, ②경로당 관련 사업 주체의 일원화, ③경로당 프로그램비 확대 및 지역별 경로당 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함.
 - － 경로당 설치 기준 강화 및 정비: 경로당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주택

법 설치 의무조항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 경로당 단계적 통합을 유도함.

- 경로당 관련 사업주체의 일원화: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 통합 /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을 폐지함.
- 경로당 프로그램 대폭 지원확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를 의무화함. (주 1회 실시 목표)

○ 노인복지관: 지역 노인여가복지 중점사업의 초점화

- 향후 노인복지관의 인프라 확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관(소규모 노인여가센터) 인프라 확대 기준 개발과 사업 영역 개편 등을 제시함.
- 노인복지관 인프라 확대 기준 개발: 노인인구 2만명 추가 시 1개소 추가 건립, 복지관 분관 형태, 소규모 형태로 확대함.
- 노인복지관의 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중점 기관 역할을 위한 개선방안: 경로당 활성화사업 폐지, 민간 재워탁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함.

○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

- 대학의 정원 외 노인입학제도
-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 초등학교, 지역주민센터 등의 공간 임대
- 민간 노인여가지원 기관 활성화: 공공시설 이외에 지역 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여가문화바우처 또는 할인카드 제도를 실시함.
-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20% 기준을 적용함.

○ 노후생활설계지원서비스

- 현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속에서 가족관계와 여가활동,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향후 살아갈 노후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노인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컴퓨터 이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컴퓨터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해야함.

□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모형 제안은 다음과 같음.

○ 대도시형에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 개편 방안

- 노인여가의 수준별 인프라 체계: 광역 단위의 노인여가복지와 자체단체 수준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분관(소규모시설), 경로당로 체계화하여 인프라 체계 구축, 광역 단위 대학의 정원 외 노인입학제도
- 경로당 관련 정책: 경로당 인프라 확대 제한과 통폐합 유도, 경로당을 통·폐합할 경우에 인센티브 또는 기타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함.
-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 및 실천을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모임을 적극적 사회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차원에서 모임장소를 지원하고, 모임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할 것을 제시함.

○ 중소도시형에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 개편 방안

-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 정책을 수행하되 인프라의 확대는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분관 형태, 또는 기존 시설물인 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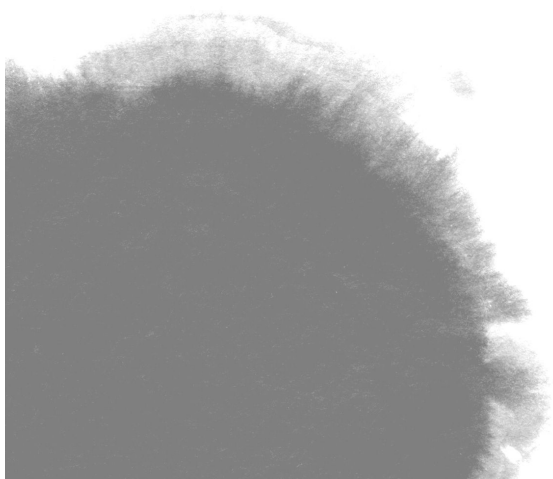
○ 농촌형에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 개편 방안

- 경로당 시설 수의 확대는 제한하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노인들이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로당에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역 내 거점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제안하며, 면단위 수준의 기관에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형태를 제안함.

01

KI
HA
SA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에릭슨 외(1963)는 인생주기에서 노년기 달성해야 할 발달과업으로 자아통합(ego integrity)을 설정하였다.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과거 에릭슨의 시대와는 달리 과거를 정리하면서 살기에는 시간적으로 인생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져 과거와는 다른 노년기의 과업 정의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2012년 평균수명은 만 80.8세이며, 남자는 77.2세, 여자는 84.1세로 법정 노인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할 때 남자는 평균 12년, 여자는 19년을 노년기로 보내게 된다. 또한 은퇴연령을 기점으로 하여 노년기를 설정하게 되면, 일반적인 평균 퇴직연령인 57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약 20년, 여자는 27년을 노년기로 보내야 한다. 강창희(2010)의 ‘정년 후의 80,000시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제 단순히 노년기는 인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인생의 2/3 지점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증가는 사회와 국가에게도 또 다른 과업을 부여하게 된다. 즉, ‘노인’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인구 집단이 아닌 사회적 부양 부담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받은 것이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 노년기 삶에 대한 의미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 삶

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국민들 개개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예전부터 노인의 4고(苦)는 병고(病苦), 빈고(貧苦), 무위고(無爲苦), 고독고(孤獨苦)로 ‘할 일이 없다’, 또는 ‘역할이 없는’ 무위고가 중요한 어려움으로 꼽혔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노인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빈고를 해소하고 있는 노인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고모임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고독고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의미 있는 역할 또는 의미 있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인한 노년기 어려움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즉, 노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개인, 사회, 국가적 전략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이다.

사전적 의미로 ‘여가(餘暇)’란 여유시간을 보내는 것, 또는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무적이지 않으며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생주기에서 노년기는 의무적인 역할이 제시되지 않아, 여가를 남는 시간의 개념보다는 노년기 수면, 식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여가로 봐도 과언이 아니므로 노년기의 여가의 의미 있는 활동은 노년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차 노년기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향후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고령화를 증가, 노인인구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2018년 우리사회는 노인인구 14%의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본 시점에서, 현 노인여가복지체계에 대한 진단과 향후 증가할 노인인구의 량과 특성의 변화에 주목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노인과 미래 세대 노인의 특성 변화와 현 노인여가복지정책 현황과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역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노인여가복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노인여가복지의 발전방안은 향후 노인여가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법적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정책적 개선방안과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노인여가복지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6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노인의 노후생활에서의 여가 욕구를 파악하고자 노후생활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노인의 여가 실태 특성을 파악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연령, 성 및 지역, 교육수준 등의 특성별 여가에 대한 욕구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 노인세대의 여가복지에 대한 욕구 추정을 위해 노인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모습을 전망해보고,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여가복지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기존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2012),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2011), 인구총조사(2010), 장래인구추계(2010) 등의 자료를 재분석하여 현 노인과 미래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둘째, 노인여가복지 정책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사업과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 검토, 노인여가복지사업 내용,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고 시·도와 시·군·구 조사를 통해 나타난 지역에서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시·도(16개 시·도, 세종시 제외) 및 시·군·구(230개 시·군·구)이며, 조사응답지는 해당 사업담당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협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하였다. 조사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별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지원현황 및 예산, 자원관리 방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현황자료 등을 통해 현 노인여가복지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완료율은 시·도 조사에서는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응답하여 62.5%이며, 시·군·구 조사는 230개 시군구 중 144개 응답하여 62.6%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여가복지사업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경로당 및 노인교실 전수(2011. 12월 현재)로, 경로당은 2011년 말 기준 전국 61,749개소이며, 노인교실은 1,559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및 지자체 노인교실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경로당과 노인교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도 지자체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현황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협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화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하였다. 또한 경로당 실태조사에서는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각 시·도의 경로당 담당자들을 만나 협조요청을 하였다. 조사완료율은 경로당은 61,749개소 중 54,007개소가 조사되어 87.5%로 나타났으며, 노인교실은 1,559개소 중 992개소가 조사되어 63.6%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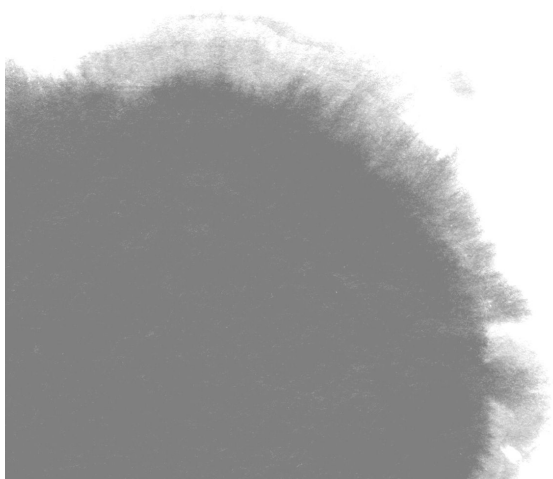
넷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유형별로 여가복지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 사례연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 2개 지역, 중소도시 2개 지역, 농어촌 2개 지역의 총 6개 시·군·구(시·도)에 대해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는 연구진의 지역방문과 해당 지자체의 관련 자료요청, 기존 지역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례연구의 내용은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노인의 특성, 여가복지사업 현황 및 프로그램 조사를 비롯하여, 지역의 여가복지 관계자인 지자체 담당자, 노인복지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노인교실 운영자, 기타 복지시설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여가복지 특수성 및 지역 모범 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외국의 노인여가복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국가의 노인여가복지 정책과 인프라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다측면적인 접근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방안은 법적 정비를 비롯하여 정책적 정비에 필요한 대안과 지역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지역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여가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관련 단체 담당자 등과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노인 여가활동 유형화 및 여가 현황



제2장 노인 여가활동 유형화 및 여가 현황

제1 절 노인 여가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의 여가개념 및 유형화

여가(餘暇)란 작업상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활동 외에 소비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레저(leisure)로 번역되며, 이 용어는 14세기 초 중세에 처음 나타난 옛 프랑스어 *leisir*를 통하여 “허가된, 여유가 있는”의 뜻을 가진 라틴어 *licere*에서 나온 것이다. 레저란 노동이나 직무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갖게 되는 자유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위키백과사전, 검색일 2012.10.23. www.daum.net).

이와 같이 노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여가는 산업사회 이후의 개념으로 기술의 발전과 인권강화에 의해 노동자의 자유시간이 증가한 이후 주목을 받아 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 가운데, 여가활동이란 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이고 강제성이나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적 행위이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유, 즐거움, 휴식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여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또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이나 행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 또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한다.

노년기의 여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에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연령 규범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른 규범과 역

할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개개인은 태어나서 교육과정을 거치고,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에서의 퇴직을 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을 구성하여 출산과 양육을 통해 사회인을 양성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규범과 역할은 대부분 노년기 이전에 역할과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의무적인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년기 이전의 자녀양육, 가사활동, 경제활동 등은 노년기 이후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되고, 스스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또는 설계해야 만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로인해 일반적인 여가정의에 따른 노인의 ‘여가’ 개념은 개인유지(수면, 식사 등)를 위한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는 경제활동(일)과 무보수 노동의 관점에서 가정관리 업무를 제외한 시간을 여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의 생활시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후생활은 노인의 활동별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노후생활을 유형화할 수 있다. 정경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200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의 분석을 통해 노인의 24시간은 개인유지(11.3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7.1시간), 가정관리(2.1시간), 일(1.9시간), 참여 및 봉사(0.1시간), 가족보살피기(0.2시간)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인은 개인유지와 여가활동에 하루의 18.4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개인유지, 가정관리 등과 같은 필수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제 및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경희 외(2009)연구에서는 이들 활동별 시간구성을 바탕으로 노후생활유형은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1>은 노후생활유형별 소요시간의 평균적 분포를 보여준다. ‘경제활동형’은 경제활동에 가장 큰 시간을 소요하는 유형이며, ‘가정관리형’은 가정관리과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형이며,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은 다른 유형보다는 가족보살피기나 참여봉사활동, 교제활동에 초점을 두는 형태이다. 마지막 유형은 경제활동이나 가정관리,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 등의 활동에 비해 여가활동에 많은 초점을 두고 유형이다.

<표 2-1> 노인의 활동을 기준으로 한 노후생활유형화

(단위: 분, 명)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봉사 및 가족보살피기형	여가활동형	계
일	443.60	4.45	12.78	6.76	39.34
가정관리	72.28	322.40	119.05	90.17	185.63
가족보살피기	7.53	17.06	98.70	11.90	26.96
참여및봉사활동	2.50	3.52	18.97	2.99	5.62
사적개발활동	1.36	1.51	6.00	1.90	2.33
교제활동	29.90	37.88	130.99	36.29	51.00
종교활동	5.04	7.93	17.25	4.87	8.00
여가활동	168.89	251.37	232.40	513.02	340.00
개인유지	623.46	750.69	710.18	730.79	727.53
계(명)	7.5(1,302)	39.8(6,942)	15.4(2,683)	37.4(6,528)	100.0(17,455)

자료: 정경희 외(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생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성, 연령을 비롯하여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여부, 연령, 성별에 따른 유형차이를 크게 나타낸다. [그림 2-1]에 의하면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유형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경제활동여부와 연령(75세 이전을 전기노인, 이후를 후기노인), 성별(남/녀)에 따라 노인을 경활초기남성, 경활후기남성노인, 경활초기여성노인, 경활후기여성노인, 비경활초기남성노인과 비경활후기남성노인, 비경활초기여성노인, 비경활후기여성노인의 8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노후생활유형은 여가활동형으로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38.9%는 여가활동형이며, 노인 특성에 의한 8군의 분류 중 비경활초기남성과 비경활후기남성 노인의 경우 여가활동형의 비율이 각각 75.1%와 7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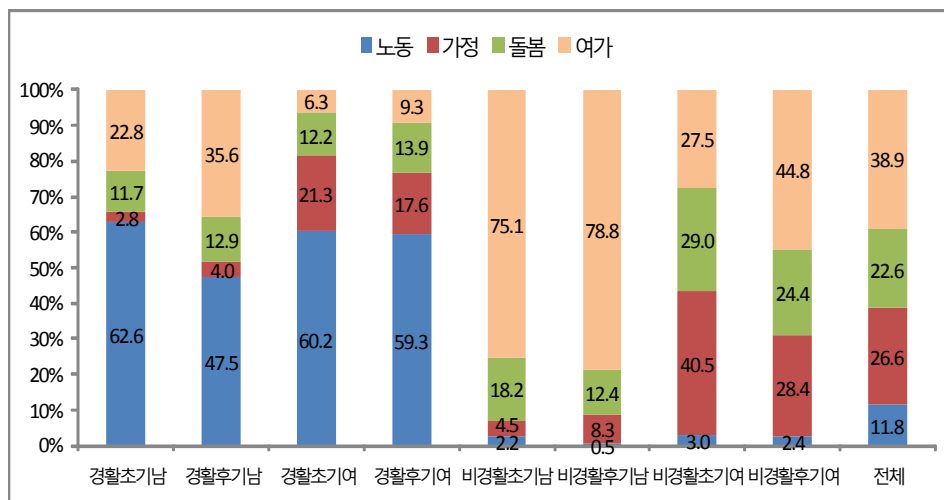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에서도 연령군(초기 75세 미만, 후기 75세 이상)과 성별에 따라 생활유형의 차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는 초기연령의 남자 노인의 경우는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여가활동형의 비중은 적다. 즉,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 후기 연령의 남자 노인의 경우 경제활동형의 비중이 초기 남자 노인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 시간의 비중이 초기보다 감소하여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군별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전후기 노인 모두 경제활동형 노인의 비중이 유사한데,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 시간이 적게 계속적으로 유지해나간다고 보여진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연령보다는 성별 차이를 크게 보인다. 여성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중심형은 거의 없으나, 가정관리형이나 돌봄 및 자원봉사형의 유형, 여가중심형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노인의 경우 전후기 노인 모두 여가중심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경활 여성노인의 비해 노후생활 유형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노인특성유형(경제활동·연령·성별)별 노후생활유형 분포



자료: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원자료 재분석

주: 1) 경활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경활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초기'와 '후기'는 75세를 기점으로 초기노인(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나뉜.

2) 본 분석은 정경희 외(2009)의 노후생활유형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2. 노인특성유형별 여가 특성

노인의 생활유형은 경제활동여부, 연령, 성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특성별 조합에 따라 경제활동초기남자, 경제활동후기남자, 경제활동초기여자, 경제활동후기여자, 비경제활동초기남자, 비경제활동후기남자, 비경제활동초기여자, 비경제활동후기남자로 8가지 군으로 노인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구체적인 여가활동(일, 가정관리 등의 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33.4%이며, 이들 중 초기 남성노인은 14.1%, 후기 남성노인은 4.2%, 초기 여성노인은 11.0%, 후기 여성노인은 4.1%이다. 즉,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중 여성과 남성의 노인 비율은 비슷하며,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비경활 노인의 비율은 노인의 약 66.5%이며, 이들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1.7%이며, 남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4.8%이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경제활동자의 비율이 23.1%이며, 읍면부인 농촌지역은 55.2%로 도시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2-2> 지역별 노인특성유형화 분포

(단위: %, 명)

	동	읍·면	전체
전체	100.0(7,258)	100.0(3,418)	100.0(10,676)
경활초기남	11.4(831)	19.6(671)	14.1(1,502)
경활후기남	2.2(159)	8.4(288)	4.2(447)
경활초기여	7.2(524)	19.2(655)	11.0(1,179)
경활후기여	2.3(168)	8.0(273)	4.1(441)
비경활초기남	17.2(1,250)	6.0(206)	13.6(1,456)
비경활후기남	12.7(925)	8.1(276)	11.2(1,201)
비경활초기여	25.9(1,877)	11.9(406)	21.4(2,283)
비경활후기여	21.0(1,524)	18.8(643)	20.3(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앞서 살펴본 [그림 2-1]과 <표 2-2>을 함께 고려하면 전체 노인 중 경제활동형의 비율은 21.4%, 가정관리형은 19.6%, 돌봄 및 자원봉사형은 19.1%, 여가중심형은 39.8%이다. 즉, 다른 활동은 거의 없이 여가중심의 노후를 보내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39.8%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2012년 노인인구 중에서는 약 234만명 가량으로 예측되어진다. 여가중심형 이외의 다른 노후 생활 유형에서도 여가활동을 하지만, 여가 이외에도 경제활동, 가정관리, 돌봄 및 자원봉사 등의 타 활동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가중심형은 노인 여가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경활 초기 남자와 비경활 후기 남자의 비율은 노인 인구 전체 중 10.2%와 8.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은 노인 여가복지 정책의 집중적 관심이 요구되어지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노인특성 유형별 노후생활유형 예측

(단위: %)

구분	경제활동형	가정관리형	돌봄 및 자원봉사	여가중심형	계
전체	21.4	19.6	19.1	39.8	100.0
경활초기남	8.8	0.4	1.7	3.2	14.1
경활후기남	2.0	0.2	0.5	1.5	4.2
경활초기여	6.6	2.3	1.3	0.7	11.0
경활후기여	2.4	0.7	0.6	0.4	4.1
비경활초기남	0.3	0.6	2.5	10.2	13.6
비경활후기남	0.1	0.9	1.4	8.8	11.2
비경활초기여	0.6	8.7	6.2	5.9	21.4
비경활후기여	0.5	5.8	4.9	9.1	20.3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정경희 외(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정경희 외(2009)의 노후생활유형화 자료에서의 유형별 분포를 활용하여,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의 노인특성유형별 노후생활유형 규모를 예측한 결과임.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로당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인의 약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제활동하는 노인 중에서는 남녀 후기노인의 이용비율이 6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경제활동 노인에서는 남녀 후기노인의 이용비율이 전기노인에 비해 높으나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이용비율이 19.5%이며, 농촌지역은 64.2%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여부와 크게 차이 없이 여성 후기노인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 후기 남성 노인은 41.5%이지만, 비경찰 후기 남자 노인의 이용율은 19.0%로 낮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경찰 노인의 경로당 이용비율이 높으며, 비경찰 노인의 경로당 이용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2-4> 노인특성유형별 경로당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체	33.8(3,608)	66.2(7,061)	19.5(1,416)	80.5(5,837)	64.2(2,192)	35.8(1,224)	100.0(10,669)
경찰초기남	37.1	62.9	16.0	84.0	63.2	36.8	100.0(1,502)
경찰후기남	63.5	36.5	41.5	58.5	75.6	24.4	100.0(446)
경찰초기여	47.3	52.7	20.4	79.6	68.9	31.1	100.0(1,179)
경찰후기여	62.8	37.2	38.7	61.3	77.7	22.3	100.0(441)
비경찰초기남	13.8	86.2	9.8	90.2	37.9	62.1	100.0(1,456)
비경찰후기남	26.7	73.3	19.0	81.0	52.2	47.8	100.0(1,200)
비경찰초기여	22.7	77.3	15.3	84.7	56.5	43.5	100.0(2,282)
비경찰후기여	41.4	58.6	30.1	69.9	68.0	32.0	100.0(2,163)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노인복지관 이용형태를 살펴보면, 경찰 후기 남성노인의 9.6%, 비경찰 초기 남성노인의 10.3%가 이용하며, 비경찰 후기 남성노인 또한 8.8%가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비경찰 초기여성노인의 11.9%, 비경찰 후기 여성노인의 약 8.4%가 이용하고 있었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경찰 초기 남성노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인특성유형별 약 8~12%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특성유형별 복지관 이용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후기여성노인의 이용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2-5> 노인특성유형별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체	8.9(946)	91.1(9,730)	10.0(729)	90.0(6,528)	6.3(216)	93.7(3,200)	100.0(10,676)
경활초기남	5.4	94.6	4.2	95.8	7.0	93.0	100.0(1,502)
경활후기남	9.6	90.4	11.9	88.1	8.4	91.6	100.0(446)
경활초기여	7.1	92.9	8.4	91.6	6.0	94.0	100.0(1,179)
경활후기여	6.1	93.9	8.3	91.7	4.8	95.2	100.0(442)
비경활초기남	10.3	89.7	11.0	89.0	6.3	93.7	100.0(1,456)
비경활후기남	8.8	91.2	9.3	90.7	7.2	92.8	100.0(1,201)
비경활초기여	11.9	88.1	12.8	87.2	7.7	92.3	100.0(2,283)
비경활후기여	8.4	91.6	10.0	90.0	4.5	95.5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집, 경로당, 공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여가중심형의 비율이 높은 비경활 남성노인의 경우 공원·산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며, 경활 후기 여성노인의 경우 경로당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표 2-6>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 장소(전체)

(단위: %, 명)

	집	경로당	복지관외 공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공원·산	전체
전체	34.2(964)	27.9(787)	9.7(273)	0.5(13)	2.1(60)	25.7(725)	100.0(2,822)
경활초기남	26.0(114)	21.9(96)	4.3(19)	0.9(4)	3.7(16)	43.2(189)	100.0(438)
경활후기남	22.1(27)	54.1(66)	4.9(6)	0.0(0)	0.0(0)	18.9(23)	100.0(122)
경활초기여	30.0(94)	45.0(141)	11.5(36)	0.3(1)	0.3(1)	12.8(40)	100.0(313)
경활후기여	18.8(21)	66.1(74)	4.5(5)	1.8(2)	0.0(0)	8.9(10)	100.0(112)
비경활초기남	32.3(150)	10.1(47)	10.3(48)	0.2(1)	3.2(15)	43.9(204)	100.0(465)
비경활후기남	34.3(106)	13.6(42)	12.3(38)	0.3(1)	2.9(9)	36.6(113)	100.0(309)
비경활초기여	41.6(237)	19.8(113)	16.5(94)	0.4(2)	3.0(17)	18.8(107)	100.0(570)
비경활후기여	43.6(215)	42.2(208)	5.5(27)	0.4(2)	0.4(2)	7.9(39)	100.0(493)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지역별 여가활동장소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전체적으로 집과 공원·산의 비중이 높고 경로당은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의 경우 집과 공

원·산의 비중이 32.6%와 4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경우 33.9%와 41.0%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도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경활 남성 노인의 경우 노후생활의 유형이 여가중심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노후 전반의 생활이 집과 공원·산 등에서 많이 보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초기 여성노인의 경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의 이용이 높으며, 후기 여성노인의 경우 경로당 이용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2-7>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장소(도시)

(단위: %, 명)

	집	경로당	복지관외 공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공원·산	전체
전체	38.3(699)	15.2(278)	11.4(207)	0.4(8)	2.7(50)	31.9(581)	100.0(1,823)
경활초기남	31.1	5.7	4.1	0.8	3.7	54.5	100.0(244)
경활후기남	20.0	37.1	8.6	0.0	0.0	34.3	100.0(35)
경활초기여	43.8	11.5	18.8	1.0	0.0	25.0	100.0(96)
경활후기여	15.6	56.3	3.1	6.3	0.0	18.8	100.0(32)
비경활초기남	32.6	7.7	9.7	0.0	3.8	46.2	100.0(390)
비경활후기남	33.9	9.2	12.4	0.4	3.2	41.0	100.0(251)
비경활초기여	44.2	12.8	18.6	0.2	3.5	20.6	100.0(452)
비경활후기여	48.6	34.4	6.8	0.3	0.6	9.3	100.0(323)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농촌지역의 경우 경로당 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비경활 노인의 경우 복지관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초기 남성노인이 복지관 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초기 여성노인의 복지관 등의 이용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표 2-8> 노인특성유형별 여가활동장소(농촌)

(단위: %, 명)

	집	경로당	복지관외 공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공원·산	전체
전체	26.5(264)	51.0(508)	6.4(64)	0.6(6)	1.1(11)	14.4(143)	100.0(996)
경활초기남	19.5	42.1	4.1	1.5	4.1	28.7	100.0(195)
경활후기남	23.3	61.6	2.3	0.0	0.0	12.8	100.0(86)
경활초기여	24.2	60.5	7.9	0.0	0.0	7.4	100.0(215)
경활후기여	19.2	70.5	5.1	0.0	0.0	5.1	100.0(78)
비경활초기남	30.7	21.3	14.7	1.3	0.0	32.0	100.0(75)
비경활후기남	35.0	33.3	11.7	0.0	3.3	16.7	100.0(60)
비경활초기여	31.6	47.0	8.5	0.9	0.9	11.1	100.0(117)
비경활후기여	34.1	57.1	2.9	0.6	0.0	5.3	100.0(170)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노후 여가활동의 하나의 활동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여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다소 높으나, 전반적으로 5~7%내외로 나타났다.

<표 2-9> 노인특성유형별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전체	3.8(406)	96.2(10,268)	4.5(328)	95.5(6,928)	2.3(77)	97.7(3,339)	100.0(10,674)
경활초기남	5.0	95.0	6.0	94.0	3.7	96.3	100.0(1,503)
경활후기남	5.4	94.6	7.6	92.4	4.2	95.8	100.0(446)
경활초기여	2.9	97.1	4.0	96.0	2.0	98.0	100.0(1,179)
경활후기여	0.9	99.1	1.8	98.2	0.4	99.6	100.0(441)
비경활초기남	5.9	94.1	6.2	93.8	3.9	96.1	100.0(1,456)
비경활후기남	4.2	95.8	5.0	95.0	1.4	98.6	100.0(1,200)
비경활초기여	4.0	96.0	4.4	95.6	2.5	97.5	100.0(2,282)
비경활후기여	1.9	98.1	2.4	97.6	0.6	99.4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비경활 노인의 경우 경활 노인에 비해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특히 비경활 초기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며, 남성노인의 경우 경활 노인에

비해 비경활 노인이 다소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10> 노인특성유형별 평생 교육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전체	6.6(708)	93.4(9,967)	7.6(550)	92.4(6,706)	4.6(157)	95.4(3,262)	100.0(10,675)
경활초기남	4.3	95.7	3.7	96.3	5.1	94.9	100.0(1,502)
경활후기남	3.6	96.4	5.0	95.0	2.8	97.2	100.0(447)
경활초기여	5.8	94.2	5.7	94.3	5.8	94.2	100.0(1,179)
경활후기여	2.9	97.1	4.8	95.2	1.8	98.2	100.0(442)
비경활초기남	6.7	93.3	7.0	93.0	5.3	94.7	100.0(1,456)
비경활후기남	5.8	94.2	6.7	93.3	2.9	97.1	100.0(1,200)
비경활초기여	10.6	89.4	11.5	88.5	6.4	93.6	100.0(2,282)
비경활후기여	6.3	93.7	7.2	92.8	4.2	95.8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노인특성유형별 동호회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경활 노인과 비경활 노인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의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의 동호회 참여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2-11> 노인특성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여부(동호회)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전체	3.7(396)	96.3(10,279)	4.0(288)	96.0(6,970)	3.2(110)	96.8(3,309)	100.0(10,675)
경활초기남	6.7	93.3	6.5	93.5	7.1	92.9	100.0(1,502)
경활후기남	3.4	96.6	2.5	97.5	3.8	96.2	100.0(446)
경활초기여	1.3	98.7	1.5	98.5	1.1	98.9	100.0(1,179)
경활후기여	0.2	99.8	0.0	100.0	0.4	99.6	100.0(442)
비경활초기남	8.7	91.3	9.0	91.0	7.3	92.7	100.0(1,456)
비경활후기남	5.2	94.8	5.4	94.6	4.7	95.3	100.0(1,201)
비경활초기여	2.4	97.6	2.3	97.7	3.0	97.0	100.0(2,282)
비경활후기여	0.9	99.1	1.1	98.9	0.5	99.5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친목단체는 노인 중 37.0%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 중 하나이다. 경활 노

인에 비해 비경활 노인의 친목단체 참여율은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경활 노인의 경우 직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친목모임이 더 많을 수 있는 것과 함께 친목 활동의 경우 비용이 초래되어 비경활 노인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고 예측되어진다. 단지 도시에 거주하는 비경활 초기 여성노인의 경우 43.1%가 친목단체에 참여하고 있어 여성노인유형에서는 가장 활발한 모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노인특성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여부(친목단체)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전체	37.0(3,949)	63.0(6,724)	37.8(2,745)	62.2(4,513)	35.2(1,204)	64.8(2,212)	100.0(10,673)
경활초기남	59.6	40.4	56.9	43.1	62.9	37.1	100.0(1,502)
경활후기남	43.3	56.7	41.8	58.2	44.1	55.9	100.0(446)
경활초기여	37.8	62.2	39.1	60.9	36.8	63.2	100.0(1,179)
경활후기여	20.9	79.1	20.1	79.9	21.5	78.5	100.0(441)
비경활초기남	47.1	52.9	48.2	51.8	40.5	59.5	100.0(1,456)
비경활후기남	31.5	68.5	33.7	66.3	24.0	76.0	100.0(1,200)
비경활초기여	41.5	58.5	43.1	56.9	33.8	66.2	100.0(2,282)
비경활후기여	14.4	85.6	16.0	84.0	10.7	89.3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컴퓨터 이용 능력은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많은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컴퓨터 이용 능력은 노인의 외부와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노인특성별 컴퓨터 이용 능력을 살펴보면 도시 초기 남성노인 중 컴퓨터 이용이 가능한 비율이 약 15~20% 내외로 나타나며, 도시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경우도 10.8%로 나타났다. 즉, 노후생활 유형 중 여가중심형의 비중이 높은 도시지역 비경활 남성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컴퓨터 이용능력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이 정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컴퓨터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13> 노인특성유형별 컴퓨터(인터넷)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전체	6.5(685)	93.5(9,826)	8.8(629)	91.2(6,495)	1.7(56)	98.3(3,333)	100.0(10,511)
경활초기남	10.6	89.4	15.5	84.5	4.8	95.2	100.0(1,476)
경활후기남	3.1	96.9	6.3	93.7	1.4	98.6	100.0(446)
경활초기여	1.9	98.1	4.1	95.9	0.2	99.8	100.0(1,171)
경활후기여	0.0	100.0	0.0	100.0	0.0	100.0	100.0(439)
비경활초기남	17.4	82.6	19.7	80.3	3.5	96.5	100.0(1,439)
비경활후기남	8.8	91.2	10.8	89.2	1.9	98.1	100.0(1,168)
비경활초기여	4.9	95.1	5.7	94.3	1.2	98.8	100.0(2,265)
비경활후기여	1.3	98.7	1.8	98.2	0.3	99.7	100.0(2,10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노인의 여가활동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활동은 TV시청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특성유형별 1일 평균 TV시청시간을 살펴보면, 도시노인은 평균 5.3시간을 시청하며, 농촌은 4.7시간으로 나타났다. 경활 노인에 비해 비경활 노인의 TV시청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활 노인 중에서도 비경활 후기 남성노인의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특히 농촌 비경활 남성노인의 경우 TV시청시간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여가 켜리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노후생활에서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바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특성별 1년간 여행경험을 살펴보면, 평균 여행횟수는 전체 0.7회이며, 도시지역은 0.7회, 농촌은 0.8로 년 1회 미만의 여행 경험을 갖고 있다. 특성별로는 경활 초기 남성노인과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0회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후기여성노인의 여행횟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경우 비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0회로 높았으며, 그 이외에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경활 초기 남성노인이 1.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14> 노인특성유형별 1일 평균 TV 시청시간 및 1년 평균 여행횟수

(단위: 시간, 횟수,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TV시청시간	여행횟수	TV시청시간	여행횟수	TV시청시간	여행횟수
전체	5.1(10,674)	0.7(10,674)	5.3(7,257)	0.7(7,257)	4.7(3,418)	0.8(3,418)
경활초기남	3.6	1.0	3.4	0.8	4.0	1.2
경활후기남	4.5	0.7	4.9	0.6	4.3	0.8
경활초기여	3.6	0.8	3.6	0.7	3.5	0.9
경활후기여	4.9	0.5	6.5	0.4	4.0	0.6
비경활초기남	5.3	1.0	5.1	1.0	6.3	0.9
비경활후기남	6.2	0.7	6.1	0.7	6.4	0.7
비경활초기여	5.4	0.8	5.6	0.8	4.6	0.8
비경활후기여	6.0	0.4	5.9	0.4	6.1	0.4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상의 노인의 특성별 여가 형태를 살펴본 결과 노인의 특성별 여가를 보내는 방법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가의 중심이 되는 활동내용이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노인의 여가활동은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기관 등에서의 활동을 하는 노인보다는 가정이나 산·공원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 형태는 경제활동이나 가정관리, 돌봄 등의 중요 활동이 있는 형태에서는 여가시간이 휴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가중심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경우 단순하고 목적이 없는 여가활동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비경활 남성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노인의 교육수준별 여가활동 특성

여가활동을 비롯하여 생활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앞서 살펴본 경제활동, 성별, 연령, 지역과 함께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경제활동,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한 노인특성 유형과 교육수준과도 상관성을 갖고 있다. 노인특성유형별로 고등교육과정인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6.9%가 전문대학 이상이며, 경활 초기남자 노인의 8.2%, 경활 후기 남자노인의 4.7%, 경활 초

기 여자노인과 경활 후기 여자노인의 0.8~0.7%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표 2-15> 노인특성유형별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무학(글자모름)	무학(글자해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계
전체	11.0	20.7	35.4	25.9	6.9	100.0(10,674)
경활초기남	1.7	7.1	37.2	45.9	8.2	100.0(1,502)
경활후기남	4.9	18.6	44.6	27.1	4.7	100.0(446)
경활초기여	13.9	27.4	47.1	10.8	0.8	100.0(1,179)
경활후기여	26.3	42.4	27.4	3.2	0.7	100.0(441)
비경활초기남	1.9	7.1	26.6	48.8	15.7	100.0(1,456)
비경활후기남	2.9	14.3	33.8	31.2	17.8	100.0(1,200)
비경활초기여	8.9	22.5	40.9	23.3	4.4	100.0(2,282)
비경활후기여	26.6	33.5	28.7	9.3	1.9	100.0(2,167)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비경활 노인의 경우 초기 남자노인과 후기 남자노인의 경우 15.7%와 17.8%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비경활 초기 여자노인의 4.4%, 비경활 후기 여자노인의 1.9%가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즉, 노후생활유형에서 여가활동형이 높은 비경활 초기와 후기 남자노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비율이 높으며,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의 비율도 경활 남자노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노인층의 교육수준별 여가활동의 형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 중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이는 활동은 여행, 자원봉사활동, 단체참여, 평생교육 영역으로 이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 중 1년간 여행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3.7%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행경험률이 높아지며, 횟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무학의 경우 여행경험률은 25.2%(무학 글자모름)에서 27.3%(무학 글자해독)으로 나타나며, 초등학교는 33.4%, 중고등학교는 36.9%, 전문대학 이상은 54.9%로 나타났다. 횟수에서도 무학에서는 년 1회의 여행경험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년 2회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및 횟수

(단위: %, 명)

특성	여행 경험률	국내외 여행 횟수					계 (명)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33.7	51.8	26.1	8.6	13.5	100.0	(3,545)
무학(글자모름)	25.2	71.4	23.0	3.5	2.1	100.0	(287)
무학(글자해독)	27.3	60.3	25.4	7.2	7.1	100.0	(594)
초등학교	33.4	54.2	25.6	7.8	12.4	100.0	(1,250)
중·고등학교	36.9	45.2	27.7	9.4	17.6	100.0	(1,010)
전문대학 이상	54.9	34.7	27.2	14.6	23.5	100.0	(404)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여행방법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속단체 회원들과의 여행보다는 개별 여행, 또는 여행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국내외 여행 방법

(단위: %, 명)

특성	개별 여행	소속 단체 회원들과 여행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여행패키지 상품 이용	기타	계	(명)
전체	31.0	61.0	4.7	3.2	0.1	100.0	(3,545)
무학(글자모름)	20.2	77.0	2.1	0.7	0.0	100.0	(287)
무학(글자해독)	22.7	70.6	4.0	2.7	0.0	100.0	(596)
초등학교	28.3	66.1	3.4	2.1	0.2	100.0	(1,248)
중·고등학교	37.4	52.5	5.1	4.8	0.2	100.0	(1,010)
전문대학 이상	43.4	40.9	9.9	5.5	0.2	100.0	(403)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수준별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를 파악하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에서는 컴퓨터 이용능력이 월등히 높아, 응답자의 45.2%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교 이하 집단에서의 이용능력은 매우 낮게 나타나, 이들 매체를 통한 여가활동에 제한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18>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능숙하게 사용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가능	사용 가능, 원하는 정보검색 어려움	전혀 사용 불가능	계	(명)
전체	1.5	5.0	6.3	87.2	100.0	(10,498)
무학(글자모름)	0.1	0.0	0.2	99.7	100.0	(1,136)
무학(글자해독)	0.3	0.2	1.0	98.4	100.0	(2,181)
초등학교	0.0	1.4	2.6	96.0	100.0	(3,733)
중·고등학교	2.1	8.5	14.6	74.9	100.0	(2,714)
전문대학 이상	12.5	32.7	19.6	35.1	100.0	(734)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생교육 참여 형태를 교육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율이 14.9%로 노인 전체의 평균인 6.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 교육 참여빈도에서는 교육수준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표 2-19>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참여율	교육 참여 빈도						계	(명)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전체	6.7	13.8	45.0	36.8	2.0	2.1	0.3	100.0	(705)
무학(글자모름)	2.2	3.8	42.3	46.2	3.8	3.8	0.0	100.0	(26)
무학(글자해독)	5.8	9.5	44.4	39.7	2.4	2.4	1.6	100.0	(126)
초등학교	6.1	14.5	35.1	48.7	0.9	0.4	0.4	100.0	(228)
중·고등학교	7.9	14.9	54.9	24.2	3.3	2.8	0.0	100.0	(215)
전문대학 이상	14.9	16.5	47.7	31.2	0.0	4.6	0.0	100.0	(109)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교육수준별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 전체에서는 노인복지관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대학부설의 비중이 11.7%로 높게 나타나며, 문화예술회관이나 사설문화센터·학원의 비율도 전체 노인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

<표 2-20>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교)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회관 등	사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계	(명)
전체	45.8	2.3	15.7	2.9	17.9	3.0	5.0	7.4	100.0	(705)
무학(글자모름)	44.0	4.0	24.0	0.0	12.0	4.0	4.0	8.0	100.0	(25)
무학(글자해독)	50.4	3.9	18.1	0.0	15.0	3.1	3.9	5.5	100.0	(127)
초등학교	46.3	1.3	17.9	1.3	15.3	2.2	5.2	10.5	100.0	(229)
중·고등학교	49.3	2.8	14.4	1.9	17.7	3.3	3.7	7.0	100.0	(215)
전문대학 이상	32.4	1.8	8.1	11.7	27.9	4.5	9.0	4.5	100.0	(111)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수준별로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도 고학력 노인의 경우 일반교양 강좌를 가장 많이 듣고 있으며, 다음이 여가 및 취미, 정보화의 순서로 나타난다. 전체 노인의 경우 여가 및 취미, 건강관리/운동과 일반교양의 내용을 수강하는 것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 학력 노인의 경우 정보화 강좌의 수강이 높게 나타난다.

<표 2-21>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현재 참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계	(명)
전체	20.1	43.3	20.6	12.8	3.2	100.0 (705)
무학(글자모름)	24.0	48.0	24.0	0.0	4.0	100.0 (25)
무학(글자해독)	26.2	37.3	28.6	4.0	4.0	100.0 (126)
초등학교	26.8	57.0	9.6	3.9	2.6	100.0 (228)
중·고등학교	18.7	40.2	15.9	23.8	1.4	100.0 (214)
전문대학 이상	0.9	27.5	43.1	22.9	5.5	100.0 (109)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교육수준별로 향후 이용하고 싶은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전체 노인에서는 노인복지관, 시·군·구/동·읍·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자의 경우 시·군·구/동·읍·면과 노인복지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대학교 부설이나 사설문화센터·학원을 희망하는 경우도 다른 학력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특성을 갖는다. 또한 초등학교 미만의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2>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교) 부설	시·군·구/ 동·읍·면	문화예술 회관 등	시설문화 센터·학원	기타	계	(명)
전체	47.3	2.6	8.4	3.3	27.6	2.5	4.4	3.9	100.0	(1,544)
무학(글자모름)	61.9	0.0	7.9	0.0	27.0	1.6	0.0	1.6	100.0	(63)
무학(글자해독)	58.0	3.9	12.1	0.8	17.9	1.2	3.1	3.1	100.0	(257)
초등학교	46.4	3.5	10.3	1.1	28.4	1.3	3.7	5.3	100.0	(457)
중·고등학교	48.5	2.6	6.0	3.3	28.0	3.5	4.0	4.0	100.0	(546)
전문대학 이상	30.0	0.0	5.9	11.8	36.4	4.5	9.1	2.3	100.0	(220)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학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가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고등 학력에서는 정보화, 전문대 이상에서는 일반 교양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향후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운동 여가 및 취미	일반교양	정보화	기타	계	(명)
전체	19.9	39.2	18.1	17.6	100.0	(1,544)
무학(글자모름)	29.0	35.5	30.6	1.6	100.0	(62)
무학(글자해독)	22.5	37.2	23.6	9.7	100.0	(258)
초등학교	27.6	41.4	10.9	16.4	100.0	(457)
중·고등학교	15.6	39.3	15.0	25.7	100.0	(545)
전문대학 이상	9.0	37.4	30.6	14.0	100.0	(222)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교육수준별로 단체활동 참여의 다른 특성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단체활동의 참여율이 높으며, 동호회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며, 향후 이용희망율도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표 2-24>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단체활동 현재 참여율 및 향후 참여 희망률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율			향후 참여 희망률			대상자수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동호회 클럽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전체	3.8	37.4	0.7	4.3	37.5	0.8	(10,544)
무학(글자모름)	0.3	13.5	0.0	0.3	14.0	0.0	(1,146)
무학(글자해독)	0.6	23.0	0.2	1.1	23.8	0.2	(2,184)
초등학교	2.2	37.8	0.3	2.5	37.8	0.4	(3,743)
중·고등학교	7.2	51.0	1.2	8.3	50.7	1.7	(2,737)
전문대학 이상	13.6	64.7	2.6	14.1	63.3	2.6	(735)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원봉사활동에서도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11.2%로 전체 노인의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경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5>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이 없음	계	(명)
전체	3.9	9.2	86.9	100.0	(10,544)
무학(글자모름)	0.3	2.7	96.9	100.0	(1,146)
무학(글자해독)	1.3	5.1	93.6	100.0	(2,184)
초등학교	3.3	8.0	88.7	100.0	(3,743)
중·고등학교	6.2	14.3	79.5	100.0	(2,737)
전문대학 이상	11.2	19.2	69.7	100.0	(735)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이유에서도 전문대학 이상에서 사회 환원의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이유에서 자신의 성취를 위해 실시한다는 비율이 70.9%인 것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6.1%로 낮고 사회 환원을 이유로 하는 비율이 42.7%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표 2-26>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신의 성취	사회 환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시간 보내기	기타	계	(명)
전체	70.9	24.3	2.1	2.5	0.2	100.0	(407)
무학(글자모름)	100.0	0.0	0.0	0.0	0.0	100.0	(3)
무학(글자해독)	75.0	25.0	0.0	0.0	0.0	100.0	(28)
초등학교	78.9	13.0	3.3	4.1	0.8	100.0	(123)
중·고등학교	70.8	24.0	2.3	2.9	0.0	100.0	(171)
전문대학 이상	56.1	42.7	1.2	0.0	0.0	100.0	(82)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교육수준별로도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미활동과 자아개발, 자원봉사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표 2-27> 노인(65세 이상)의 교육수준별 본인의 노후(여생)를 보내고 싶은 방법

(단위: %, 명)

특성	취미 활동	자아 개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건강 유지	편히 원한다	계	(명)
전체	4.1	1.1	2.5	5.8	19.6	52.3	14.6	100.0	(10,536)
무학(글자모름)	0.2	0.4	0.7	1.8	14.9	57.5	24.5	100.0	(1,141)
무학(글자해독)	2.4	0.6	1.4	5.1	16.8	55.6	18.1	100.0	(2,183)
초등학교	3.9	0.5	1.7	5.6	22.0	52.0	14.3	100.0	(3,740)
중·고등학교	4.9	1.0	4.3	8.1	22.4	49.4	9.9	100.0	(2,737)
전문대학 이상	13.6	7.1	5.9	6.7	12.1	47.5	7.1	100.0	(734)

자료: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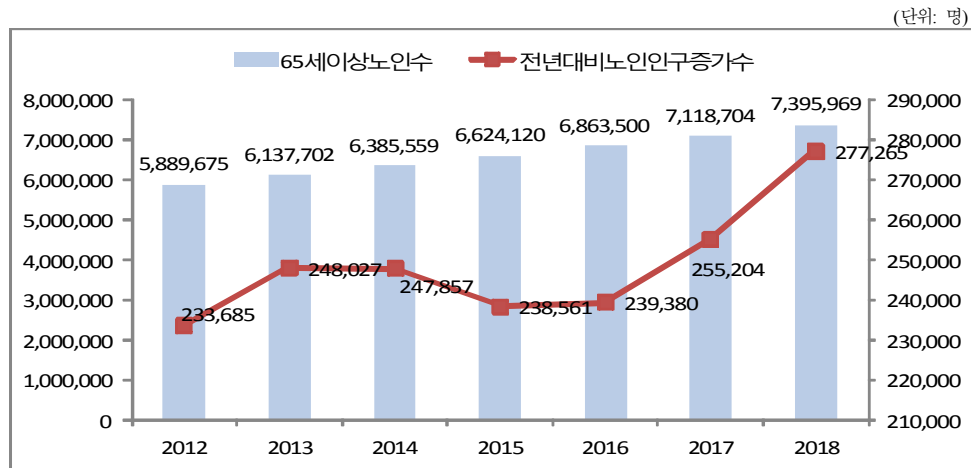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의 경제활동, 성, 연령 그리고 지역 뿐 아니라 노인의 교육수준은 노후생활유형을 결정하는 의미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 성, 연령, 지역에 따라 노후생활유형에 차이를 갖고 온다. 그러나 노후 여가 활동의 내용 측면에 차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은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2절 노인의 여가활동 변화 전망

1. 노인인구 규모의 변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2년 현재 11.8%이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노인의 인구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889천명에서 5년 이후 2018년에는 7,395천명으로 약 1,506천명이 증가하여 년 평균 300천명씩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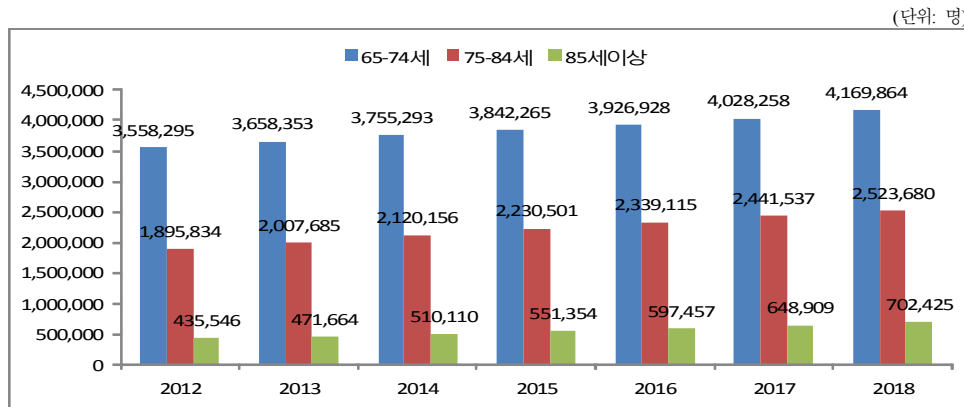
[그림 2-2]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 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노인의 연령군별 노인 인구수의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65~74세 노인인구는 3,558천명이며, 2018년에는 4,169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75~84세는 1,895천명(2012년)에서 2,523천명(2018년)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 노인 인구수도 435천명(2012년)에서 702천명(2018년)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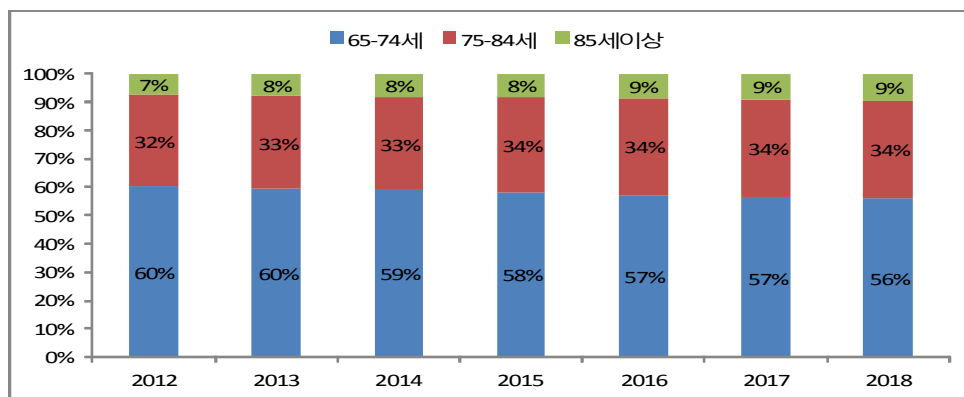
[그림 2-3]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인구 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75세 미만의 비율이 2012년 60%이며, 2018년 56%로 약간 감소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75~84세의 연령비율은 32%(2012년)에서 34%(2018년)로 약간 증가하며, 85세 이상의 비율도 약간 증가한다. 향후 5년간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구성은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노인 인구수로 볼 때 여가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초기노인(75세 미만)이 5년간 약 611천명 가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2-4] 노인의 연령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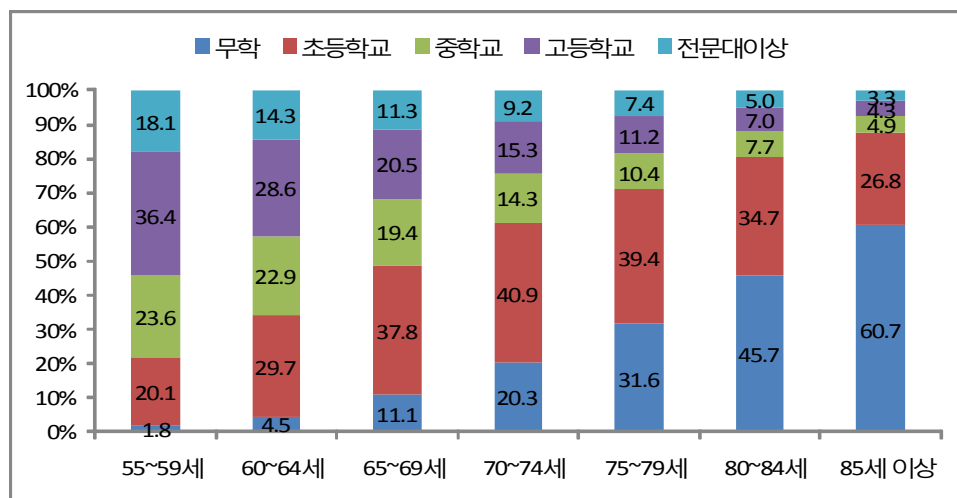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2. 노인특성의 변화

노후생활유형은 경제활동여부, 성,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 한다는 것은 앞서 현 노인세대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다. 향후 노인인구가 급속히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노인의 학력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2010년 인구 총 조사시 가까운 미래에 노인으로 편입 될 60~64세의 연령층에서는 14.3%가 전문대 이상, 28.6%가 고졸의 학력을 보여, 42.9%가 고졸 이상의 학력이다. 또한 2010년도 당시 55~59세의 연령층 중 18.1%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36.4%가 고졸 학력으로 54.5%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인다.

즉, 향후 노인세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많이 진입하게 되고, 이들의 경우 연령이 젊은 노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계층으로 적극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5] 연령별 교육수준 변화



자료: 통계청, 2010년 인구 총 조사 재분석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특성 또한 변화하고 있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1948년생 이전 출생자이며, 2018년까지 노인인구에 편입될 노인인구는

1949년~1954년 출생자로서 전후 세대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할 것이다. 전후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한 이후에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생~1964년생(712만명)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될 것이며, 2019년부터 약 9년간은 1년에 평균 약 80만명 가량이 노인세대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가 진입되기 이전 2018년까지는 우리 사회가 높은 고령화를 뿐 아니라 대규모 노인 인구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향후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될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의 일에 대한 욕구는 현 노인층 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64.5%와 63.9%로 일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 건강, 자기발전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계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에 대한 욕구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별 노년기 일에 대한 욕구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65세 이후 일할지 여부					
할 것이다	64.0	64.5	63.9	64.2	63.5
안 할 것이다	36.0	35.5	36.1	35.8	36.5
일을 하려는 이유					
소득을 위해	60.3	65.5	58.5	59.1	57.7
건강을 위해	16.3	16.7	16.2	16.5	15.8
자기발전을 위해	13.4	10.4	14.4	14.5	14.2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7.0	5.4	7.5	7.2	7.9
사회/타인을 돕기 위해	3.0	2.1	3.4	2.7	4.3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생각하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후세대는 65.9%, 베이비붐 세대는 69.4%로, 현재의 삶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후 삶에서의 여가활동의 중요도는 현재의 삶보다 더욱 높아져 78.8%와 83.7%를 나타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노후에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서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29>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현재의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8.0	5.9	8.8	8.0	9.7
중요하다	60.4	60.0	60.6	57.9	63.7
보통이다	23.5	26.0	22.6	24.9	20.0
중요하지 않다	7.4	7.6	7.3	8.3	6.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7	0.4	0.7	0.9	0.5
노후 삶에서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	15.6	13.2	16.4	14.7	18.5
중요하다	66.8	65.6	67.3	66.0	68.8
보통이다	15.2	18.3	14.1	17.0	10.7
중요하지 않다	2.4	2.9	2.2	2.3	2.1
전혀 중요하지 않다	0.0	0.0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050)	(1,022)	(3,027)	(1,633)	(1,395)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컴퓨터와 인터넷 매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현 노인층에 비해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컴퓨터/인터넷 활용 능력은 더욱 우수하여, 전후세대의 경우 25.7%가 능숙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검색이 가능하며,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46.8%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인층에 비해 미래 노인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가 여가 활동에 활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0>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컴퓨터/인터넷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매우 능숙함	11.9	6.9	13.6	8.9	19.1
원하는 정보 검색 가능	29.5	18.8	33.2	30.4	36.4
원하는 정보 검색 어려움	27.1	24.7	28.0	28.9	26.9
전혀 사용할 줄 모름	31.4	49.6	25.3	31.8	17.6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4)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세대로 편입된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하는 노후생활 형태를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에 노인으로 편입된 전후세대는 취미생활을 하면서가 41.2%로 가장 높으며, 소득창출을 하면서 20.6%, 자원봉사 14.6%, 종교활동 10.9%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취미생활이 42.3%, 소득창출 18.8%, 자원봉사 16.8%, 종교활동 9.1%로 나타났다. 현 노인세대에 비해 향후 노인으로 편입될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취미생활과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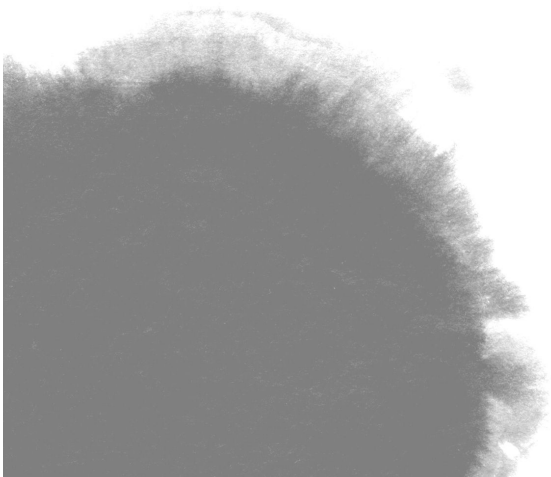
<표 2-31>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희망노후 생활

(단위: %, 명)

구분	전체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전체	전기 베이비붐 세대	후기 베이비붐 세대
취미생활을 하면서	42.0	41.2	42.3	39.9	45.1
자기계발 활동을 하면서	7.0	5.8	7.5	6.9	8.2
자원봉사를 하면서	16.2	14.6	16.8	16.1	17.6
종교활동을 하면서	9.6	10.9	9.1	10.5	7.5
소득창출을 하면서	19.2	20.6	18.8	19.7	17.7
가사/손자녀 양육	2.6	2.9	2.5	3.1	1.7
아무 것도 하지 않고	3.3	4.1	3.0	3.9	2.1
기타	0.0	0.0	0.0	0.0	0.1
계 (명)	100.0 (4,050)	100.0 (1,022)	100.0 (3,027)	100.0 (1,633)	100.0 (1,395)

자료: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여가복지 정책 현황 분석



제3장 노인 여가복지 정책 현황 분석

제1 절 노인 여가 복지 정책 현황

1. 노인여가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

노인 여가복지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 참여 지원」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봉사활동과 근로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의 의무(2011. 6. 7)를 갖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정의한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이 제시되어있다. 노인복지관은 시설 규모 기준에 따라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서,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기준 이용인원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의 기준으로 하여,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이용정원 50명 이상으로 사무실,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강의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개인, 단체와 상관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표 3-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기준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강의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노인교실	1					1			1	1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경로당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기준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한 규정」 제55조 (경로당 등) 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경로당 시설의 기준은 제55조 2항으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류(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과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경로당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비해 급수시설이나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제시함으로 더 엄격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설치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단지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경로당은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수요에 따른 공급을 조절할 기제가 없는 실정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지원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는다. 이는 노인여가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제에 의해 2005년 이후 지방이양산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경로당운영과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과 제37조 3항에 의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조항을 갖고 있다.

2. 노인여가복지사업

노인여가복지사업은 기관을 기준으로 한 구분과 사업(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후자는 노인평생교육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 취미여가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본 절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으로 노인여가복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외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노인복지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012년)에 의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나뉘는데, 기본사업은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 고용지원사업, 기능회복지원사업, 정서생활지원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경로당 혁신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며, 선택사업은 건강생활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소득지원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가족통합지원사업, 지역자원개발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노인권익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있으나,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종합적 복지기관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표 3-2> 노인복지관 사업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노인	평생교육지원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정보화교육역사교실, 예비노인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취미여가지원	음악(노래교실, 민요·풍물교실, 댄스교실 등), 미술(서예, 수공예, 풍선아트), 원예, 다도교실, 연극, 레크리에이션, 운동, 바둑장기, 당구·탁구 등	
	고용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고령자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공동작업장, 은퇴준비교육 등	
	건강 생활 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운동재활,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중풍환자 프로그램, 주간·야간·단기보호, 그룹홈, 장제서비스 등
	정서생활지원	접수상담, 노인문제상담, 복지정보 및 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성 등), 심리상담, 종교행사, 죽음준비교육,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경로당혁신프로그램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임원리더십강화사업, 경로당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소득지원	후원금 연결, 은퇴 후 경제생활 적응, 경제교육 등		

대상	사 업	세부 프로그램
가족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지역복지연계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노인복지관조직	운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
	사업관리	프로그램개발, 실행, 점검, 평가, 보완 등
	연구개발	사업기획, 조사연구, 실습지도, 출판, 홍보, 자문(운영)위원회,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주: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함.

나. 경로당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으며, 단지 노인들이 여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되어있다. 따라서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로당의 수가 많고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이다 (201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혁신 사업은 경로당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군·구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를 통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경로당 운영 관리 지원, 경로당에 대한 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구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관리 중 주요한 사업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부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의 역할을 주로 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사업이 통합·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소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향후 경로당이 자립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아직도 이들 사업이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 노인교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교실은 노인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교실 설치의 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기반하고 있으나, 운영과 관련된 기준은 법적 근거 뿐 아니라 사업안내 등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의 노인여가복지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관 등

지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외의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문화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의 기관에서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거나, 전 연령층의 여가복지를 위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노인의 여가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민간 평생교육기관,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대학에서 노인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노인종합문화센터, 노인문화센터 등을 설치하여 노인의 여가복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충청남도 예산군에서는 농촌이라는 특성을 살려 면단위의 ‘행복경로당’ 사업을 통해 노인의 여가사업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영화관을 실버영화관으로 지정하여 노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시·도와 시·군·구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좀 더 자세한 지역의 사례는 <제5장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연구>에서 제시하였다.

3.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정부지원 현황

노인여가복지사업의 대부분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전되어 지자체에서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은 정상적 수요사업과 비정상적 수요 사업으로 나뉘는데 노인여가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 수요사업에는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활성화,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으며, 비정상적사업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여기에 속한다.

노인여가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사업별 예산의 출처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예산의 출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나뉘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노인여가복지사업별로 예산지원 출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경로당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권교부세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담당자 인건비, 프로그램비, 양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경로당 지원 내역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국고보조를 통한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난방비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설치예정이지만 아직 시도별로 운영중인 곳은 없는 상태이다. 특별교부세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일부를 국고보조금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의 지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별 경로당에서 보면, 경로당 난방비는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운영비(전기, 전화통신비 등 기타 관리비)와 양곡비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 출처 현황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경로당 관련사업	· 경로당난방비 · 경로당광역지원센터운영(2012년 도입 예정)	· 경로당 운영비 · 경로당활성화사업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 경로당순회프로그램비 · 양곡비지원	· 경로당 난방비
노인복지관	-	·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비경상적 사업) · 노인복지회관 운영	-
노인교실	-	· 노인교실 프로그램비	-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프로그램 · 자원봉사대축제 · 대한노인회 자원봉사활성화	-	-
기타 노인여가복지사업	-	· 지자체별 노인여가복지사업	-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지방교부세의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원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 신축비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년 13개소씩 신축비로서 개소 당 32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신축비와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원봉사대축제, 대한노인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외의 지자체별로 분권교부세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2005년 지방이양의 취지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인 지방이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기존의 운영비 지원과 명목상 큰 차이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현황

지역에서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과 사회복지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관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전국 281개소가 설치되어있다.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군·구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개 시·군·구별 1.2개소가 설치되어있어 전국적인 목표수준은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1개 시·군·구 평균 1.5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중소도시 또한 1.5개소, 농어촌은 0.8개소가 설치되어있다.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40개 지역으로 나타난다.

경로당은 전국 61,749개소(2011년 말 현재)로 평균 노인인구 92명당 1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전국 시·군·구별 평균 268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대 930개소부터 최소 22개소가 운영 중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대도시권에서는 1개 시·군·구의 평균 138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대 362개소, 최소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대도시 노인 235명당 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도시시는 1개 시·군·구당 평균 36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최대 930개, 최소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 노인인구 89명당 1개소가 운영 중이다. 농어촌 지역은 경로당이 1개 시·군별 291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대 634개소, 최소 22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로당 1개소 당 평균 노인 인구수는 41명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운영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국 287명이 활동 중이며, 시·도 단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18명이며, 시·군·구 단위는 267명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에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대부분 1명이 근무하며, 서울, 광주, 경기도는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1명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23개 지역에서는 2명, 3개 지역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노인교실은 전국 1,559개소가 운영 중이고, 시·군·구 평균 6.1개소가 운영 중이며, 최대 57개소, 최소 0개소로 파악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또한 파악된 모든 노인교실이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사회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복지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인의 여가복지 제공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전국 42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군·구 평균 1.9개소, 최대 10개소, 최소 0개소로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 대도시의 경우 시·군·구별 평균 3.3개소, 중소도시는 평균 2.2개소, 농어촌은 0.4개소가 운영 중으로 지역별 편차가 사회복지관 설치 수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모두 부재한 곳은 전국 시·군·구 중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나타난다.

<표 3-4> 노인여가복지사업 관련 기관 현황

(단위: 개소, %, 명)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노인복지관	104	109	68	281
평균수	1.5	1.5	0.8	1.2
최대값	4	6	3	6
최소값	0	0	0	0
시·군·구 중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3(4.3)	12(16.0)	25(29.1)	40(17.3)
경로당	9,548	27,066	25,135	61,749
평균수	138.4	360.9	292.3	268.5
최대값	362	930	634	930
최소값	28	31	22	22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236.0	89.0	41.3	92.3
노인교실	666	653	240	1,559
평균수	9.7	6.5	2.8	6.1
최대값	27	57	19	57
최소값	0	0	0	0
시·군·구 중 노인교실 미설치 지역 수(비율)	1(1.4)	16(21.3)	29(33.7)	46(19.9)
사회복지관	232	162	34	428
평균수	3.3	2.2	0.4	1.9
최대값	10	9	3	10
최소값	1	0	0	0
시·군·구 중 사회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0(0.0)	9(12.0)	55(64.0)	64(27.7)
시·군·구 중 사회/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 수(비율)	0(0.0)	0(0.0)	4(4.7)	4(1.7)
시·군·구 수	70	75	86	231

자료: 1) 보건복지부,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1. 12말 현재)

2) 2011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2011.12말 현재)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여가 복지 사업 현황¹⁾

1. 노인여가복지 및 경로당 관련 예산 현황

2011년 노인여가복지사업에 1개 시·군·구 평균 지출액은 약 24억원이며, 최소 1억 7천만원에서 최대 221억으로 나타난다. 시·군·구 노인여가복지 사업비 대비 노인여가복지 개별사업 비율의 평균을 살펴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이 57.0%,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이 32.1%, 노인교실관련이 2.3%, 노인여가복지 관련 행사의 평균 비율이 3.5%이며 자원봉사활성화사업이 1.9%, 기타 여가복지사업의 비율이 14.0%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노인여가복지예산의 2/3 가량은 경로당 관련 사업에 지원되며, 1/3은 노인복지관 관련 사업에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1개 구별 1년간 평균 노인여가복지예산은 약 17억이며, 최소 5억에서 최대 101억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노인여가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의 비율이 48.4%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나타냈다. 중소도시의 경우 1개 시별 1년간 평균 노인여가복지예산은 약 35억이며, 최소 1억 7천만원이며, 경로당 운영에 지원되는 비율은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의 평균 54.7%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1개 군의 여가복지사업비는 평균 20억이며, 최소 1억 8천에서 최대 130억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보다 노인여가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의 평균비율이 67.4%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의 평균비율은 20.6%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 보다는 경로당 중심의 인프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일부 군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비율에서 경로당에 대한 비중이 높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여가복지사업비의 총액을 노인1인당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 년 128.5천원(월 10.7천원)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노인1인당 년 67.6천원(월 5.6천원),

1) 지방자치단체 노인여가복지 현황 조사결과 총 232개 시·군·구 중 146개소(응답율 62.9%)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중소도시는 년 138.3천원(월 11.5천원), 군 지역은 179.5천원(월 15.0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노인 1인당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예산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이 노인인구 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인프라에 투입되는 비용은 유사하고 또한 노인인구대비 경로당의 수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3-5>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구분		(단위: 천원, %)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여가복지사업비					
평균비용		1,752,446	3,469,217	2,038,075	2,381,362
최소		472,000	173,030	179,427	173,030
최대		10,186,960	22,063,623	13,083,026	22,063,623
노인1인당 평균 노인여가복지사업비		67.6	138.3	179.5	128.5
시·군·구 여가복지 사업비 대비 개별사업 비율의 평균	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	48.4	54.7	67.4	57.0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	41.9	32.2	20.6	32.1
	노인교실	2.2	2.5	2.0	2.3
	여가복지 행사	2.8	3.4	4.2	3.5
	자원봉사활성화	1.3	1.7	2.4	1.9
	기타 여가복지	11.9	18.1	12.0	14.0
(N)		(50)	(45)	(51)	(146)

지역별 경로당 지원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지역별로 1개 경로당에 투입되는 지원 금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경로당별 지원되는 연평균 지원액은 7,074천원이며, 중소도시는 9,513천원, 군 지역은 6,366천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경로당 1개소에 지원되는 년 평균 금액은 7,585천원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지원금의 항목별 평균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로당 지원금 중 운영비로 지원되는 평균 비율은 29.5%, 난방비 평균 비율이 28.9%, 양곡 및 식재료비가 3.9%, 기타 지원예산이 29.7%이며, 경로당 활성화사업비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3%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운영

비의 비율이 평균 37.9%로 중소도시의 25.8%, 군 지역의 24.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 비해 경로당활성화사업비와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지역에 경로당의 프로그램 지원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의 비중은 군 지역과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중심의 중앙난방, 도시 가스 등을 이용하여 비교적 저렴한 난방연료를 이용하는 반면, 군 지역의 경우 기름보일러 등의 개별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난방비용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3-6> 지역별 경로당 지원 사업비 노인여가복지 예산(2011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천원, %)
				전체
1개 경로당 평균 지원 금액	7,074.0	9,513.0	6,366.8	7,585.7
운영비 비율	37.9	25.8	24.5	29.5
난방비 비율	24.6	28.9	33.2	28.9
양곡 및 식재료비	4.2	4.4	3.2	3.9
기타 지원예산	22.2	33.5	33.8	29.7
경로당활성화사업비	6.7	4.3	3.1	4.7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	4.4	3.1	2.3	3.3
(N)	(48)	(45)	(51)	(144)

2. 경로당 관련 사업 현황

노인복지법 상 경로당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노인 20명 이상(읍·면지역 10명)이 모여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인정해주는 형태이다. 조사결과 지역별 평균 등록 경로당 수는 응답 시·군·구 평균 240.5개소가 등록되어있으며, 100개 미만인 17.2%, 100~200개 미만인 30.3%, 200~300개 미만이 17.9%, 300~400개 미만이 22.1%로 나타났다. 400~500개 미만은 7.6%이며 500개 이상의 경로당이 등록된 시·군·구는 4.8%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등록경로당 대비 지원되는 평균 경로당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

답 시·군·구의 평균 비율이 100.5%로 나타난다. 즉,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며, 조사응답 144개 시·군·구 중 10.4%가 등록된 경로당에 비해 최소 1개에서 최대 33개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군·구에서의 경로당 등록 및 지원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7> 지역별 등록 경로당 수 및 지원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 개소)
				전체
등록 경로당 수				
100개 미만	26.5	15.6	9.8	17.2
100~200개 미만	51.0	11.1	27.5	30.3
200~300개 미만	18.4	13.3	21.6	17.9
300~400개 미만	4.1	28.9	33.3	22.1
400~500개 미만	-	17.8	5.9	7.6
500개 이상	-	13.3	2.0	4.8
평균 등록 경로당 수	145.1	332.4	251.2	240.5
평균 지원 경로당 비율	101.2	99.9	100.4	100.5
계	100.0	100.0	100.0	100.0
(N)	(48)	(45)	(51)	(144)

조사 응답 시·군·구의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및 식자재비, 경로당활성화사업비 등을 제외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우선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는 전체의 46.9%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할인이 31.5%,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13.3%, 전자제품 지원이 82.5%, 기타 물품지원 등의 지원이 43.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로당 관련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을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비율이 59.6%로 중소도시(46.7%), 군 지역(3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실시하는 시·군·구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모두 약 30%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실시하는 시·군·구 또한 대도시는 25.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지역이 도시가스 사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 외의 경로당에 대한 전자제품 지원의 비율은 군 지역이

88.2%로 대도시의 76.6%와 중소도시의 8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8> 경로당 관련 현물 및 기타 지원 현황(지원율)(복수응답)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	59.6	46.7	35.3	46.9
전기요금 할인	31.9	33.3	29.4	31.5
도시가스 요금 할인	25.5	11.1	3.9	13.3
경로당 전자제품 지원	76.6	82.2	88.2	82.5
기타	42.6	48.9	39.2	43.4
(N)	(47)	(45)	(51)	(143)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의 모임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여가 활동 공간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지역별로 실시되고 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조사응답 시·군·구의 93.8%가 실시하고 있으며, 타 사업 통합실시 중인 비율이 4.1%로 전체 응답 지역 중 97.9%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타 사업과 통합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9.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군 지역의 자원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모색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시·군·구별 평균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수는 평균 98개소이며, 대도시는 60개소, 중소도시 89개소, 군 지역은 146개소로 나타나며, 지역별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49.2%, 대도시 50.3%, 중소도시 37.1%, 군 지역 59.3%로 나타났다.

<표 3-9> 경로당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실시여부				
실시함	100.0	95.6	86.3	93.8
실시하지 않음	-	2.2	3.9	2.1
타 사업과 통합 실시중임	-	2.2	9.8	4.1
평균 경로당 활성화사업 대상 수	60	89	146	98
경로당수비율(전체 경로당 대비 비율)	50.3	37.1	59.3	49.2
계	100.0	100.0	100.0	100.0
(N)	(50)	(45)	(51)	(146)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위탁상태를 살펴보면, 응답 시·군·구의 54.1%가 대한노인회 지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이 34.2%, 사회복지관이 4.8%, 기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관이 3.4%, 시·군·구 자체 운영이 8.9%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은 72.0%가 노인복지관에 위탁하며, 22.0%가 대한노인회 지회에 위탁, 사회복지관에 위탁한 경우는 8.0%, 시군구 자체 운영이 6.0%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중소도시의 경우 대한노인회 지회가 75.6%이며, 노인복지관이 20.0%, 기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관이 8.9%, 사회복지관이 4.4%, 시군구 자체운영이 2.2%으로 대도시에 비해 복지기관에서의 운영비율이 낮아지고 대한노인회 지회에 활성화사업을 위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66.7%, 노인복지관이 9.8%, 시군구 자체 운영이 17.6%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노인복지관이나 복지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 군 지역일 수록 대한노인회 지회에 위탁운영되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복지기관의 부족, 그리고 지역적 특성 상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소속이라 받아들여 외부에서보다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표 3-10> 경로당 활성화사업 위탁상태(복수응답)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사회복지관	8.0	4.4	2.0	4.8
노인복지관	72.0	20.0	9.8	34.2
대한노인회 지회	22.0	75.6	66.7	54.1
기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관	-	8.9	2.0	3.4
시·군·구 자체 운영	6.0	2.2	17.6	8.9
(N)	(50)	(45)	(51)	(146)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현황을 살펴보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당 관리해야 할 평균 경로당 수는 응답 시·군·구 평균 200개소로 나타나며, 대도시 는 127개, 중소도시는 247개, 군 지역은 226개소로 나타난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인이 관리해야 할 경로당의 수는 대

도시의 2배가량의 수치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이 대도시
에 비해서 면적이 넓어 이동시간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경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적합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현황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수				
1명	83.3	64.4	86.0	78.3
2명	6.3	22.2	10.0	12.6
3명 이상	10.4	13.3	4.0	9.1
관리자 1인당 담당 경로당 수	126.9	246.5	225.7	200.1
계	100.0	100.0	100.0	100.0
(N)	(50)	(45)	(51)	(146)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근무처를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지회가 83.6%이며,
복지관이 13.7%, 시·군·구청이 4.8%, 기타 0.7%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사업주체가 대한노인회 지회, 복지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근무처는 대한노인회 지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군·구별로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이 유사함
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1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근무처(복수응답)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대한노인회 지회	78.0	91.1	82.4	83.6
복지관	20.0	6.7	13.7	13.7
시·군·구청	0.0	6.7	7.8	4.8
기타	2.0	0.0	0.0	0.7
(N)	(50)	(45)	(51)	(146)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기관 현황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노인여가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노인복지관 등의 복지기관을 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응답 시·군·구의 평균 노인복지관 설치율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8.8%, 1개소가 63.2%, 2개소가 16.2%이며, 3개소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비율은 대도시가 4.2%, 중소도시가 6.8%, 군 지역이 15.9%로 도시지역에 비해 군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규모(시·군·구의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총합)를 살펴보면, 200명 미만이 26.4%, 200~400명 미만이 21.6%, 400~600명 미만이 16.8%, 600~800명 미만이 11.2%, 1,000명 이상이 18.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000명 이상이 31.1%로 이용노인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중소도시의 소규모 시설인 200명 미만의 비율이 22.0%로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200명 미만이 평균 53.8%로 노인복지관의 이용노인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지역별 노인 인구수 대비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약 2.2%이며, 대도시는 2.8%, 중소도시는 2.3%, 군 지역은 0.9%로 나타났다.

<표 3-13> 지역별 노인복지관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노인복지관 수				
없음	4.2	6.8	15.9	8.8
1개소	50.0	65.9	75.0	63.2
2개소	29.2	11.4	6.8	16.2
3개소	8.3	6.8	2.3	5.9
4개소 이상	8.3	9.1	-	5.9
노인복지관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				
200명 미만	6.7	22.0	53.8	26.4
200~400명 미만	15.6	12.2	38.5	21.6
400~600명 미만	24.4	22.0	2.6	16.8
600~800명 미만	15.6	14.6	2.6	11.2
800~1000명 미만	6.7	7.3	2.6	5.6
1000명 이상	31.1	22.0	-	18.4
시·군·구 노인인구대비 평균 이용자비율 ¹⁾	2.8	2.3	0.9	2.2
계	100.0	100.0	100.0	100.0
(N)	(50)	(45)	(51)	(146)

주: 1) 통계청, 인구 총 조사(2010) 기준 시·군·구별 노인 인구수를 활용한.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된 노인교실에 대한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 시·군·구의 7.9%는 노인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1~3개소가 44.3%, 4~6개소가 18.6%로 나타나며, 7~9개소는 10.7%, 10개소 이상이 18.6%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10개소 이상인 지역의 비율이 26.5%와 22.7%로 군 지역의 6.4%에 비해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3-14> 지역별 노인교실 수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없음	2.0	11.4	10.6	7.9
1~3개소	32.7	40.9	59.6	44.3
4~6개소	28.6	13.6	12.8	18.6
7~9개소	10.2	11.4	10.6	10.7
10개소 이상	26.5	22.7	6.4	18.6
계	100.0	100.0	100.0	100.0
(N)	(50)	(45)	(51)	(146)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는 상태이며,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별로 노인교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지원 및 강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31.5%, 운영비지원 90.8%, 교육장소 등 물리적 지원이 20.0%, 교육기구 지원 18.5%,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10.8%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 운영비지원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인력지원 및 강사지원, 교육기구 지원, 장소 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지역별 노인교실 지원내용(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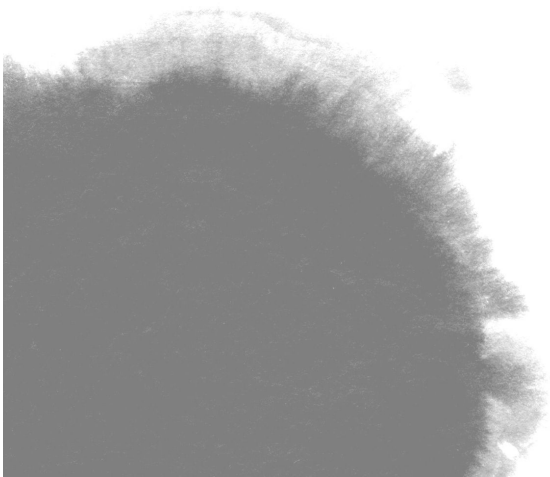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인력지원 및 강사지원	20.8	43.6	32.6	31.5
운영비지원(노인 교육비 지원)	93.8	84.6	93.0	90.8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12.5	15.4	4.7	10.8
교육기구 지원	12.5	33.3	11.6	18.5
교육장소 등 물리적 지원	12.5	25.6	23.3	20.0
기타	2.1	5.1	4.7	3.8
(N)	(48)	(39)	(43)	(130)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통한 노인 여가복지사업 이외의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노인여가복지사업을 살펴보면, 행사사업이 90.8%로 가장 높으며, 노인운동시설 지원이 58.8%,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51.9%, 노인동아리 지원 사업 2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다양한 노인여가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소도시 지역 중 동아리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비율이 높으며 군 지역에서는 노인운동시설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지역별 여가문화활성화 사업(복수응답)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46.2	62.8	46.9	51.9
노인여가문화 관련 행사사업	92.3	90.7	89.8	90.8
노인동아리지원사업	15.4	30.2	18.4	21.4
노인영화관등 문화활동 지원사업	12.8	9.3	12.2	11.5
노인운동시설 지원	33.3	65.1	73.5	58.8
기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	41.0	25.6	51.0	39.7
(N)	(39)	(43)	(49)	(131)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현황



제4장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현황²⁾

본 장에서는 전국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조사에서는 시설 일반사항, 재정 및 시설운영 현황,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뚜렷하므로 지역을 크게 대도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1절 경로당 운영 현황

1. 일반사항

경로당의 운영시작 시기는 2000년 이후라는 응답이 45.1%로 거의 절반 정도이고, 1990년대 37.1%, 1980년대 15.0%, 1980대 이전 2.8% 등이다. 지역별로 2000년대 이후 운영을 시작한 경로당의 비율을 비교하면 군 지역은 48.9%로 대도시(39.9%)와 중소도시(43.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표 4-1 참조).

경로당의 지역특성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지역 18.6%, 주택밀집지역 16.1%,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2.1%, 주택·상가 혼합지역 2.0%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지역

2) 본 장은 경로당 및 노인교실 현황조사의 분석결과임. 조사대상 및 방법은 제1장 연구방법을 참고하고, 조사내용은 부록1. 조사표 참고.

이 53.2%로 절반 이상인데 반하여,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아파트지역이 각각 22.4%,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농어촌지역(54.4%, 84.0%)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 경로당의 일반특성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운영시작				
1980년대 이전	3.4	3.0	2.5	2.8
1980년대	17.9	13.9	15.0	15.0
1990년대	38.8	40.1	33.7	37.1
2000년 이후	39.9	43.0	48.9	45.1
지역특성				
주택밀집지역	28.2	17.7	10.4	16.1
아파트지역	53.2	22.4	2.9	18.6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4.9	2.2	0.9	2.1
상가/사무실 지역	0.9	0.7	0.4	0.6
주택·상가(공장) 혼합지역	3.6	2.2	1.2	2.0
농어촌지역	7.9	54.4	84.0	60.2
기타	1.3	0.4	0.2	0.4
건축물 용도				
단독 주택(노인교실 독립시설)	40.1	67.6	80.0	68.8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45.1	20.7	2.6	16.6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	3.3	2.7	3.0	2.9
사회복지시설	6.4	3.5	6.4	5.2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0.5	0.2	0.1	0.2
문화시설	0.2	0.5	0.7	0.5
종교시설	0.1	0.0	0.0	0.1
가건물(컨테이너박스)	0.6	0.3	0.2	0.3
기타	3.6	4.4	6.9	5.4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형이 68.8%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형 16.6%, 사회복지시설 내 5.2%, 근린생활시설 2.9% 등이다. 대도시의 경우 공동주택형(45.1%)이 단독주택형(40.1%) 보다 더 많고,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단독주택형 비율이 각각 67.6%와 80.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4-2>에서 경로당 대표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남자가 84.4%로 매우 높고 여자는 15.6%로 낮은 수준이다. 대도시의 경우 여자 대표자가 33.9%인데 반하여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각각 15.1%와 9.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은 70~79세가 74.3%로 전체의 3/4 정도이고, 80세 이상이 18.2%이다. 군 지역의 경우 70~79세가 76.3%로 대도시(67.9%)와 중소도시(74.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고 대도시의 경우 80세 이상이 26.2%로 중소도시(17.5%)와 군 지역(16.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경로당 대표자의 재임기간은 4년 이상이 25.0%로 전체의 1/4정도를 차지하고, 2년~3년 미만 21.0%, 1년~2년 미만 19.9%, 3년~4년 미만 16.5% 등이다.

<표 4-2> 경로당 대표자 일반사항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성				
남자	66.1	84.9	90.5	84.4
여자	33.9	15.1	9.5	15.6
연령				
60세 미만	0.1	0.1	0.2	0.1
60~69세	5.9	7.7	7.5	7.3
70~79세	67.9	74.7	76.3	74.3
80세 이상	26.2	17.5	16.0	18.2
재임기간				
1년 미만	16.0	16.8	14.2	15.5
1년~2년 미만	18.4	18.5	21.7	19.9
2년~3년 미만	17.7	20.4	22.7	21.0
3년~4년 미만	15.3	16.5	16.9	16.5
4년 이상	29.4	25.7	22.8	25.0
기타	3.2	2.1	1.7	2.1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3>에 경로당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20평~30평 미만이 45.0%로 가장 많으며, 10평~20평 미만이 20.2%, 30평~40평 미만이 18.8%, 40평 이상이 12.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40평 이상의 비율이 21.6%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2.3%)와 군 지역(8.8%)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20평~30평 미만의 비율은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경우 각각 44.2%와 52.5%로 대도시(26.4%)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경로당의 사용 방의 수는 2개가 67.8%로 전체의 약 2/3정도이고, 1개 이하 17.2%, 3개 이상 15.1%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개 이하(23.1%)의 비율이 중소도시(16.0%)와 군 지역(16.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경로당에 방 이외의 별도의 거실이 있는 비율이 72.8%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52.1%, 중소도시 69.4%, 군 지역 83.2% 등으로 군 지역이 가장 높았다.

경로당 전용화장실이 있는 비율이 94.4%이고,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96.3%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93.6%, 대도시 91.0% 등이다.

<표 4-3> 경로당 시설규모 및 설비 용품 보유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 개소)
				전체
건물면적				
10평 미만	6.8	3.6	2.7	3.7
10~20평 미만	26.2	19.4	18.8	20.2
20~30평 미만	26.4	44.2	52.5	45.0
30~40평 미만	19.0	20.4	17.2	18.8
40평 이상	21.6	12.3	8.8	12.2
사용 방 수				
1개 이하	23.1	16.0	16.1	17.2
2개	62.1	68.9	68.7	67.8
3개 이상	14.8	15.0	15.2	15.1
거실 여부				
있음	52.1	69.4	83.2	72.8
없음	47.9	30.6	16.8	27.2
전용화장실				
있음	91.0	93.6	96.3	94.4
없음	9.0	6.4	3.7	5.6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4>에서 경로당 설비용품 중 냉방시설의 설치율을 보면, 에어컨은 72.5%, 선풍기는 91.9%, 기타 2.9%로 나타나며, 지역별 에어컨 보유율은 대도시가 86.2%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4.4%, 군 지역 66.0%로 나타났다.

취사시설 설치율을 보면, 가스레인지 95.6%, 1화용 가스레인지 27.1%, 전기스토브 6.7%, 전기밥솥 90.3%, 기타 7.5% 등으로 취사를 위하여 가스레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전기밥솥 순이다. 지역별 취사도구 소유율은 군 지역의 경우 가스레인지(97.5%), 전기밥솥(91.4%), 1화용 가스레인지(33.5%)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대도시의 경우 전기스토브(10.4%)와 기타 취사도구(9.5%)가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냉장고 보유율은 96.3%로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군 지역이 97.9%로 가장 높고, 대도시 97.1%, 중소도시 94.2% 등이다.

소화기 또는 비상벨의 설치율은 70.9%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6.4%)가 중소도시(70.8%)와 군 지역(65.5%)에 비하여 더 높다. 경로당에서는 취사, 난방을 위한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경로당 설비 용품 설치율 및 보유 개수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냉방시설 및 기구				
에어컨 보유율	86.2	74.4	66.0	72.5
1개	71.6	82.9	89.8	83.6
2개 이상	28.4	17.1	10.2	16.4
선풍기 보유율	95.0	90.2	92.3	91.9
1개	22.0	30.5	37.8	32.4
2개	43.5	48.3	44.4	45.8
3개 이상	34.5	21.2	17.7	21.8
기타 냉방 기구 보유율	3.3	2.8	2.7	2.9
1개	78.3	74.7	79.3	77.3
2개 이상	21.7	25.3	20.7	22.7
취사시설 및 기구				
가스레인지 보유율	95.4	93.6	97.5	95.6
1개	90.6	94.8	96.7	95.0
2개 이상	9.4	5.2	3.3	5.0
1회용 가스레인지 보유율	18.2	23.7	33.5	27.1
1개	79.7	69.2	68.4	69.8
2개	14.6	19.2	18.0	18.1
3개 이상	5.8	11.6	13.6	12.1
전기스토브 보유율	10.4	7.1	5.0	6.7
1개	77.7	92.1	94.0	89.2
2개 이상	22.3	7.9	6.0	10.8
전기밥솥 보유율	90.4	88.9	91.4	90.3
1개	83.2	86.3	85.7	85.5
2개 이상	16.8	13.7	14.3	14.5
기타 취사 도구 보유율	9.5	6.7	7.4	7.5
1개	88.7	90.7	91.9	90.8
2개 이상	11.3	9.3	8.1	9.2
냉장고(또는 김치냉장고) 보유율				
1개	97.1	94.2	97.9	96.3
2개 이상	63.2	73.1	75.8	72.8
3개 이상	36.8	26.9	24.2	27.2
소화기(또는 비상벨) 보유율				
1개	86.4	70.8	65.5	70.9
2개	58.0	76.1	81.7	75.0
3개 이상	25.9	15.6	10.8	15.6
4개 이상	16.1	8.3	7.6	9.5
(대상시설 수)	(8,357)	(21,913)	(23,737)	(54,007)

주: 1)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개별 기구의 보유 개수는 해당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4-5>에서 경로당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형을 살펴보면, 개별난방이 93.5%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앙난방식 3.1%, 지역난방 3.4%이다. 군 지역은 98.0%가 개별난방이고, 중소도시 92.2%, 대도시 84.1%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인 경로당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난방유형은 기름(경유 등)난방(55.7%)이고, 그 다음은 심야보일러(23.5%), 가스난방(18.1%)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가스난방(63.0%)의 비율이 가장 많고, 중소도시(52.1%)와 군 지역(66.6%)은 기름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2011년 동안 난방을 사용한 개월 수를 보면, 6개월~9개월 미만이 60.5%로 가장 많고, 3개월~6개월 미만 33.2%, 9개월 이상 5.9%, 3개월 미만 0.4% 등으로 전체의 약 2/3정도는 6개월 이상 난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이다.

2011년 동안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5%,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9.9%, 250만원 이상 16.9%, 100만원 미만 15.6% 등의 순이다. 지역별 난방비 지출금액을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지출의 비율이 대도시 28.1%, 군 지역 14.0%, 중소도시 13.1% 순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200만원 이상 지출의 비율은 중소도시 41.7%, 군 지역 36.3%, 대도시 24.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 지출방식으로는 93.7%가 시·군·구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5%는 아파트 등의 공동관리비에서 지출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대부분 시·군·구 지원(99.2%)으로 대도시(81.4%)와 중소도시(92.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고, 대도시는 공동관리비(17.5%)의 비율이 중소도시(6.6%)와 군 지역(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경로당 난방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난방유형				
중앙난방식	7.8	3.4	1.3	3.1
지역난방	8.2	4.4	0.7	3.4
개별난방	84.1	92.2	98.0	93.5
계	100.0	100.0	100.0	100.0
(N) ¹⁾	(8,357)	(21,913)	(23,737)	(54,007)
개별난방 유형(복수응답)				
가스난방	63.0	20.3	2.8	18.1
기름(경유 등)	29.5	52.1	66.6	55.7
심야보일러	4.3	23.8	29.0	23.5
태양열	0.1	0.3	0.3	0.3
연탄	0.2	0.1	0.0	0.1
기타	2.8	2.8	1.4	2.1
(대상시설 수) ²⁾	(6,930)	(19,874)	(23,160)	(49,964)
난방 사용 개월 수				
3개월 미만	0.7	0.5	0.3	0.4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4.3	32.9	33.0	33.2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58.1	60.1	61.7	60.5
9개월 이상	6.9	6.5	4.9	5.9
난방비 지출 비용				
100만원 미만	28.1	13.1	14.0	15.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5.8	18.8	20.3	20.5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1.4	26.4	29.4	27.1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15.3	24.6	17.2	19.9
250만원 이상	9.4	17.1	19.1	16.9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난방비 지출 방식(복수응답)				
공동관리비(아파트, 공동주택)	17.5	6.6	0.3	5.5
시·군·구 지원	81.4	92.3	99.2	93.7
자체수입	1.4	1.0	0.4	0.8
기타	0.9	0.9	0.2	0.6
(대상시설 수)	(8,357)	(21,913)	(23,737)	(54,007)

주: 1)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난방유형이 개별난방인 경로당 49,96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경로당 등록 회원 수는 19명 이하가 10.8%, 20~39명이 52.9%로 가장 많고, 40~59명이 24.5%, 60명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20~39명 시설(61.4%), 중소도시는 40~59명 시설(26.6%), 군 지역은 19명 이하

(16.2%)와 60명 이상(12.0%) 시설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표 4-6 참조).

한편 연평균 1일 이용 노인 수를 보면, 10~19명이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29명 27.2%, 30~39명 12.3%, 9명 이하와 40명 이상은 각각 8.9% 이다. 지역 별 1일 이용 노인 수는 군 지역은 9명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대 도시는 40명 이상의 시설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표 4-6> 경로당의 등록·이용 회원 수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등록 회원 수(2012.6월 현재)				
19명 이하	4.1	7.5	16.2	10.8
20~39명	61.4	53.6	49.3	52.9
40~59명	24.5	26.6	22.5	24.5
60명 이상	10.0	12.3	12.0	11.8
연평균 1일 이용 노인 수				
9명 이하	7.3	7.5	10.7	8.9
10~19명	42.1	43.0	42.7	42.7
20~29명	28.2	28.1	26.0	27.2
30~39명	11.8	12.3	12.4	12.3
40명 이상	10.6	9.1	8.2	8.9
1일 이용 남자 노인 수				
없음	19.7	9.2	8.1	10.3
1~9명	51.8	56.5	54.3	54.8
10~19명	22.0	27.2	29.3	27.3
20~29명	4.9	5.2	6.0	5.5
30~39명	1.2	1.2	1.6	1.4
40명 이상	0.5	0.6	0.7	0.7
1일 이용 여자 노인 수				
없음	5.3	4.5	9.7	6.9
1~9명	17.9	24.0	26.5	24.2
10~19명	47.6	48.6	43.9	46.4
20~29명	20.0	16.5	14.6	16.2
30~39명	6.2	4.5	3.8	4.4
40명 이상	3.0	1.9	1.5	1.9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노인 1인당 경로당 월 회비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2%이고, 월 회비가 있는 경우 1000원~3000원 미만 25.0%로 가장 많고, 3000원~5000원 미만 18.4%, 5000원 이상 17.0%, 1000원 미만이 2.4%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000원~3000원 미만이 35.6%로 가장 많은데 비하여, 중소도시(37.0%)와 군 지역(51.9%)은 월 회비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표 4-7 참조).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 등에서의 식사준비, 청소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 받는 비율을 보면 전체의 15.0%는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1.8%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2.8%)와 군 지역(7.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경로당 운영 개월 수를 보면, 90.9%는 9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6개월~8개월이 7.1%였다. 지역별로 9개월 이상 운영기관의 비율을 비교하면 대都市는 98.1%인데 비하여 중소도시(92.0%)와 군 지역(87.5%)은 약간 낮은 수준이다.

경로당에서 평소 식사를 제공하는 비율은 80.4%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2.5%)와 중소도시(82.3%)가 비슷한 수준이고, 군 지역은 77.8%로 약간 낮았다.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경우, 식사 제공 인원은 10~14명이 31.9%로 가장 많고, 10명 미만 24.0%, 15~19명 20.9%, 20~24명 12.7%, 25명 이상 10.6% 등이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군·구에서 지원되는 양곡의 양은 60kg 이상~80kg 미만이 5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80kg 이상이 19.9%, 40kg 이상~60kg 미만 14.5%, 20kg 이상~40kg 미만 5.8%, 20kg 미만 1.0% 등이며, 3.2%는 지원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시·군·구 양곡 지원 양을 보면,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60kg 이상~80kg 미만이 각각 51.0%와 70.8%로 대도시의 16.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시·군·구 지원과 기타 단체에서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양곡 지원량은 60kg 이상~80kg 미만이 49.0%로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은 80kg 이상이 30.3%, 40kg 이상~60kg 미만 13.1%, 20kg 이상~40kg 미만 5.3%, 20kg 미만이 2.3% 등으로 나타났다.

<표 4-7> 경로당 운영 및 식사지원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1인 경로당 월 회비				
없음	16.2	37.0	51.9	37.2
1000원 미만	0.7	3.2	2.5	2.4
1000원~3000원 미만	35.6	25.4	17.2	25.0
3000원~5000원 미만	35.5	19.3	5.7	18.4
5000원 이상	11.9	15.1	22.7	17.0
경로당 운영 개월 수				
3개월 미만	0.6	0.4	0.1	0.3
3개월~5개월	0.5	1.2	2.4	1.7
6개월~8개월	0.8	6.3	10.0	7.1
9개월 이상	98.1	92.0	87.5	90.9
인력지원 여부				
있음	41.8	12.8	7.0	15.0
없음	58.2	87.2	93.0	85.0
식사제공 여부				
있음	82.5	82.3	77.8	80.4
없음	17.5	17.7	22.2	19.6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식사제공 인원				
10명 미만	16.4	25.6	25.4	24.0
10명~14명	31.8	32.3	31.5	31.9
15명~19명	25.6	20.7	19.1	20.9
20명~24명	13.9	12.3	12.6	12.7
25명 이상	12.3	9.1	11.3	10.6
계	100.0	100.0	100.0	100.0
(N)	(6,705)	(17,105)	(17,661)	(41,471)
지원양곡의 양				
시·군·구 지원				
없음	14.0	2.3	1.0	3.2
1kg 이상~20kg 미만	1.1	0.3	1.6	1.0
20kg 이상~40kg 미만	12.1	6.7	3.2	5.8
40kg 이상~60kg 미만	18.3	18.6	9.8	14.5
60kg 이상~80kg 미만	16.2	51.0	70.8	55.5
80kg 이상	38.3	21.1	13.6	19.9
전체 지원 양곡(시·군·구+기타 단체)				
없음	4.5	1.2	0.7	1.4
1kg 이상~20kg 미만	1.3	0.1	1.6	0.9
20kg 이상~40kg 미만	11.7	5.9	3.0	5.3
40kg 이상~60kg 미만	18.1	16.2	8.9	13.1
60kg 이상~80kg 미만	14.9	46.0	61.5	49.0
80kg 이상	49.6	30.7	24.3	30.3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재정 및 시설운영 현황

<표 4-8>에서 경로당의 2011년도 수입금 총액을 살펴보면, 300~500만원 미만인 52.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300만원 미만인 27.0%, 500~700만원 미만 13.1%, 700만원 이상 5.6%, 100만원 미만 2.2%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500만원 이상(47.3%)의 비율이 중소도시(17.7%)와 군 지역(9.9%)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수입금 총액대비 수입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중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평균 9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전체 수입금 중 정부보조금이 86.9%이며, 회원회비가 10.3%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정부보조금이 90.1%, 회원회비가 5.0%이며, 군 지역은 정부보조금의 평균비율이 93.9%이며, 회원회비가 2.5%로 나타났다.

<표 4-8> 경로당의 수입금 총액 및 구성(2011년)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수입금 총액				
100만원 미만	1.6	2.3	2.3	2.2
100만원~300만원 미만	6.7	24.9	36.0	27.0
300만원~500만원 미만	44.4	55.1	51.8	52.0
500만원~700만원 미만	34.2	12.8	6.2	13.1
700만원 이상	13.1	4.9	3.7	5.6
수입금 총액대비 비율의 평균				
정부 보조금	86.9	90.1	93.9	91.3
회원회비	10.3	5.0	2.5	4.7
자체사업 수입금	0.2	0.6	0.5	0.5
부녀회로부터의 보조	1.4	1.9	1.3	1.6
기타 수입금	1.2	2.5	1.8	2.0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의 난방비 보조금은 200~250만원 미만 26.5%, 150~200만원 미만 25.8%, 250만원 이상 20.1%, 100~150만원 미만 15.4%, 100만원 미만 12.1% 등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난방비 보조금이 250만원 이상이 23.5%로 대도시(16.7%)와 중소도시(17.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양곡비(현금인 경우만) 지원의 경우는 10만원이 90.7%이고, 20~30만원 미만이 5.4%이다. 이는 양곡은 주로 현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타 운영비 지원액은 50~100만원 미만 36.5%, 200만원 이상 21.0%, 100~150만원 미만 20.8%, 150~200만원 미만 14.2%, 50만원 미만 7.5% 등이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는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57.6%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7.5%)와 군 지역(11.5%)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회원 회비 수입금은 20만원 미만이 78.1%이고, 80만원 이상 11.7%, 40~60만원 미만 3.7%, 60~80만원 미만 3.5%, 20~40만원 미만 2.9%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80만원 이상 비율이 28.4%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1.9%)와 군 지역(5.8%)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체사업 수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97.2%)이고, 부녀회로부터의 보조(지역 찬조금)도 10만원 미만이 89.7%이고, 기타 수입금도 10만원 미만이 86.6% 등으로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4-9> 경로당의 수입금 내역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보조금(시·도 및 시·군·구)				
난방비				
100만원 미만	25.3	11.7	8.0	12.1
100만원~150만원 미만	15.8	14.1	16.5	15.4
150만원~200만원 미만	17.4	23.1	31.1	25.8
200만원~250만원 미만	24.8	33.5	20.9	26.5
250만원 이상	16.7	17.6	23.5	20.1
양곡비(현금인 경우만)				
10만원 미만	86.0	88.5	94.2	90.7
10만원~20만원 미만	0.6	0.7	0.5	0.6
20만원~30만원 미만	0.3	8.9	3.9	5.4
30만원~40만원 미만	0.3	0.4	0.2	0.3
40만원 이상	12.9	1.5	1.2	3.1
기타 운영비				
50만원 미만	5.5	8.2	7.6	7.5
50만원~100만원 미만	0.7	37.9	47.6	36.5
100만원~150만원 미만	7.5	24.8	21.7	20.8
150만원~200만원 미만	28.8	11.6	11.6	14.2
200만원 이상	57.6	17.5	11.5	21.0
회원 회비				
20만원 미만	48.7	77.1	89.2	78.1
20만원~40만원 미만	4.5	3.3	1.9	2.9
40만원~60만원 미만	9.2	3.8	1.8	3.7
60만원~80만원 미만	9.2	3.8	1.3	3.5
80만원 이상	28.4	11.9	5.8	11.7
자체사업 수입금				
10만원 미만	98.4	96.6	97.2	97.2
10만원~20만원 미만	0.3	0.4	0.3	0.3
20만원~30만원 미만	0.2	0.3	0.2	0.2
30만원~40만원 미만	0.1	0.2	0.2	0.2
40만원 이상	1.1	2.5	2.1	2.1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부녀회로부터의 보조(지역 찬조금)				
10만원 미만	89.8	89.3	90.1	89.7
10만원~20만원 미만	1.6	1.3	1.1	1.3
20만원~30만원 미만	1.5	1.2	1.6	1.4
30만원~40만원 미만	0.9	1.5	1.7	1.5
40만원 이상	6.3	6.7	5.5	6.1
기타 수입금				
10만원 미만	89.9	83.0	88.8	86.6
10만원~20만원 미만	2.7	1.5	1.1	1.5
20만원~30만원 미만	1.5	4.1	1.7	2.6
30만원~40만원 미만	1.5	2.2	1.7	1.8
40만원 이상	4.4	9.3	6.8	7.4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 중 수입금 항목에 응답한 52,411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4-10>은 경로당의 타 기관과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 현황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율이 24.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관할 지자체와의 연계(23.5%)이고,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15.9%), 자원봉사센터(6.7%), 종교단체·민간기업(4.0%), 초·중·고·대학교(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36.6%)가 중소도시(11.7%)나 군 지역(12.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관할지자체 또는 의료기관 및 보건 기관과의 연계 수준도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 비하여 약 10% 더 높은 수준이다.

<표 4-10> 경로당의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율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관할 지자체	31.7	20.8	23.0	23.5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36.6	11.7	12.3	15.9
자원봉사센터	10.6	5.7	6.1	6.7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31.3	20.7	25.4	24.4
초·중·고·대학교	3.3	1.4	1.2	1.6
종교단체·민간기업	8.2	4.4	2.3	4.0
(대상시설 수)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3. 프로그램 현황

경로당의 개별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취미·오락프로그램 실시율이 3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관련프로그램 29.7%, 운동프로그램 19.2%, 자원봉사활동 12.6%, 교양프로그램 7.8%, 소득연계사업 2.7%, 정보화프로그램 2.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건강관련프로그램(44.1%), 취미·오락프로그램(44.5%), 운동프로그램(33.9%)의 실시율이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 비하여 약 10%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로당의 42.8%는 어떤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군 지역의 농어촌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의 25.1%만이 프로그램 미실시 경로당으로 나타나며, 중소도시는 40.7%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며,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 지역 노인의 여가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로당의 경우 운동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시설이 84.5%이고, 대도시의 경우 88.1%로 조금 더 높다.

운동프로그램 1회 참여 인원은 20명 이상이 34.3%로 가장 많고, 15~19명 28.3%, 10~14명 27.0%, 9명 이하 10.4% 등이다. 지역별로는 20명 이상 참여 한다는 비율의 경우 군 지역(38.1%)이 대도시(32.8%)와 중소도시(31.8%)에 비하여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1개월에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횟수는 4~6회가 42.3%, 3회 이하 24.2%, 7~9회 19.0%, 10회 이상 14.4%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10회 이상 실시한다는 응답이 18.9%로 중소도시(14.7%)나 군 지역(10.5%)에 비하여 약간 더 높다.

경로당에 실내 운동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비율은 40.5%이고, 중소도시가 42.2%로 대도시(38.0%)와 군 지역(39.9%)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표 4-11> 경로당의 프로그램별 실시율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프로그램 미실시 비율	25.1	40.7	50.8	42.8
건강관련프로그램	44.1	29.0	25.3	29.7
교양프로그램	11.2	9.1	5.5	7.8
정보화프로그램	4.6	2.4	1.3	2.3
취미·오락프로그램	44.5	34.1	25.2	31.8
자원봉사활동	13.5	19.5	5.8	12.6
소득연계사업	3.0	3.0	2.4	2.7
운동프로그램	33.9	17.6	15.6	19.2
(대상시설 수) ¹⁾	(8,357)	(21,913)	(23,737)	(54,007)
운동 강사 방문교육 여부				
예	88.1	82.7	83.7	84.5
아니오	11.9	17.3	16.3	15.5
운동프로그램 1회 참여인원				
10명 미만	9.6	10.1	11.4	10.4
10명 이상~15명 미만	30.1	28.0	23.5	27.0
15명 이상~20명 미만	27.5	30.0	27.1	28.3
20명 이상	32.8	31.8	38.1	34.3
운동프로그램 실시횟수				
3회 이하	18.7	21.9	31.1	24.2
4회~6회	39.6	45.5	41.2	42.3
7회~9회	22.8	17.9	17.2	19.0
10회 이상	18.9	14.7	10.5	14.4
계	100.0	100.0	100.0	100.0
(N) ²⁾	(2,707)	(3,693)	(3,600)	(10,000)
실내 운동기기 여부				
있음	38.0	42.2	39.9	40.5
없음	62.0	57.8	60.1	59.5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1)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경로당 10,00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제2절 노인교실

1. 일반사항

현재 노인교실의 운영시작 시기는 2000년 이후가 68.0%, 1990년대가 21.7%, 1990년대 이전이 10.3% 등이다. 지역별로 2000년대 이후 운영을 시작한 노인교실의 비율을 비교하면 군 지역은 77.7%로 대도시 63.3%와 중소도시 67.7%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고).

노인교실의 운영주체는 종교단체가 54.9%, 대한노인회가 20.5%, 각종 복지관이 8.4%, 개인이 6.9% 등이다. 지역별로 종교단체가 운영주체인 노인교실의 비율을 비교하면 대도시가 64.1%로 중소도시 48.7%와 군 지역 44.6%에 비하여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복지기관의 비율이 군 지역에 비해 높으며, 군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교실의 지역특성을 보면, 주택·아파트 혼합지역이 23.7%로 가장 많고 주택 밀집지역이 22.0%, 농어촌지역이 20.3%, 주택·상가 혼합지역이 18.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주택·아파트 혼합지역(33.5%)이, 중소도시에서는 주택밀집지역(28.3%)이, 군 지역에서는 농어촌지역(60.1%)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용도는 종교시설이 53.6%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이 22.8%, 기타가 7.3%, 근린생활시설이 6.4% 등이다. 이는 노인교실의 운영주체와 관련된 문항으로 종교단체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표 4-12> 노인교실의 일반특성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운영시작				
1990년 이전	9.3	12.3	9.5	10.3
1990~1999년	27.4	20.0	12.7	21.7
2000년 이후	63.3	67.7	77.7	68.0
운영 주체				
개인	6.6	5.6	9.4	6.9
대한노인회	9.4	28.0	33.0	20.5
지역주민 공동소유	0.9	1.6	5.4	2.1
종교단체	64.1	48.7	44.6	54.9
각종 복지기관	12.0	7.2	2.7	8.4
사회단체	2.6	3.0	1.3	2.4
초·중·고교	0.0	1.0	0.4	0.4
기타	4.4	4.9	3.1	4.3
지역특성				
주택밀집지역	22.3	28.3	12.0	22.0
아파트지역	9.0	5.9	1.0	6.3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33.5	19.7	8.2	23.7
상가/사무실 지역	3.5	6.6	2.9	4.3
주택·상가(공장) 혼합지역	23.6	14.5	11.1	18.1
농어촌지역	2.2	20.4	60.1	20.3
기타	5.9	4.6	4.8	5.3
건축물 용도				
단독 주택(노인교실 독립시설)	2.2	5.0	4.9	3.7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0.7	0.3	0.0	0.4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	7.2	7.6	3.1	6.4
사회복지시설	22.1	21.8	25.4	22.8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2.0	3.6	9.8	4.3
문화시설	0.7	1.7	2.7	1.4
종교시설	61.6	48.8	43.8	53.6
가건물(컨테이너박스)	0.0	0.0	0.4	0.1
기타	3.5	11.2	9.8	7.3
계	100.0	100.0	100.0	100.0
(N)	(458)	(305)	(229)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노인교실 운영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운영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82.3%로 매우 높고 여자는 17.7%이다. 대도시의 경우 여자 운영자가 24.8%인데 비하여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각각 12.9%, 9.4%로 낮게 나타났다.

운영자의 연령은 50~59세가 30.4%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60~69세가 23.3%, 70~79세가 21.2%, 50세 미만인 18.5%, 80세 이상이 6.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운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0~59세에 대도시(34.8%)와 중소도시(26.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군 지역은 70~79세에 28.9%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 지역 노인교실의 경우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운영자의 재임기간은 4년 이상이 43.3%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2~3년 미만이 12.9%, 3~4년 미만이 11.9%, 1년 미만이 11.7% 등이다. 지역별로 재임기간 4년 이상의 비율을 비교하면 대도시가 47.1%로 중소도시 45.5%, 군 지역 32.6%이다.

<표 4-13> 노인교실 운영자 일반사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 개소)
				전체
성별				
남자	75.2	87.1	90.6	82.3
여자	24.8	12.9	9.4	17.7
연령				
50세 미만	18.5	19.0	17.9	18.5
50~59세	34.8	26.3	27.1	30.4
60~69세	26.8	23.3	16.1	23.3
70~79세	15.4	24.3	28.9	21.2
80세 이상	4.5	7.0	10.1	6.5
재임기간				
1년 미만	10.6	13.5	11.6	11.7
1년~2년 미만	9.7	11.9	10.7	10.6
2년~3년 미만	10.8	12.2	18.3	12.9
3년~4년 미만	11.9	9.2	15.6	11.9
4년 이상	47.1	45.5	32.6	43.3
기타	9.9	7.6	11.2	9.5
계	100.0	100.0	100.0	100.0
(N)	(458)	(305)	(229)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14>에서 노인교실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40평 이상이 7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30~40평 미만이 11.1%, 20~30평 미만이 6.8%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40평 이상의 비율이 80.8%인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79.6%, 군 지역은 64.9%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실의 사용 교실 수는 1개 이하가 47.8%, 3개 이상이 38.7%, 2개가 13.5%이다. 지역별로 사용 교실 수를 비교해보면, 1개 이하인 경우 군 지역이 65.6%로 대도시 40.5%와 중소도시 45.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노인교실에 교실 수 외에 강당이 있는 비율이 77.4%로, 지역별로는 대도시 82.1%, 군 지역 73.7%, 중소도시 7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비·용품 보유율을 살펴보면, 냉방시설(에어컨)의 보유율은 97.6%로 지역별로는 중소도시(98.7%)에서의 냉방시설(에어컨)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난방시설은 97.9%로 지역별로는 냉방시설(에어컨)의 보유율과 마찬가지로 중소도시(99.3%)에서의 난방시설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또는 비상벨)의 보유율은 98.6%로 지역별로는 대도시(99.3%)에서의 소화기(또는 비상벨)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화장실이 있는 비율은 91.7%로 지역별로는 중소도시(93.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노인교실 시설규모 및 설비 용품 보유율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건물면적				
10평 미만	1.3	1.0	3.2	1.6
10~20평 미만	3.1	3.6	4.5	3.6
20~30평 미만	5.1	6.6	10.8	6.8
30~40평 미만	9.7	9.2	16.7	11.1
40평 이상	80.8	79.6	64.9	76.8
사용 교실 수				
1개 이하	40.5	45.5	65.6	47.8
2개	11.4	20.8	8.0	13.5
3개 이상	48.1	33.7	26.3	38.7
강당 여부				
있음	82.1	73.3	73.7	77.4
없음	17.9	26.7	26.3	22.6
계	100.0	100.0	100.0	100.0
(N)	(458)	(305)	(229)	(992)
설비·용품 보유율				
냉방시설(에어컨)	98.2	98.7	94.7	97.6
난방시설	97.6	99.3	96.6	97.9
소화기(또는 비상벨)	99.3	99.0	96.2	98.6
전용화장실	92.1	93.1	88.9	91.7
(대상기관 수)	(458)	(305)	(229)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노인교실 등록 회원 수는 50~99명이 3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00~149명이 25.2%, 200명 이상이 19.1%, 150~199명이 11.8%, 50명 미만이 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등록 회원 수가 50~99명인 노인교실이 대도시(42.2%)와 군 지역(4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28.9%)에서는 100~149명인 노인교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15 참고).

연평균 1일 이용노인수를 살펴보면, 40명 이상이 88.6%, 30~39명이 5.4%, 20~29명이 3.4%로 나타났다. 노인교실의 1일 이용노인규모는 40명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40명 이상이 92.2%로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 비해 1일 이용 노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평균 1일 이용 남자 노인 수를 살펴보면, 10~19명이 2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9명 이하 24.9%, 40명 이상 20.1%, 20~29명 16.5%, 30~39명 11.0%이다. 연평균 1일 이용 여자

노인 수는 40명 이상이 73.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39명 12.5%, 20~29명 8.9%, 10~19명 3.7%, 9명 이하 1.9% 등으로 노인교실의 이용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15> 노인교실의 등록·이용 회원 수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등록 회원 수(2012.6월 현재)				
50명 미만	3.1	6.3	6.3	4.8
50~99명	42.2	28.6	47.3	39.2
100~149명	24.7	28.9	21.0	25.2
150~199명	11.2	13.5	10.7	11.8
200명 이상	18.8	22.7	14.7	19.1
연평균 1일 이용 노인 수				
9명 이하	0.7	0.7	2.5	1.1
10~19명	0.9	1.0	4.0	1.6
20~29명	2.0	3.7	6.0	3.4
30~39명	4.3	5.7	7.5	5.4
40명 이상	92.2	89.0	80.1	88.6
연평균 1일 이용 남자 노인 수				
9명 이하	29.3	22.4	18.9	24.9
10~19명	27.7	25.8	29.9	27.6
20~29명	14.5	16.4	20.9	16.5
30~39명	9.8	10.4	14.4	11.0
40명 이상	18.6	25.1	15.9	20.1
연평균 1일 이용 여자 노인 수				
9명 이하	0.9	0.7	6.0	1.9
10~19명	1.8	3.0	9.0	3.7
20~29명	5.8	11.7	11.4	8.9
30~39명	10.3	14.7	13.9	12.5
40명 이상	81.2	69.9	59.7	73.1
계	100.0	100.0	100.0	100.0
(N)	(458)	(305)	(229)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재정 및 시설운영 현황

<표 4-16>에서 노인교실의 2011년도 수입금 총액을 살펴보면, 500만원 미만이 25.6%, 500~1000만원 미만이 22.1%, 1000~1500만원 미만이 19.3%, 1500~2000

만원 미만인 10.4%, 2000만원 이상이 2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30.7%, 2,000만원 이상이 24.7%이며, 500~1000만원 미만인 17.4%, 1000~1500만원미만이 16.5%, 1500~2000만원 미만인 1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군 지역의 경우 500만원 미만인 14.6%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낮으며, 500~1500만원 미만인 5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군 지역 총 수입금의 대부분이 500~1500만원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교실 총액대비 수입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노인교실 수입금 중 정부보조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인 53.1%이며, 기타 수입금이 21.8%, 회원회비 11.0%, 자체사업 수입금이 10.2%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의 비율은 대도시의 노인교실에 비해 중소도시와 군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수입금의 65.0%가 정부보조금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6> 노인교실 수입금 총액 및 구성(2011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 개소)
				전체
수입금 총액				
500만원 미만	30.7	25.3	14.6	25.6
500~1000만원 미만	17.4	23.6	30.2	22.1
1000~1500만원 미만	16.5	18.2	26.8	19.3
1500~2000만원 미만	10.7	9.1	11.7	10.4
2000만원 이상	24.7	23.6	16.6	22.6
수입금 총액대비 비율의 평균				
정부보조금	45.0	57.1	65.0	53.1
회원회비	15.2	8.6	5.4	11.0
자체사업 수입금	10.3	13.4	5.5	10.2
기타 수입금	25.9	18.5	17.8	21.8
계	100.0	100.0	100.0	100.0
(N)	(449)	(296)	(205)	(950)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중 수입금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95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의 보조금은 300만원 미만인 33.8%, 300~500만원 미만인 27.9%, 900만원 이상이 18.8%, 500~700만원 미만인 14.2%, 700~900만

원 미만이 5.3% 등으로 나타났다.

<표 4-17> 노인교실의 수입금 구성(2011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단위: %, 개소)
				전체
보조금(사·도 및 시·군·구)				
300만원 미만	45.2	29.1	15.6	33.8
300~500만원 미만	30.7	30.1	18.5	27.9
500~700만원 미만	9.1	13.2	26.8	14.2
700~900만원 미만	5.1	6.4	3.9	5.3
900만원 이상	9.8	21.3	35.1	18.8
회원 회비				
10만원 미만	57.9	72.0	75.6	66.1
10~30만원 미만	1.6	1.4	1.0	1.4
30~50만원 미만	1.6	0.3	1.5	1.2
50~70만원 미만	3.8	1.0	1.5	2.4
70만원 이상	35.2	25.3	20.5	28.9
자체사업 수입금				
100만원 미만	83.7	79.1	89.8	83.6
100~300만원 미만	2.2	4.4	2.4	2.9
300~500만원 미만	2.2	3.0	1.5	2.3
500~700만원 미만	1.8	2.4	1.5	1.9
700만원 이상	10.0	11.1	4.9	9.3
기타 수입금				
100만원 미만	61.0	67.2	67.3	64.3
100~300만원 미만	6.2	7.8	10.2	7.6
300~500만원 미만	5.3	4.7	3.4	4.7
500~700만원 미만	2.4	4.4	4.4	3.5
700만원 이상	24.9	15.9	14.6	19.9
계	100.0	100.0	100.0	100.0
(N)	(449)	(296)	(205)	(950)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중 수입금에 관한 문항에 응답한 950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300만원 미만(45.2%)이, 중소도시는 300~500만원 미만(30.1%)이, 군 지역의 경우 900만원 이상(35.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회비의 경우는 10만원 미만이 66.1%, 70만원 이상이 28.9%, 50~70만원 미만이 2.4%, 10~30만원 미만이 1.4%, 30~50만원 미만이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군 지역은 회원 회비의 10만원 미만 비율이 75.6%인데 비하여 대도시(57.9%)와 중소도시(72.0%)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체사업 수입금은 100만원 미만이 83.6%로 가장 많고, 기타 수입금도 100만원 미만이 64.3%로 가장 많다. 자체사업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지역별로 살펴봐도, 상대적으로 1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표 4-18>은 노인교실의 타 기관과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과의 연계율이 56.1%로 가장 높으며, 종교단체·민간기업이 53.3%, 관할 지자체가 47.5%, 자원봉사센터가 28.7%,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25.8%, 초·중·고·대학교가 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종교단체·민간기업이 54.6%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이 60.6%로 가장 높으며, 군 지역에서 관할 지자체가 60.9%로 가장 높다.

<표 4-18> 노인교실의 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또는 프로그램 연계율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관할 지자체	37.7	53.3	60.9	47.5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19.8	31.5	30.9	25.8
자원봉사센터	27.3	32.2	27.1	28.7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52.0	60.6	58.9	56.1
초·중·고·대학교	9.7	19.7	25.1	16.1
종교단체·민간기업	54.6	49.8	55.1	53.3
(대상기관 수)	(458)	(305)	(229)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표 4-19>는 노인교실의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것으로 운영책임자가 7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경우 운영책임자(85.0%) 비율이 대도시(74.8%)와 중소도시(8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대도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비율이 11.2%로, 중소도시(9.6%)와 군 지역(5.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표 4-19> 노인교실의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자(복수응답)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운영책임자	74.8	83.8	85.0	79.8
회원이 함께 작성	7.0	2.0	3.4	4.7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11.2	9.6	5.3	9.4
관련복지관(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5.5	3.3	1.9	4.0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0.4	0.0	0.0	0.2
외부 강사	1.3	0.3	0.0	0.7
기타	4.6	1.7	5.3	3.8
(대상기관 수)	(456)	(303)	(206)	(992)

주: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3. 프로그램 현황

<표 4-20>은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 것이다. 연평균 수업 개월 수를 살펴보면, 9개월 이상이 5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6~8개월이 46.8%, 5개월 이하가 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9개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는 6~8개월이 각각 56.8%,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 빈도는 주 1~2회가 8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지역별로도 주 1~2회인 경우가 대도시 82.8%, 중소도시 86.8%, 군 지역 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강사 초빙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교실의 88.2%가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9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도시가 88.1%, 중소도시가 84.5%이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고 응답한 노인교실의 경우, 외부강사 초빙 횟수로는 년 9회 이하가 33.1%로 가장 높으며, 지역별로는 9회 이하인 경우 중소도시가 3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에서 30회 이상인 경우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9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초교양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81.7%, 노인복지교육프로

그램의 실시율이 79.3%, 취미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2.1%,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71.7%, 시민생활교육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이 63.5%, 기술전문교육프로그램의 실시율이 11.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기술전문교육프로그램이 군 지역의 경우 17.6%를 차지하는 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9.4%,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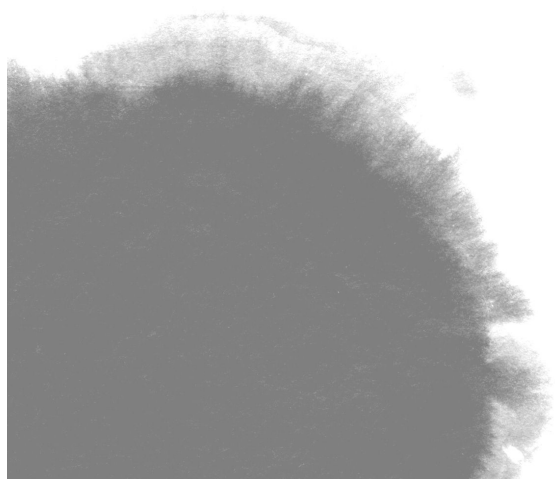
<표 4-20> 노인교실의 프로그램 현황

구분	(단위: %, 개소)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연 평균 수업 개월 수				
5개월 이하	1.1	1.3	10.0	3.2
6~8개월	39.0	56.8	49.1	46.8
9개월 이상	59.9	41.9	40.9	50.1
수업 빈도				
주 1~2회	82.2	86.8	79.7	83.0
주 3~4회	11.0	4.0	3.6	7.2
주 5회 이상	4.8	5.3	0.0	3.9
한 달에 1회	0.0	0.3	3.6	0.9
한 달에 2회	0.4	1.7	11.3	3.3
기타	1.5	2.0	1.8	1.7
외부강사 초빙 여부				
예	88.1	84.5	93.7	88.2
아니오	11.9	15.5	6.3	11.8
계	100.0	100.0	100.0	100.0
(N)	(458)	(305)	(229)	(992)
외부강사 초빙 횟수				
9회 이하	30.3	37.5	33.0	33.1
10~19회	16.1	14.9	29.1	18.9
20~29회	16.8	19.4	23.6	19.2
30회 이상	36.8	28.2	14.3	28.8
계	100.0	100.0	100.0	100.0
(N)	(386)	(248)	(203)	(837)
프로그램 실시율				
노인복지교육	73.6	83.5	85.6	79.3
건강교육	96.9	96.3	97.3	96.8
기초교양교육	77.8	82.3	88.7	81.7
취미교육	74.8	75.0	62.6	72.1
가족생활교육	68.6	72.0	77.5	71.7
시민생활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58.5	67.3	68.8	63.5
기술전문교육	9.4	9.6	17.6	11.3
(대상기관 수)	(458)	(305)	(229)	(992)

주: 1) 전체 조사응답 노인교실 9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2)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응답한 86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연구



제5장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노인여가복지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을 도시형으로 하고, 도 지역의 시 지역은 중소도시형, 그리고 도 지역의 군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2개 지역을 사례 연구하였다. 도시형으로는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각 1개 구를 지정, 중소도시형에서는 전라남도 목포시와 경기도 용인시, 농촌지역으로는 경북 의성군과 충청남도 예산군을 선정하였다. 지역의 선정은 가능한 수도권, 충청, 전라지역의 권역분포와 지역별 복지사업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에서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제1 절 도시형 사례지역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서울시 강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서쪽과 남쪽으로는 서구와 부평구에 접해 있고, 11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7.5%, 상업지역 1.4%, 공업지역 4.5%, 녹지지역 76.6%로 녹지지역이 넓은 도농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양구의 총 면적은 45.58km²로 인천광역시의 4.76%를 차지하고, 인구는 351,026

명으로 7,703명/km²의 인구밀도이며, 노인 인구수는 22,563명으로 고령화율은 6.4%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 말에 택지개발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입주자의 증가로 2002년 말까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왔으나 2003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최근 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2006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이후 고령화율의 변화를 보면 2001년 4.19%에서 2010년 6.4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5-1> 인천광역시 구·군별 인구현황

(단위: 명, %)

구별	세대수	총계			한국인			노인수 (고령화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중구	42,065	96,886	50,442	46,444	92,890	48,282	44,608	11,045(11.4)
동구	32,474	80,786	40,885	39,901	79,663	40,254	39,409	10,390(12.9)
남구	173,785	430,534	217,632	212,902	423,876	214,258	209,618	44,287(10.3)
연수구	100,065	282,889	142,215	140,674	279,230	140,216	139,014	19,307(6.8)
남동구	179,592	485,594	245,703	239,891	473,423	236,568	236,855	36,405(7.5)
부평구	214,701	575,252	288,610	286,642	567,493	284,701	282,792	46,859(8.1)
계양구	128,996	351,026	176,191	174,835	347,810	174,791	173,019	22,563(6.4)
서구	149,708	418,801	215,791	203,010	408,068	207,656	200,412	27,319(6.5)
강화군	29,055	67,668	33,793	33,875	67,104	33,526	33,578	16,010(23.7)
옹진군	9,223	18,852	10,177	8,675	18,739	10,104	8,635	3,620(19.2)
전체	1,059,664	2,808,288	1,421,439	1,386,849	2,758,296	1,390,356	1,367,940	237,805(8.5)

자료: 인천시 통계연보(2011)

<표 5-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전체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인구수 ¹⁾	65세 이상 인구수	고령화율	연도	전체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수	고령화율
2010	347,810	22,563	6.49	2005	335,435	16,949	5.05
2009	344,039	21,452	6.24	2004	337,103	16,208	4.81
2008	342,299	20,603	6.02	2003	340,175	15,668	4.61
2007	342,564	19,614	5.73	2002	341,074	14,875	4.36
2006	342,335	18,265	5.34	2001	339,696	14,227	4.19

자료: 1) 인천광역시 통계연보(2010, 2011)

2) 인천시 내부자료, 노인인구현황, <http://silver.incheon.go.kr>(2012. 10. 25일)

주: 인구수는 한국인의 인구수임.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1) 인천광역시 노인여가복지 정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노인 여가복지정책은 인천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경로당활성화 사업 확대, 노인종합복지관 확충·운영, 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확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자원봉사 지원,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다기능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여 노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참여 유도과 평생교육을 통한 생애 지속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시 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6년 시작 당시 200개소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23명을 배치하였고, 이는 이후 연차별로 확대·운영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현재 87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는 인천의 전체 경로당의 64.1% 수준이다. 인천광역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사업수행은 노인복지관(9개소)과 군청(1개소)에서 담당하고, 총 27명의 프로그램 관리자(1개 군·구별 평균 2.7명)가 노인 여가·문화, 건강관리, 노인 교양·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여가복지 사업으로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는 경로당 시설의 낙후 협소 및 단순 휴식의 장소로 이용률 저조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노인여가인프라의 새로운 모델로 실행중인 기관이다. 즉, 경로당 현대화 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사랑방 형태의 경로당 건립을 지양하고 다기능 문화서비스 보급의 장으로 개발·추진 중이다. 시설규모는 건축연면적 1,000㎡이상이고, 주요 운영 프로그램은 복지분야로 식당 운영, 건강상담, 생활상담, 법률상담 등이며, 문화사업으로 노래교실, 사물놀이, 영화, 에어로빅, 탁구, 당구, 수지침, 서예 등이다. 즉, 인천광역시 노인문화센터는 노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여가프로그램 중심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노인이 수준 높은 노인여가문화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하고, 광역시 내 노인의 여가문화의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전한 노인 문화 조성을 위한 다기능, 고품격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 및 생산적 복지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설립되었다.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는 문화·여가·교양·취미·정보화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대부분의 기초과정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하고, 중급 및 고급과정의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운영되는 평생프로그램의 수는 78강좌이고, 평생교육 뿐 아니라 생활체육(수영, 헬스), 자용이용 프로그램(당구, 탁구 등)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시설이용 노인 수는 약 1,400명으로 대규모 여가시설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록 노인의 연령분포는 60대가 55.6%, 70대 40.7%, 80대 3.7% 등으로 60대 젊은 연령층의 이용율이 높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체육(파티댄스, 단전호흡, 탁구), 서예(한글서예), 음악(하모니카 초급) 등이다. 계양구와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전체 등록인원 중 계양구 거주노인의 비율은 약 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예산

인천 계양구 예산에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1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문화센터, 145개의 경로당, 5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계양구의 노인 여가복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계양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52.2%이며,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23.0%이다. 계양구의 노인비율이 약 6.4%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8.9%로 나타나, 노인복지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예산을 노인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노인 1인당 년 약 216천원이며,

노인여가복지사업은 노인 1인당 년 약 108천원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인천 계양구의 노인1인당 여가복지사업비는 월 11만원 수준이다.

<표 5-3>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구성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228,538,191	-	-	-
사회복지예산	119,250,906	52.2	-	-
노인복지예산	27,376,325	12.0	23.0	-
노인여가복지예산	2,443,408	1.1	2.0	8.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계양구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은 노인여가복지 전체 예산 중 23.9%이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예산은 28.5%,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43.8%로 노인문화센터 운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로당 사업은 운영비 지원이 67.7%, 여가문화보급 사업 지원이 18.2%, 경로당 개보수비 8.3% 등으로 대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표 5-4>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경로당	인프라	경로당 개보수		44,720	1.8
		합계		44,720	1.8
	프로그램	구립 경로당 지원	계산2동 경로당 임차료	8,843	0.4
			다남동 경로당 임차료	833	0.0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680	0.1
			가스안전점검수수료	792	0.0
			도시가스점검수수료	962	0.0
			환경개선부담금	600	0.0
			경로당 점검 여비	1,440	0.1
			예산절감(50%)	-720	0.0
			하절기 냉방비 지원	30,000	1.2
			운영비 지원(효성1동)	2,424	0.1
		경로당 운영비지원	365,459	15.0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지원	98,400	4.0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	29,326	1.2	
합계		540,039	22.1		
총 합계		584,759	23.9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696,197	28.5
노인문화센터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1,069,125	43.8
노인교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69,890	2.9
기타 노인여가복지		23,437	1.0
총 합계		2,443,408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다. 노인여가복지 자원 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자원현황

인천 계양구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전제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등이 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효서로에 위치하고, 3개의 노인문화센터가 계산동, 동양로, 봉로대로 등 지역권 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은 149개, 노인교실이 5개 운영 중이다. 계양구의 평생교육기관으로는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구여성복지회관, 계양문화회관,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인여자대학 평생교육원, 노동복지회관, 계양도서관,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 동양노인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표 5-5>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인천광역시 전체	9	9	1,367	54
인천 계양구	1	3	149	5

자료: 계양구청, 계양구 기본통계(2011)

<표 5-6> 인천광역시 계양구 각 동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노인수	1개소 당 노인수
효성1동	16	2,490	155.6
효성2동	16	2,208	138.0
계산1동	7	1,876	268.0
계산2동	7	1,556	222.3
계산3동	14	1,312	93.7
계산4동	10	1,151	115.1
작전1동	19	1,981	104.3
작전2동	9	2,313	257.0
작전서운동	12	1,947	162.3
계양1동	26	2,731	105.0
계양2동	13	2,998	230.6
전체	149	22,563	151.4

자료: 계양구청, 계양구 기본통계(2011)

2) 기관별 사업 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해당 구내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노인여가복지시설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계양구에는 노인복지관 1개, 노인문화센터 3개가 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에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배치된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여가서비스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나 물리치료 등의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문화센터는 여가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여가프로그램을 2012년도에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53,670명(연인원)이고,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수는 750~780명이며, 1일 평균 여가프로그램 이용 노인 수(회원 수)는 450~480명이다.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70~74세가 38.9%로 가장 많고, 75~79세 23.4%, 65~69세 17.5%, 64세 이하 10.9%, 80~84세가 8.2%, 85세 이상 1.1% 등이다.

<표 5-7>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연령	인원수	비율
64세 이하	5,850	10.9
65~69세	9,392	17.5
70~74세	20,870	38.9
75~79세	12,568	23.4
80~84세	4,400	8.2
85세 이상	590	1.1
계	53,670	100.0

자료: 계양구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희망하는 대상자가 정원에 비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요가, 컴퓨터, 당구·포켓, 사교댄스 순이며, 성별 인기프로그램으로는 남자는 사교댄스, 당구·포켓, 탁구 등이고, 여성은 건강체조, 요가, 가요 등이다. 연령별 인기프로그램으로는 60대~70대는 사교댄스와 가요, 80대는 가요와 국악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추첨제로, 수요가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착순제를 적용하고 있다. 1명의 회원이 최대 4과목을 이용할 수 있다.

<표 5-8>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단위: 명)

구분	인원수	구분	인원수
건강관리프로그램	1,987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2,404
건강체조	699	컴퓨터 초급	659
요가	681	컴퓨터 중급	565
게이트볼	607	인터넷활용A	621
교양교육프로그램	5,516	인터넷활용B	559
한글 초급	634	동아리활동	13,921
한글 중급	363	사교댄스	1,191
일어	721	한국무용	433
영어 초급	609	스포츠댄스	4,227
영어 중급	452	탁구	4,028
합창반	521	서예	754
사물놀이	812	컴퓨터	1,275
서예 초급	570	수목화	808
서예 중급	505	게이트볼	618
수목화	329	당구·포켓	235
여가취미프로그램	14,753	사물놀이	127
스포츠댄스 초급	1525	Love Maker 예술봉사단	48
스포츠댄스 중급	2190	연극반	177
사교댄스	1313	자치활동 프로그램	14,957
차명댄스	725	당구장	5,376
고전무용	536	장기·바둑	6,449
국악반	1361	노래방	3,132
가요반	5951		
탁구	723		
당구포켓	429		

자료: 계양구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 노인문화센터 이용 현황(효성노인문화센터)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3개 노인문화센터 중 효성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로부터 위탁·운영 받아 운영 중이며, 3층 건물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노인문화센터, 3층은 노인주간보호 시설로 운영되는 복합시설로 구성되어있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3개 노인문화센터 중 효성노인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면접을 실시함. 본 글에서는 면담결과와 현황 자료를 제시함.

효성노인문화센터의 1년 예산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며, 센터의 직원은 총 7명이다. 효성노인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여가프로그램을 2012년도에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548명이고, 1일 평균 노인문화센터 이용 노인 수는 258명이다.

노인문화센터 이용노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65~69세가 34.7%로 가장 많고, 70~74세가 26.6%, 75~79세가 16.4%, 64세 이하가 13.5%, 80~84세가 5.1%, 85세 이상이 3.7% 등으로 65~74세가 약 60%이다.

<표 5-9>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노인문화센터 이용노인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연령	인원수	비율
64세 이하	74	13.5
65~69세	190	34.7
70~74세	146	26.6
75~79세	90	16.4
80~84세	28	5.1
85세 이상	20	3.7
계	548	100.0

자료: 계양구 효성노인문화센터 내부자료(2012)

효성노인문화센터 사업담당자에 의하면, 노인문화센터 여가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웰빙댄스, 실버댄스, 화장품만들기, 비누만들기, 노래교실 등의 순이고, 성별 인기프로그램으로는 남자는 웰빙댄스, 실버댄스, 건강체조 등이며, 여성은 웰빙댄스, 실버댄스, 요가교실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별 인기프로그램으로는 60대~70대는 웰빙댄스, 80대는 비누만들기라고 응답하였다. 노인 1인당 평균 등록 강좌 수는 2과목이다.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이동 노인문화센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2군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의 공간을 활용하여 공예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4개소를 대상으로 1주일에 2회 지원하며, 효성동을 위주로 동 내의 경로당을 조사하여 서비스 대상 경로당을 선정한다.

<표 5-10>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단위: 명)

구분	인원수	구분	인원수
건강/체육		무용/음악	
요가교실	40	웰빙댄스	40
건강체조	40	실버댄스	40
취미/여가		노래교실	120
화장품 만들기	8	풍물교실	32
비누 만들기	8	민요교실	32
향초 만들기	8	컴퓨터	
방향제 만들기	8	컴퓨터 초급	7
찾아가는 이동 노인문화센터	각 10	컴퓨터 중급	6

자료: 계양구 효성노인문화센터 내부자료(2012)

(3) 경로당 및 노인대학

인천 계양구에 149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모든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지원하고, 이 중 45개 경로당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여가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확대 시범사업으로 계양구를 제외한 3개구에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복지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며, 계양구는 예산 등의 문제로 전체의 약 1/3 정도만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다른 구와 동일하게 전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에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경로당이 단순 휴식의 공간 기능보다는 복지관의 전문가 개입을 통해 건전하게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건강 프로그램, 여가와 문화생활 연관 프로그램, 소외감 극복, 지지격려 행사, 경로당 임원진 교육, 경로당 지역 후원회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예산으로는 1개소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프로그램(체조나 요가, 수지침 등)과 여가프로그램(노래수업, 영화 상영, 천연비누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라. 인천 계양구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개선 사항

계양구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은 인천광역시 자체사업의 지원 등으로 다기능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참여와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이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계양구는 노인복지관 뿐 아니라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3개소) 운영되어 노인들이 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며, 또한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확대로 46개 경로당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의 확대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여가프로그램의 보급과 효율적 운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노인문화센터는 지역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개발과 역할을 모색하고, 노인복지관은 유료화 등을 통한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2. 광주광역시 북구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호남지역의 중심인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북구는 광주광역시 5개구 중 한 개로 광주광역시 총 인구인 1,467,996명 중 32.0%인 470,407명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고령화율이 9.1%인데 비하여 북구의 고령화율은 9.0%로 다른 구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러한 고령화율은 2000년의 5.1%에 비하여 3.9% 증가한 것으로 광주시 전체의 증가율(5.6%→9.0%)에 비하여 빠른 것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북구의 인구규모는 감소하였지만 노인인구는 증가하여 25,373명에서 42,408명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67.1%에 달하고 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비율은 각각 8.5%, 20.2%, 71.3%이다. 지역의 총 면적은 501.25km²이며, 북구의 인구는 470,407명으로 1,447.5명/km²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광주시 전체의 평균 인구밀도 2,928.7명/km²보다 낮은 편이다.

광주시 북구는 총 2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광주시의 94개동의 27.7%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구의 13개, 서구의 18개, 남구의 16개, 광산구의 21개 동에 비하여 동 수가 많은 것이다. 북구의 각 동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신안동은 24.3%인데 비하여 우산동은 4.2%인 등 동별 편차가 심한 편이고 11개 동이 고령자 비율이 10%미만인 반면, 20%를 넘는 동도 2개나 있다. 또한 노인의 절대적인 규모 또한 신안동이 가장 커 3,061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우산동은 685명으로 신안동의 1/4 미만의 규모이다.

<표 5-11> 광주광역시 인구현황

(단위: 명, %)

행정구역	2010			
	전체	남자	여자	노인수
광주광역시	1,467,996	728,892	739,104	133,137(9.1)

자료: 광주시정통계(2011)

<표 5-12> 광주광역시 각 구별 인구현황

(단위: 명, %)

구별	세대	총계			한국인			노인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동구	46,449	105,483	52,705	52,778	104,449	52,221	52,228	15,856(15.0)
서구	111,381	304,417	149,792	154,625	303,219	149,345	153,874	25,754(8.5)
남구	81,316	217,844	105,930	111,914	216,863	105,612	111,251	24,036(11.0)
북구	174,151	470,407	233,830	236,577	466,866	232,226	234,640	42,408(9.0)
광산구	127,578	369,845	186,635	183,210	363,239	182,376	180,863	25,083(6.8)

자료: 광주시정통계(2011)

<표 5-13> 광주광역시 북구 각 동별 인구현황

(단위: 명, %)

동별	세대	총계			한국인			노인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중흥1동	2,320	4,644	2,512	2,132	4,626	2,507	2,119	733(15.8)
중흥2동	4,031	9,492	4,831	4,661	9,436	4,813	4,623	1,454(15.3)
중흥3동	3,007	6,482	3,336	3,146	6,453	3,333	3,120	932(14.4)
중앙동	2,257	4,445	2,330	2,115	4,406	2,310	2,096	1,531(34.4)
임동	4,387	10,856	5,506	5,350	10,808	5,493	5,315	1,655(15.2)
신안동	5,757	12,574	6,520	6,054	12,499	6,504	5,995	3,061(24.3)

동별	세대	총계			한국인			노인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용봉동	14,725	42,277	21,282	20,995	41,037	20,630	20,407	2,314(5.5)
운암1동	8,211	24,620	12,069	12,551	24,541	12,038	12,503	2,063(8.4)
운암2동	6,363	15,821	8,043	7,778	15,754	8,027	7,727	1,187(7.5)
운암3동	6,612	19,265	9,344	9,921	19,211	9,330	9,881	1,974(10.2)
동림동	12,527	37,019	18,317	18,702	36,863	18,255	18,608	2,454(6.6)
우산동	7,101	16,154	7,911	8,243	16,073	7,882	8,191	685(4.2)
풍향동	3,547	7,798	3,979	3,819	7,753	3,966	3,787	1,634(21.0)
문화동	6,590	16,290	7,925	8,365	16,219	7,903	8,316	1,789(11.0)
문흥1동	6,552	20,055	9,801	10,254	20,016	9,785	10,231	1,499(7.5)
문흥2동	6,935	19,628	9,464	10,164	19,552	9,441	10,111	2,164(11.0)
두암1동	3,899	9,793	4,801	4,992	9,722	4,765	4,957	1,166(11.9)
두암2동	7,606	20,343	10,106	10,237	20,276	10,085	10,191	1,428(7.0)
두암3동	8,376	19,923	9,362	10,561	19,839	9,335	10,504	1,629(8.2)
삼각동	4,773	13,424	6,966	6,458	13,362	6,945	6,417	1,095(8.2)
일곡동	10,810	34,616	16,850	17,766	34,520	16,810	17,710	1,054(3.0)
매곡동	5,027	15,875	7,907	7,968	15,846	7,897	7,949	1,493(9.4)

자료: 북구통계연보(2011)

<표 5-14> 광주광역시 북구 인구변동

(단위: 명, %)

구별	2001		2011		총인구 증가율	노인인구 증가율
	총인구수	노인수	총인구수	노인수 (비율)		
북구	474,409	25,373	470,407	42,408(9.0)	-0.8	67.1

자료: 광주시정통계(2011), 5세별 주민등록인구(2001)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1) 광주광역시 노인여가복지정책

광주 북구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광주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맥락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대규모 사업을 많이 실시한 편이다. 2003년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2010년에는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바 있으며, 2008년에는 고령친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정책은 국제실버박람회 개최로 이어져 2010년에 김대중컨벤션센터

터에서 11월 11일~13일까지 3일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의 증가추세를 보면 최근 4년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2007년에 1개소에서 2010년에 3개소로 증가하였고, 경로당은 동일기간 내에 26개소가 증가하여 증가세는 악화되었다. 동별로 살펴보면 풍향동의 경우 노인 326.8명당 1개소의 규모인 것에 비하여 건국동의 경우는 노인 23.9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동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 노인 100명당 1개소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경로당 과잉설치의 가능성이 있는 동도 7개소에 달하고 있다.

노인교실의 경우 2008년까지 시설이 없다가 2009년에 6개소, 2010년에 8개소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실제 노인교실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교실 중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지 않았던 시설이 파악된 것도 요인으로 보인다.

<표 5-15>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연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단위: 개소, 명) 노인교실
	시설수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시설수
2007	340	1	21,385	339	-
2008	349	2	3,369	347	-
2009	368	2	3,878	360	6
2010	376	3	7,524	365	8

자료: 북구통계연보(2011)

2)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예산

광주광역시 북구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3개의 노인복지관(북부노인복지센터 포함)과 365개의 경로당, 20개(이중 10개소에만 예산지원)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북구의 노인여가복지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59.6%로 매우 높으나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18.5%이다. 북구 노인비율이 약 9.0%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5.8%로 매우 낮다.

노인복지예산을 노인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노인 1인당 년 약 940천원이며, 노인여가복지사업은 노인 1인당 년 약 54천원의 수준에 불과하다. 즉 광주광역시 북구의 노인 1인당 여가복지는 월 4.5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표 5-16>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구성

(단위: 천원, %)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361,752,899	-	-	-
사회복지예산	215,531,312	59.6	-	-
노인복지예산	39,861,485	11.0	18.5	-
노인여가복지예산	2,313,911	0.6	1.1	5.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북구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은 노인여가복지 전체 예산 중 81.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은 15.9%로 두 종류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로당 사업은 시설 개보수와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은 53.1%, 프로그램 지원은 0.4%로 경로당 사업의 상당수가 프로그램 보다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투입되고 있다. 노인교실과 관련한 지출은 2.2%로 매우 미미하다.

<표 5-17>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경로당	인프라	경로당시설개보수등	430,000	18.6	
		경로당편의시설설치	10,000	0.4	
		합계	440,000	19.0	
	프로그램	노인복지여가프로그램	9,000	0.4	
		경로당운영비	1,048,800	45.3	
		경로당난방비	180,500	7.8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회의수당	490	0.0	
		경로당화재보험료	1,500	0.1	
		경로당전기안전점검료	3,500	0.2	
		경로당활성화국내여비	1,000	0.0	
		경로당백미지원	153,900	6.7	
		경로당비품지원	10,000	0.4	
		경로당활성화	19,935	0.9	
		경로당난방시설교체	15,000	0.6	
		합계	1,443,625	62.4	
총 합계		1,883,625	81.4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	종사자인건비및시설운영비	276,646	12.0	
		여가시설종사자지원(특별수당)	13,200	0.6	
		북구 노인 복지 센터	일반수용비	10,000	0.4
			일반운영비	30,000	1.3
			공공요금및제세	14,000	0.6
			시설장비유지비	9,000	0.4
			출입구계단안전손잡이설치등	5,000	0.2
			건강기구구입		0.0
			자전거(싸이클)	3,000	0.1
			장구	2,000	0.1
			소리북	500	0.0
			하체운동기구(레그익스텐션)	4,000	0.2
		합계	367,346	15.9	
		노인교실	노인대학운영교재발간	3,000	0.1
	노인대학운영비(노인회북구지회)지원		11,700	0.5	
노인대학운영비지원	36,000		1.6		
합계	50,700		2.2		
기타 노인여가복지		12,240	0.5		
총 합계		2,313,91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다. 노인여가복지자원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자원현황

북구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고령친화체험관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3개가 있는데 이 중 1개는 노인복지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기관이 아니며, 경로당은 365개소, 노인교실은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표 5-18> 광주광역시 구별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계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노인복지관	10	1	1	3	3	2
경로당	1,205	98	200	208	365	334
(1개 경로당 대비 노인수)	110	161	128	115	116	75
노인교실	18	5	0	1	20(10) ¹⁾	4

자료: 광주시정통계(2011)

주: 1) 20개 노인교실 중 설치신고를 통하여 대한노인회의 관리를 받으며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는 노인교실은 10개임.

2) 기관별 사업 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노인복지관은 북구노인복지관, 효령노인복지타운, 북구노인복지센터(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은 아님)가 있다. 이 중 연구진에 의한 이용현황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진 북구노인복지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북구에서의 북구의 구체적인 노인복지관 이용실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북구노인복지관의 2012년 1회 이상 이용한 회원은 95,415명이며 1일 평균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은 430명이고,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노인은 200명으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약 절반 가량이 여가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1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일수는 5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노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70~74세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표 5-19>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북구	3 ¹⁾	362	20(10) ²⁾

자료: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2)

주: 1)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이 아닌 북구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것임.

2) 20개 노인교실 중 설치신고를 통하여 대한노인회의 관리를 받으며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는 노인교실은 10개임.

<표 5-20> 광주광역시 북구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북구노인종합복지관)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구분	인원
65세 미만	122	70~74	938	80~84	357
65~69	470	75~79	761	85~89	115
90세 이상	33				

자료: 광주시 북구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광주광역시 북구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실태를 살펴보면 노래교실, 춤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 총 1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래교실의 이용인원이 61,134명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4,405명으로 많다. 성별 인기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서예, 탁구, 사교댄스를 여자노인은 노래, 파워댄스, 우리 춤을 선호하고 있으며 60대~70대에서는 파워댄스, 노래, 우리춤, 컴퓨터, 한춤 등이 인기가 있고 80대 이상에서는 노래와 합창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북구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60세 이상 광주시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경우는 1일 이용자가 5천여명

으로 이 중 7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 복구 거주자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노인이 43%에 해당한다.

<표 5-21> 광주광역시 복구노인복지관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인원(복구노인종합복지관)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노래교실	6,134	한글교실	1,974
컴퓨터교실	4,405	품물교실	1,764
파워댄스	1,313	파워댄스	1,313
서예교실	3,350	스포츠댄스	1,250
탁구교실	3,291	합창교실	1,061
요가교실	3,174	하모니카교실	900
우리춤교실	2,839	수목화교실	884
사교교실	2,281	난타교실	818
한춤교실	2,101	당구교실	169

자료: 광주시 복구노인종합복지관 내부자료(2012)

(2) 경로당 관련 사업

광주시 복구의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경로당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회원 수에 따라 월 22만원~27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난방비는 년 50만원(2회)씩 지원되고 있어 경로당 1개소 당 년 314만원~374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TV, 냉장고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규모는 서구의 월 28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82만원에 비하여 적은 액수이지만 광주시 평균인 21만원에 비하여 높은 것이다. 난방비의 경우는 평균인 67만원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5-22> 광주광역시 북구 동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65세 이상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중흥1동	4	733	183.3
중흥2동	6	1,454	242.3
중흥3동	6	932	155.3
중앙동	5	1,531	306.2
임동	8	1,655	206.9
신안동	17	3,061	180.1
용봉동	32	2,314	72.3
운암1동	12	2,063	171.9
운암2동	10	1,187	118.7
운암3동	13	1,974	151.8
동림동	13	2,454	188.8
우산동	11	685	62.3
풍향동	5	1,634	326.8
문화동	8	1,789	223.6
문흥1동	13	1,499	115.3
문흥2동	12	2,164	180.3
두암1동	7	1,166	166.6
두암2동	13	1,428	109.8
두암3동	9	1,629	181.0
삼각동	10	1,095	109.5
일곡동	23	1,054	45.8
매곡동	16	1,493	93.3
오치1동	9	658	73.1
오치2동	13	4,189	322.2
석곡동	16	825	51.6
건국동	73	1,742	23.9

자료: 북구통계연보(201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명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북구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매년 3월~12월 기간 중 해당 지역 내 102개의 경로당을 순회방문, 프로그램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이용 노인 및 비이용 노인의 욕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생활체육협회, 병원, 안마협회 등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노인교실(대학) 사업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노인교실 21개소 중 10개소가 복구에 위치하고 있다. 노인교실의 기본 규정은 60세 이상 이용정원 50인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은 이중 이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된 노인교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교실은 며 주 1회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시설장 1명이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구 소재의 10개소 노인교실에는 2012년에 총 22,290천원이 보조되었으며 이 중 70%는 시비로 30%는 구비로 이루어져있다.

라. 광주 복구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개선사항

광주 복구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은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여가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어 광주광역시의 정책방향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대규모 노인타운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광주광역시의 정책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통하여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의 순으로 노인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에 의한 계층화된 여가복지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주 복구는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의 제반 기준에 상응하는 복지관을 확대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복구노인복지센터를 직영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외부자원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복지관에 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활성화사업이 비교적 내실 있게 운영되고는 있으나

경로당이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점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거점화를 통하여 지금의 경로당보다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담당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조정보다는 노인이 요청하는 ‘아래로부터’의 조정작업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2절 중소도시형 지역사례

1. 경기도 용인시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시는 경기도의 27시의 하나이다. 용인시는 3구 1읍 6면 24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인시의 총 인구는 891,708명으로 이 중 8.5%인 75,827명이 65세 이상이다. 이러한 고령화율은 경기도의 9.3%에 비하여 낮은 것이다. 용인시 내부적으로는 처인구가 9.7%, 기흥구가 7.8%, 수지구가 8.5%이다. 용인시의 6개 면 중에서 백암면이 18.7%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기흥구의 상하동의 경우 2.8%로 가장 낮은 등 고령화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는 용인시가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3> 경기도 용인시 인구현황(2010년)

(단위: 명, %)

행정구역	2010			
	전체	남자	여자	노인수
용인시	891,708	444,871	446,837	75,827(8.5)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11)

<표 5-24> 경기도 용인시 각 구별(읍·면·동별) 인구현황(2010년)

(단위: 명, %)

읍·면·동별	세대 ¹⁾	총계			한국인			노인수 (고령화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처인구	81,046	215,414	111,472	103,942	207,935	106,713	101,222	20,928(9.7)
포곡읍	12,041	32,498	16,766	15,732	31,800	16,351	15,449	2,748(8.5)
모현면	8,825	23,153	12,411	10,742	22,135	11,696	10,439	2,363(10.2)
남사면	3,230	8,367	4,603	3,764	7,446	3,924	3,522	1,452(17.4)
이동면	7,811	20,974	10,869	10,105	20,036	10,220	9,816	2,192(10.5)
원삼면	3,325	8,107	4,294	3,813	7,711	4,007	3,704	1,495(18.4)
백암면	4,118	9,846	5,183	4,663	9,260	4,752	4,508	1,837(18.7)
양지면	5,945	15,321	8,143	7,178	14,805	7,748	7,057	1,696(11.1)
중앙동	9,704	25,356	12,798	12,558	24,243	12,228	12,015	2,166(8.5)
역삼동	9,073	24,059	12,158	11,901	23,606	11,968	11,638	1,622(6.7)
유림동	11,440	33,143	16,780	16,363	32,666	16,529	16,137	2,130(6.4)
동부동	5,534	14,590	7,467	7,123	14,227	7,290	6,937	1,227(8.4)
기흥구	130,466	363,271	179,679	183,592	357,935	176,903	181,032	28,177(7.8)
신갈동	13,064	35,419	17,610	17,809	34,162	16,971	17,191	2,795(7.9)
영덕동	12,860	36,676	18,187	18,489	36,614	18,153	18,461	2,214(6.0)
구갈동	11,086	27,886	14,041	13,845	27,064	13,615	13,449	1,639(5.9)
상갈동	16,776	46,419	23,135	23,284	45,850	22,866	22,984	3,644(7.9)
기흥동	6,815	18,330	9,265	9,065	18,027	9,088	8,939	1,514(8.3)
서농동	4,893	10,727	5,344	5,383	9,725	4,813	4,912	388(3.6)
구성동	13,157	37,085	18,129	18,956	36,886	18,046	18,840	3,563(9.6)
마북동	10,527	29,828	14,781	15,047	29,645	14,687	14,958	3,339(11.2)
동백동	11,739	33,570	16,384	17,186	33,225	16,178	17,047	3,458(11.3)
상하동	21,552	64,242	31,528	32,714	63,888	31,357	32,531	3,794(2.8)
보정동	7,997	23,089	11,275	11,814	22,849	11,129	11,720	1,829(15.0)
수지구	107,983	313,023	153,720	159,303	310,680	152,726	157,954	26,537(8.5)
풍덕천1	13,563	36,423	18,112	18,311	35,746	17,848	17,898	2,755(7.6)
풍덕천2	13,514	39,572	19,523	20,049	39,500	19,494	20,006	2,688(6.8)
신봉동	9,792	29,025	14,197	14,828	28,863	14,129	14,734	2,862(9.9)
죽전1동	20,689	59,161	28,875	30,286	58,760	28,721	30,039	4,574(7.7)
죽전2동	7,538	20,455	10,145	10,310	20,151	10,026	10,125	1,440(7.0)
동천동	11,171	32,465	16,129	16,336	32,172	15,980	16,192	2,333(7.2)
상현1동	11,090	34,430	16,805	17,625	34,175	16,675	17,500	3,134(9.7)
상현2동	10,516	32,111	15,667	16,444	32,101	15,663	16,438	3,048(9.5)
성북동	10,080	29,381	14,267	15,114	29,212	14,190	15,022	3,703(12.6)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11)

주: 1) 외국인 세대수 제외

<표 5-25> 경기도 용인시 인구변동 현황

(단위: 명, %)

구별	2001		2011		총인구 증가율	노인인구 증가율
	총인구수	노인수 (고령화율)	총인구수	노인수 (고령화율)		
용인시	451,670	25,350(5.6)	896,044	81,132(9.1)	98.4	220.0

자료: 5세별 주민등록인구(2011)

용인시의 고령화율은 2001년의 5.6%에서 매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용인시의 전체 인구규모는 약 2배 증가하였고, 노인인구는 3배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인구규모의 증가와 전체 인구보다 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총 면적은 591.36km²이며, 용인시 인구는 81,132명으로 137.2명/km²의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평균 인구밀도 2,928.7명/km²보다 낮은 편이다.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용인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하면 노인복지관련 기본방향은 풍요로운 노후생활, 활기찬 노후생활, 건강한 노후생활이다. 이 중 노인여가복지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관련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복지관 확충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각 구에 1개소씩 총 3개소를 건립하는 것과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통하여 노인복지전달 최일선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회 지회를 활용하여 노인대학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시의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8.9%이며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예산의 28.6%이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9.4%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예산을 노인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노인 1인당 년 약 1,154천원이며, 노인여가복지사업은 노인 1인당 년 약 99천원의 수준에 불과하다. 즉 용인시의 노인 1인당 여가복지는 월 8.3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의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은 노인여가복지 전체 예산 중 64.7%,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은 32.2%로 두 종류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경로당사업의 경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절

반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6> 경기도 용인시 예산구성

(단위: 천원, %)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1,476,198,935	-	-	-
사회복지예산	279,346,286	18.9	-	-
노인복지예산	79,998,170	5.4	28.6	-
노인여가복지예산	7,552,401	0.5	2.7	9.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용인시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표 5-27>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경로당	인프라	원촌경로당 신축	100,000	1.3
		지령골경로당 증축	13,000	0.2
		합계	113,000	1.5
	프로 그램	경로당운영 난방비(765개소)	3,603,300	47.7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비	10,500	0.1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26,000	1.7
		경로당 기능보강지원	9,000	0.1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707개소)	669,000	8.9
		경로당활성화사업	30,000	0.4
		모범 경로당 표창 및 현판제작	200	0.0
		모범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00	0.1
		노인회 운영비	74,400	1.0
		분회 지원 회의진행비	65,100	0.9
		노인여가활동 강사비	109,200	1.4
		프로그램 지원 운영비	7,000	0.1
		경로당 프로그램 인건비	55,800	0.7
		관리자 지원 보험료	5,022	0.1
		활동비	7,200	0.1
		합계	4,775,722	63.2
	총 합계		4,888,722	64.7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노인 복지관	인프라	수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200,000	2.6
		노인이용시설중사자 특수근무수당(26명)	38,400	0.5
		합계	238,400	3.2
	프로 그램	노인복지관 운영	1,881,209	24.9
		집기류 및 기자재 구입	306,000	4.1
		노인복지관 지원(시금고 협력사업)	4,000	0.1
		합계	2,191,209	29.0
	총 합계		2,429,609	32.2
기타 노인여가복지		243,070	3.2	
총 합계		7,552,40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다. 노인여가복지지원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지원현황

용인시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723개소의 경로당, 9개소의 노인교실이 있다. 노인여가복지기관의 증가추세를 보면 최근 4년간 노인복지관은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시노인복지관이 2005년에 개소한 이래로 유일한 노인복지관이었으나 2012년 5월 수지노인복지관이 수지복지센터 내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경로당 실태를 각 구별(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성북동의 경우 노인 336.6명당 1개소의 규모인 것에 비하여 남사면은 노인 41.5명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 노인 100명당 1개소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경로당 과잉설치의 가능성이 있는 읍·면·동도 15개소에 달하고 있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대부분의 읍·면·동에 노인 100명 미만 당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표 5-28>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용인시	2	723	9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11), 용인시청 내부자료

<표 5-29> 경기도 용인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시설수
2006	639	1	682	631	7
2007	670	1	1,000	662	7
2008	691	1	1,000	683	7
2009	711	1	1,351	703	7
2010	732	1	1,800	723	8
처인구	372	1	1,800	369	2
기흥구	205	-	-	201	4
수지구	155	-(1)	-	153	2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11)

<표 5-30> 경기도 용인시의 각 구별(읍·면·동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읍·면·동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처인구	373	20,928	56.1
포곡읍	35	2,748	78.5
모현면	36	2,363	65.6
남사면	35	1,452	41.5
이동면	36	2,192	60.9
원삼면	38	1,495	39.3
백암면	54	1,837	34.0
양지면	32	1,696	53.0
중앙동	29	2,166	74.7
역삼동	22	1,622	73.7
유림동	28	2,130	76.1
동부동	28	1,227	43.8

읍·면·동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기흥구	210	28,177	134.2
신갈동	23	2,795	121.5
영덕동	22	2,214	100.6
구갈동	16	1,639	102.4
상갈동	24	3,644	151.8
기흥동	16	1,514	94.6
서농동	7	388	55.4
구성동	19	3,563	187.5
마북동	16	3,339	208.7
동백동	37	3,458	93.5
상하동	13	3,794	291.8
보정동	17	1,829	107.6
수지구	165	26,537	160.8
풍덕천1	15	2,755	183.7
풍덕천2	19	2,688	141.5
신봉동	14	2,862	204.4
죽전1동	39	4,574	117.3
죽전2동	12	1,440	120.0
동천동	23	2,333	101.4
상현1동	19	3,134	164.9
상현2동	13	3,048	234.5
성북동	11	3,703	336.6

자료: 용인시 통계연보(2011), 용인시청 내부자료

2) 기관별 사업 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용인시노인복지관은 의료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복리후생사업(경로식당, 이·미용, 쉼터), 지역복지사업 및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개소하여 아직 운영초기인 수지노인복지관은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복리후생사업, 노인문화축제, 지역연구 및 조사 등과 같은 지역복지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재가복지사업(사례관리, 정서지원서비스, 생활편의지원서비스, 경제지원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수지노인복지관을 2012년에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69,118명으로 수지구 거

주노인이 5,266명, 가흥구 거주 노인 323명, 타지역 거주 노인 19명이다. 1일 평균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노인수는 800명이며,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일수는 2~3일이다.

<표 5-31>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수지노인복지관)

(단위: 명, %)					
연령별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기타
인원	2,520 (43.5)	2,817 (48.6)	432 (7.5)	15 (0.3)	5 (0.1)

자료: 경기도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운영 중인 여가복지프로그램은 영어초급·중급, 일본어 초급·중급, 팝송영어, 여행 영어, 중국어초급·중급 등의 학습프로그램과 취미여가프로그램(민화, 수묵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종이접기, 수채화, 오카리나, 클래식 음악감상, 하모니카초급, 하모니카 중급, 민요장구 초급, 민요장구 중급, 노래교실, 가곡), 건강프로그램(요가, 실버에어로빅, 한국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탁구입문, 라지볼입문, 부부실버댄스, 웃음기 공체조, 시니어건강체조, 포켓볼 초급, 포켓볼 중급) 및 정보화프로그램(컴퓨터초급, 컴퓨터중급, 컴퓨터 사진동영상반, 컴퓨터 문서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인기 프로그램은 컴퓨터, 탁구, 노래교실, 팝송영어, 실버에어로빅이다. 연령군별 선호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별로는 선호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어 남성노인의 경우 컴퓨터, 장기바둑, 탁구, 당구가, 여성노인의 경우 에어로빅, 라인댄스, 노래교실이 인기가 있다. 특정 노인이 프로그램 수강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1인당 평균 등록 강좌수를 2강좌로 제한하고 있다.

(2) 경로당 관련 사업

용인시는 경로당에 월 35만원의 운영비와 더불어 난방비를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500㎡이하인 경우는 60만원, 50~200㎡이하인 경우는 65만원, 200㎡ 이상인 경우는 7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

15%와 시비 85%이다. 또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활동에는 노인 땅 경작, 지역청소, 교통정리, 놀이터 관리, 향토유적지 관리, 환경감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경로당 환경개선비용을 50만원~200만원 규모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기구 수리·구입지원을 하고 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1명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경로당 시설의 지속적인 개보수,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 찾아가는 문화사업, 경로당 리더 교육이다.

(3) 노인교실(대학) 사업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노인교실은 용인시에 9개소로 각 구별 대한노인회 지원에서 3개소씩 운영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정도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래교실, 건강체조, 노년의 장수하는 삶, 문화탐방 등의 교양강좌와 더불어 승강기 시설 이용안전에 관한 교육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⁴⁾. 노인대학의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평생교육차원으로서의 확장, 지역 자원봉사활동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람과 긍지부여, 노인의 연령, 건강, 교육수준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설정하고 있다.

라. 용인시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개선사항

노인의 여가활동 욕구 증대에 비하여 지역 내 여가활동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은 아직 없다.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개최 등 단속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단, 노인인구 대비, 지역규모 대비 노인복지관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노인복지관 확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의 적절한 활성화 방안에 대

4) 용인노인대학의 2012년 교육프로그램(안)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한 고민을 하고 있다. 경로당이 과잉설치 되었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의 경로당을 그 지역의 독거여성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파트지역의 확대에 따라 양질의 여가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갖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복지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 중이다.

2. 전라남도 목포시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전라남도 목포시는 서남권의 중심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2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 총면적은 50.08km²이며, 인구는 247,442명으로 집계되었다(인구밀도 km²당 4,940.9명). 2010년을 기준으로 한 목포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중 노인의 수는 25,134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목포시의 동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세대수 및 전체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상동, 옥암동, 부흥동으로 나타났다. 동별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유달동(20.5%), 목원동(19.2%), 죽교동(17.5%), 노인 인구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당 1동(2,218명), 목원동(2,197명), 상동(1,853명)이었다. 전체 인구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낮은 곳은 부흥동(4.7%), 옥암동(5.2%), 신흥동(6.2%)이었다. 목포시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혹은 전라남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5-32> 전라남도 목포시 각 동별 인구현황(2010년)

(단위: 명, %)

동별	세대 ¹⁾	총계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화율)
		전체	남	여	
전체	98,181	247,442	123,776	123,666	25,134(10.2)
용당1동	6,339	13,918	6,972	6,946	2,218(15.9)
용당2동	3,340	7,346	3,747	3,599	1,021(13.9)
연 동	3,230	6,925	3,526	3,399	1,195(17.3)
산정동	3,525	9,252	4,604	4,648	1,084(11.7)
연산동	2,151	6,364	3,185	3,179	538(8.6)
원산동	6,404	17,300	8,625	8,675	1,265(7.3)
대성동	1,783	3,758	1,899	1,859	615(16.5)
목원동	5,633	11,519	5,887	5,632	2,197(19.2)
동명동	3,745	8,143	4,233	3,910	1,275(15.8)
삼학동	2,702	7,209	3,615	3,594	736(10.3)
만호동	2,357	4,645	2,490	2,155	765(16.7)
유달동	3,653	7,341	3,784	3,557	1,490(20.5)
죽교동	2,316	4,989	2,570	2,419	851(17.5)
북향동	3,974	10,397	5,151	5,246	992(9.6)
용해동	5,796	15,527	7,668	7,859	1,315(8.5)
이로동	4,282	11,970	5,963	6,007	1,054(8.8)
상 동	7,826	20,470	9,958	10,512	1,853(9.2)
하당동	5,327	12,248	6,184	6,064	768(6.3)
신흥동	6,319	18,691	9,265	9,426	1,154(6.2)
삼향동	2,763	6,767	3,471	3,296	678(10.1)
옥암동	6,581	19,190	9,328	9,862	977(5.2)
부흥동	8,135	23,473	11,651	11,822	1,093(4.7)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2011).

주: 1) 외국인 세대수 제외

2) 최근 옥암동과 부흥동의 일부가 나와 23번째 동인 부주동으로 변경되었으나, 2011년 자료에는 부주동과 관련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2개동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목포시는 2012년 총 예산의 34.9%인 162,653,313원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하였다. <표 5-33>은 목포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예산 대비율 및 노인복지예산 대비율로 환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중 노인복지예산은 8.5%를 차지했는데(사회복지예산의 24.4%),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노인복지예산 중 6.3%에 해당하였다. 목포시 노인인구 비율이 10.2%임을 감안할 때, 20%대의 노인복지예산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목포시의 노인 1인당 평균 노인여가복지비용은 년 10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5-33> 전라남도 목포시 예산구성

(단위: 천원, %)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466,685,482	-	-	-
사회복지예산	162,653,313	34.9	-	-
노인복지예산	39,668,529	8.5	24.4	-
노인여가복지예산	2,503,284	0.5	1.5	6.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목포시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목포시의 여가복지는 총 168개소의 경로당과 4개소의 노인복지관, 12개소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011년 목포시 통계연보 및 목포시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경로당 개수는 164개소였는데, 2012년에는 4개소가 추가되어 16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정보는 2012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에 아래의 표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산출에 있어서 164개소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목포시의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1/3이상(36.1%)을 경로당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였고, 절반 이상(52.8%)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4>에 나타난 것처럼 노인교실에 배정된 예산은 2.9%, 기타 노인여가복지에 사용된 금액은 8.1%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목포시의 노인여가복지예산액 중에 노인복지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타 지역에서 경로당 예산이 노인복지관 예산 비율보다 많은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것처럼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각각의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살펴보면, 주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경로당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한 항목은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 개보수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었고 이는 전체 노인여가복지예산의 18.8%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는 전체 16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비용과 주부식비 사용이 각각 8.5%, 3.9%에 해당하였다.

노인복지관은 목포시에 있는 4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12~14%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대학(노인교실, 경로대학, 실버교실 등으로 불리기도 함)은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대한노인회나 종교단체, 지역문화센터의 자원을 빌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34>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경로당	인프라	경로당 신축		200,000	8.0
		경로당 부지매입(2개소)		170,000	6.8
		경로당 개보수		100,000	4.0
		합계		470,000	18.8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164개소)		213,480	8.5
		경로당 주부식비		98,400	3.9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8,000	0.7
			4대보험료	1,584	0.1
			퇴직적립금	1,500	0.1
		경로당 활성화 사업(1개기관)		20,000	0.8
		모범경로당 등 침구류 구입		1,000	0.0
		경로당 자산취득 관련 각종 수수료		150	0.0
		경로당 집기비품 구입		40,000	1.6
		경로당 건강 운동기구 구입		40,000	1.6
		합계		434,114	17.3
		총 합계		904,114	36.1
노인복지관	시설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참석자 수당		1,260	0.1	
	이랜드노인복지관 운영비		350,000	14.0	
	하나노인복지관 운영비		300,000	12.0	
	목포시노인복지관 운영비		300,000	12.0	
	하당노인복지관 운영비		320,000	12.8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24명)		21,360	0.9	
	냉난방시설설치 및 집기구입(목포시)		30,000	1.2	
	합계		1,322,620	52.8	
노인교실	노인회 실버 문화교실운영		9,000	0.4	
	경로대학 운영(13개소)		45,000	1.8	
	노인대학 야외학습		4,500	0.2	
	노인학교 운영	급식비	11,250	0.4	
		강사수당	3,500	0.1	
	합계		73,250	2.9	
기타 노인여가복지		203,300	8.1		
총 합계		2,503,284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다. 노인여가복지자원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자원현황

2012년 현재 목포시에는 4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있는 경로당 수는 168개소이다. 노인 교실은 12개로 파악되었다. 목포시는 유사한 인구규모나 재정자립도를 가진 타 도시에 비해 노인복지관의 수가 많은 편인데, 이 중 2개를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기업의 지원이 지역사회에서 큰 자원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목포시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시가 운영하는 노인 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로만 6억 이상을 사용하여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이 발달하였다. 노인복지관 중심의 여가복지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전에는 지역 내 경로당을 복지관 분관으로 지정하여 지역노인들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 점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거점형 노인여가센터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하여 현재 이 사업은 보류한 상태이다.

<표 5-35>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2012년)

(단위: 개소)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목포시	4	168	12

자료: 목포시청/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제공

<표 5-36> 전라남도 목포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시설수
2005	120	2	310,000	115	3
2006	143	2	372,000	135	3
2007	151	2	561,436	137	12
2008	157	3	561,436	144	11
2009	170	3	628,049	156	11
2010	176	3	432,000	162	11

자료: 목포시 통계연보(2011)

<표 5-37>은 목포시 전체의 경로당 수를 동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인데 옥암동, 원산동, 유달동, 상동, 부흥동에 경로당 수가 많았다. 노인 수와 동별 시설 수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어서, 동별 노인의 수가 가장 적은 연산동(538명)은 6개의 경로당이 있었고, 노인의 수가 615명인 대성동은 3개의 경로당이 위치해 있었다. 이를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의 수로 환산하여 보면, 연산동은 89명, 대성동은 205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37> 전라남도 목포시 동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동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용당1동	10	2,218	221.8
용당2동	2	1,021	510.5
연 동	6	1,195	199.2
산정동	7	1,084	154.9
연산동	6	538	89.7
원산동	12	1,265	105.4
대성동	3	615	205.0
목원동	8	2,197	274.6
동명동	4	1,275	318.8
삼학동	4	736	184.0
만호동	2	765	382.5
유달동	11	1,490	135.5
죽교동	3	851	283.7
북향동	6	992	165.3
용해동	5	1,315	263.0
이로동	6	1,054	175.7
상 동	11	1,853	168.5
하당동	7	768	109.7
신흥동	8	1,154	144.3
삼향동	9	678	75.3
옥암동	14	977	69.8
부흥동	11	1,093	99.4

자료: 목포시 시정백서·통계연보(2011)

주: 2012년 현재 경로당 수는 168개소 집계되지만, 2011년 자료는 22개동에 있는 164개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음.

2) 기관별 사업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현황

본 연구진은 목포시 전역에 있는 4개의 노인복지관 중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노인복지관 총 등록 회원 수는 4,733명이며, 2012년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2,707명, 여가프로그램 이용 노인 수는 1,110명으로 나타난다. 즉, 목포시 4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인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은 목포시 노인인구의 20%정도가 등록 회원이며, 목포 노인의 10%가량이 2012년 1회 이상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이용 노인 수는 전체 목포시 노인의 약 5%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되고 있다. 특히 건강증진과 여가를 합친 각종 댄스수업이 활성화 되어있고, 악기나 컴퓨터, 어학수업은 참여자들의 단계에 맞게 초급·중급, 입문 회화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 형태의 프로그램 외에도 수업을 이수하였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동아리 활동(기타, 하모니카, POP 손글씨, 서예, 당구)을 하는 영역도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공간 및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규 프로그램 시간표에 포함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특히 기타동아리와 POP 손글씨 동아리는 인근 지역의 학생들과 통합하여 운영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1~3세대가 함께 공연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 있는 여가 복지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것으로는 요가, 건강체조, 문화댄스가 5위 안에 자리매김하였고, 이외에는 노래교실과 실용영어회화가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들 인기프로그램을 성별로 나누어보면 선호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남성 노인들 사이에선 장기바둑, 문화댄스, 교양한문이, 여성노인들 사이에선 요가, 건강체조, 노래교실이 인기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60~70대 이용자들 사이에서 건강체조, 요가, 라인댄스와 같이 건강 증진 및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았다면, 80대 이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과 식당이용이었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대별로 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선호도 및 욕구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5-38>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2012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

건강체조	포크댄스	한국무용	오카리나
요가	발란스요가	에어로빅	하모니카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노래교실	한자
라인댄스	필라테스	기타	한문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글
서예	사진	예쁜손글씨 (POP)	동양화
동화구연	수채화	컴퓨터	인터넷
탁구	종이공예	연극	

자료: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 경로당 관련 사업

목포시에는 총 168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이 중에서 72개소는 주택형 경로당, 96개소는 아파트형 경로당으로 나뉘어 있다. 평균적으로 한 경로당마다 1~2개의 여가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여가 프로그램이 모든 경로당에 다 제공되기는 어렵기에 한번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던 곳은 다음 해에는 쉬고 격년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현재 대한노인회 목포시 지회에서 경로당을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체육회,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 지회 면담결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적 욕구로는 활동적인 것보다 간단하게 앉아서 하는 율동이나 노래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노래교실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형 경로당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아파트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주택형 경로당은 회원 구성에 따라 갈등이 커지기도 하고, 경로당 회장이 바뀔 때마다 운영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외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전통놀이문화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투호, 환궁 등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경로당에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를 나누어 배분 지원 하다보니 각 경로당별로 한 달에 1~2회 정도로 사업 참여 횟수에 제한이 생긴다.

<표 5-39>는 목포시 내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종류를 보여준다. 목포시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전체 경로당 168개소 중 24개소에 실시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민요, 가을나들이, 영화 상영, 생신잔치 등 여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지만, 치매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등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연중 진행되기보다는 정해진 달에만 제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5-39> 전라남도 목포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제공기관
1	민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킴으로서 삶의 질 향상	1~3월	자원봉사자
2	건강체크/파라핀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법을 습득하고,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도모	11~12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3	생활체조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의 향상을 유도하고, 정서·심리적 건강과 자신감 향상	1~12월	목포시 생활체육협회
4	노인자원봉사(환경지킴이)	경로당의 자조활동 능력을 강화시키고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조직을 결성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환경인식 개선	1~12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5	가을나들이	경로당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추진	10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6	이동시네마	영화관람을 통해 여가 및 친목을 도모하고 문화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9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7	가요교실	여가선용 및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삶의 질 제고	12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8	치매검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12월	목포시 보건소
9	생신잔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축하하고,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	5월 12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10	9988교실	어르신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건강교육 및 건강체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	2월	목포시 보건소
11	임원리더십 프로그램	역량을 강화하여, 경로당의 자조적 활동능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	1~12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12	설맞이 떡국한 그릇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소외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	1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13	만났데이	어르신들의 피부에 영양을 주고 가을철 피부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	10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14	식중독 예방교육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노인 건강증진 및 깨끗한 위생관리 습관을 갖게 하고자 함	8월	목포시 노인복지관

자료: 목포시청 제공

(3) 노인교실 관련 사업

목포시 전역에 걸쳐 2012년 현재 12개소의 노인교실이 열리고 있다. 이 중 종교 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한노인회가 담당하는 노인교실도 있다. 이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강생이 70명대에 이르는 경로대학(유달 경로대학, 대한적십자사 목포봉사관 노인대학)부터 600명 이상인 큰 규모의 노인교실도 3개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목포시 노인교실의 예시로 살펴보았다. 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이 열리는 곳은 목포시노인복지관 3층으로, 복지관에 모이는 사람들과 노인대학 수강생들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다. 참가하는 노인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경로당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된다. 매년 130명에서 150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하고, 연초에 신청한 사람이 1년 동안 수업을 듣게 되므로 중도에 수강생이 바뀌는 경우가 적다. 노인대학 입학금은 3만원으로 수강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 수업 스케줄은 9월~12월, 3월~6월로 해당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에 수업이 열린다.

아래의 표는 2012년 9월~12월 사이의 노인대학 교육과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전문가이거나 여가지도가 가능한 강사들로 노인복지관, 목포시 가정복지과, 한방병원, 전라남도의회, 건강보험 관리공단, 목포경찰서, 전남약사회, 목포문화원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초청하여 수업하는 형태이다.

<표 5-40> 노인대학 프로그램 예시: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월	일	강의주제
9	13	노인의 사회참여/뇌내혁명
	20	웃음의 과학/싱싱가요
	27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싱싱가요
10	4	뇌졸중의 한양방협진/싱싱가요
	11	도정보고/생활요가
	18	노인과 사회도덕/생활요가
	25	약물오남용방지/싱싱가요
11	1	소풍
	8	노인과 건강보험/싱싱가요
	15	목포시의회 의장님께 듣는다/싱싱가요
	22	목포시의 미래/싱싱가요
	29	노인과 인터넷/국악판소리
12	6	노인의 사명/수료식

자료: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제공(2012. 9)

라. 목포시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시사점

목포시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여가복지프로그램이 발달되어있는 형태이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다양하고 질 높은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연령대가 높고 외출 시 이동거리가 짧으며,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지역 내 경로당이 여가복지 제공 장소가 된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개발하여 연결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만으로는 수요를 다 채울 수 없는 실정이다. 여가지도사 발굴, 노래교실·체조교실과 같이 인기가 많은 영역의 강사파견 확대, 건강 영역 중심의 경로당 프로그램 발굴에서 나아가 여가 및 문화체험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현재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1~3세대를 아우르는 동호회 형식의 여가복지프로그램을 다른 영역에 확대해보는 것도 시도해볼만하다. 노인복지관처럼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닌 곳(병원, 종교단체, 학교 등)에서도 세대 간 교류 및 활동영역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원들을 누가 총괄하여 연계하는지가 관건인데, 대한노인회, 시 지원의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대학, 노인복지관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 및 영역에 구애받지 말고, 정보 공유, 자원 발굴, 재원확보에 공통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목포시 외의 다른 지역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3절 농촌형 사례지역

1. 충청남도 예산군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충남 예산군은 2읍 10면 177리(법정)/304리(행정) 1,192반의 행정구역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이다. 충남 예산군은 대전, 천안과 자동차 1시간 이내의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도 자동차 2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차 산업은 22.9%, 2차 산업은 21.5%, 3차 산업은 55.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의 총면적은 542.23km²이며, 인구는 88,228명으로 162.7명/km²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현재 충남 예산군의 노인인구는 19,14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이다. 읍·면별로는 군 소재지가 위치한 예산읍에 전체 인구의 43%가 거주하며, 예산 전체 노인 중 26.5%가 거주하고 있다. 예산읍은 타 읍면에 비해 거주 인구와 노인 인구수가 많지만, 고령화율은 13.4%로 타 읍면에 비해 높지 않다. 예산면을 제외한 타 읍·면은 고령화율이 20%를 넘었으며, 덕산면과 오가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20%후반이며, 면단위에서 30%를 넘는 곳도 상당수 있다.

<표 5-41>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별 인구규모(2010년)

(단위: 명, %)

읍·면별	세대 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화율)
		계	남	여	
전 체	36,454	88,288	44,453	43,775	19,140(21.7)
예산읍	15,117	37,989	18,874	19,115	5,080(13.4)
삽교읍	3,497	8,448	4,221	4,227	2,324(27.5)
대술면	1,349	3,098	1,614	1,484	922(29.8)
신양면	1,552	3,642	1,796	1,846	1,170(32.1)
광시면	1,699	3,753	1,850	1,903	1,364(36.3)
대흥면	931	2,097	1,057	1,040	649(30.9)
응봉면	1,272	3,015	1,562	1,453	816(27.1)
덕산면	3,158	7,286	3,586	3,700	1,594(21.9)
봉산면	1,274	3,000	1,547	1,453	940(31.3)
고덕면	2,301	5,666	2,936	2,730	1,636(28.9)
신암면	1,974	4,498	2,349	2,149	1,254(27.9)
오가면	2,330	5,736	3,061	2,675	1,391(24.3)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2011)

주: 1) 외국인 세대수 제외

충남 예산군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1~14세는 11.7%, 15~64세는 65.7%이며, 이들 중 23.7%는 50~64세의 중년층으로 구성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2.3%이며, 이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4.3%로 나타났다. 현재의 고령화율도 높지만 중년층의 비중이 높아 가까운 미래의 고령화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42> 충청남도 예산군 연령별 인구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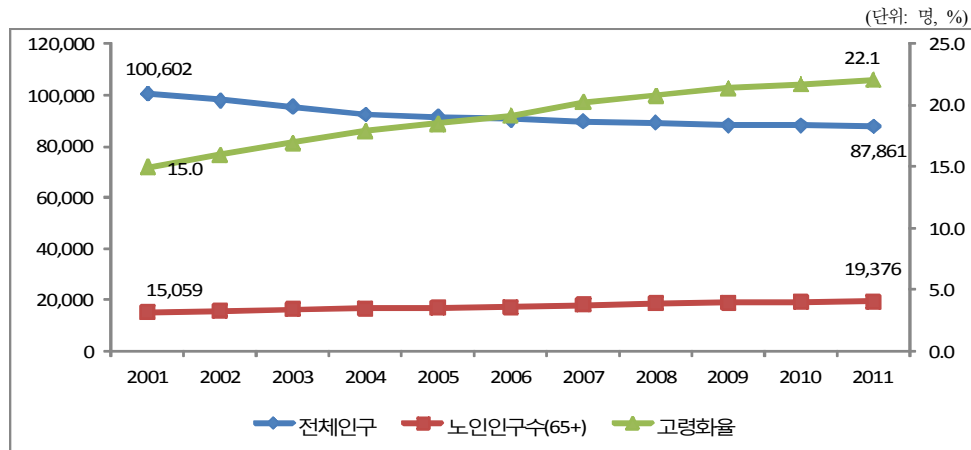
(단위: 명, %)

년도	총계			총 인구 대비 연령별 인구
	인구	남	여	
계	86,421	43,335	43,086	
0~4세	2,798	1,472	1,326	3.2
5~9세	2,982	1,508	1,474	3.5
10~14세	4,338	2,252	2,086	5.0
15~19세	5,141	2,689	2,452	5.9
20~24세	4,692	2,597	2,095	5.4
25~29세	4,622	2,667	1,955	5.3
30~34세	4,433	2,430	2,003	5.1
35~39세	5,232	2,857	2,375	6.1
40~44세	6,087	3,329	2,758	7.0
45~49세	6,247	3,281	2,966	7.2
50~54세	7,890	3,943	3,947	9.1
55~59세	6,746	3,403	3,343	7.8
60~64세	5,837	2,865	2,972	6.8
65~69세	5,283	2,405	2,878	6.1
70~74세	5,645	2,480	3,165	6.5
75~79세	4,704	1,942	2,762	5.4
80~84세	2,271	820	1,451	2.6
85~89세	1,017	302	715	1.2
90~94세	354	74	280	0.4
95~99세	82	19	63	0.1
100세 이상	20	0	20	0.0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2011), 주민등록인구통계(2011)

충남 예산의 과거 10년간의 인구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 전체 인구는 100,602명이며 2005년 91,452명, 2010년 88,228명, 2011년 87,861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1년 15,059명에서 2005년 16,897명, 2010년 19,140명, 2011년 19,37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율도 2001년 15.0%에서 2011년 22.1%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5-1] 과거 10년간 인구 수 및 고령화율의 변화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2011), 주민등록인구통계(2011)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충남 예산군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충청남도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의 맥락에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거점 경로당으로 행복경로당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관(1시군 1복지관 신축)을 중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오지마을 노인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산간오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은 1개소의 노인복지관과 350개소의 경로당, 2개소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 노인 여가복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8.4%이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31.8%이다. 예산군의 노인비율이 약 21%와 비교할 때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러나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9.6%이다.

노인복지예산을 노인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노인 1인당 년 약 1,010천원이며, 노인여가복지사업은 노인 1인당 년 약 97천원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충남 예산의 노인 1인당 여가복지는 월 8만원 수준이다.

<표 5-4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구성

(단위: 천원, %)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330,000,000	-	-	-
사회복지예산	60,757,784	18.4	-	-
노인복지예산	19,342,658	5.9	31.8	-
노인여가복지예산	1,863,959	0.6	3.1	9.6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예산군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경로당 관련 예산은 노인여가복지전체 예산 중 79.3%이며,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은 18.2%로 두 종류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로당 사업은 시설 개보수와 신축, 리모델링 사업이 22.9%이며,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51.8%, 프로그램 지원은 4.5%로 경로당 사업의 상당수가 프로그램보다는 시설 유지에 투입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이 2.1%, 복지관 운영비가 16.1%로 나타났다.

<표 5-44>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 예산(2012년)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 예산대비비율
경로당	인프라	경로당개보수사업	200,000	10.7
		경로당신축	60,000	3.2
		경로당리모델링사업	18,000	1.0
		행복경로당증개축	150,000	8.0
		합계	428,000	22.9
	운영 지원	경로당난방비지원	528,000	28.3
		경로당소요물품지원	68,000	3.6
		경로당운영비지원	295,680	15.9
		경로당운영지원	21,600	1.2
		행복경로당프로그램 운영	36,000	1.9
		경로당노년시대구독료지원	17,385	0.9
		합계	966,665	51.8
	프로 그램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31,547	1.7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보급	34,770	1.9
		노인여가프로그램교구보급	9,800	0.5
		모범경로당인센티브제공	4,000	0.2
		노인지도자양성과정운영	3,477	0.2
		합계	83,594	4.5
	총 합계		1,478,259	79.3
노인 복지관	인프라	복지회관개보수	20,000	1.1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사업	18,700	1.0
		합계	38,700	2.1
	프로 그램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	300,000	16.1
		총 합계		338,700
노인교실		노인대학운영비	18,000	1.0
기타 노인여가복지			29,000	1.6
총 합계			1,863,959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다. 노인여가복지자원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자원현황

충남 예산군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이 있다. 노인복지관은 예산읍에 1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은 352개소, 노인교실은 2개소가 있다.

<표 5-45>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예산군	1	352	2 ¹⁾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 1) 보건복지부시설현황에 의하면 충남 예산군의 노인교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사례지역 방문 시 2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군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최근 5년간 경로당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 5-46> 충청남도 예산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시설수
2007	331	1	150	328	2
2008	342	1	1,866	339	2
2009	349	1	2,300	346	2
2010	353	1	2,500	350	2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2011)

충남 예산에서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문지

식 및 기능을 가진 퇴직자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188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다. 이들의 활동내용은 문해교육, 역사문화해설, 학생 공부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원에서는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모인: 실버세대의 동영상 프로그램 익힘’ 등을 운영 중이다.

2) 기관별 사업 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충남 예산의 노인복지관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1,500명이며,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수는 570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 수(회원 수)는 523명이며, 1일 평균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노인 수는 320명으로 나타난다.

충남 예산의 노인복지관은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읍·면별 이용자 분포를 살펴보면, 예산읍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의 61.0%가 예산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별 노인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예산읍이 6.3%로 가장 높으며, 대흥면이 4.3%, 그 이외의 읍·면은 1% 내외로 나타났다. 즉, 충남 예산군에 1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지역의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관이 위치한 예산군에 집중되고 있다.

<표 5-47> 충청남도 예산군 읍·면별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수 및 노인인구대비 비율

(단위: 명, %)

읍·면별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19,140	523	2.7
예산읍	5,080	319	6.3
삽교읍	2,324	31	1.3
대술면	922	13	1.4
신양면	1,170	11	0.9
광시면	1,364	17	1.2
대흥면	649	28	4.3
응봉면	816	9	1.1
덕산면	1,594	29	1.8
봉산면	940	11	1.2
고덕면	1,636	16	1.0
신암면	1,254	17	1.4
오가면	1,391	22	1.6

자료: 예산군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1주 평균 노인 복지관 이용일수는 평균 3일이며, 노인 1인당 평균 등록 강좌 수는 3강좌로 나타났다. 이용노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70~74세, 75~79세에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80~84세 이용자의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8>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65세미만	33	80~84	63
65~69	92	85~89	16
70~74	162	90세 이상	2
75~79	155		

자료: 예산군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012년 충남 예산군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5-49>와 같이 학습, 노래교실, 악기, 건강체조(운동),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이와 같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교육적 측면 보다는 여가문화활동 형태의 프로그램이 중점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

<표 5-49>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 리스트

우리말교실	중국어	풍수지리	스포츠댄스 초급
영어	한문교실	건강태극권초급	스포츠 댄스 중급
일본어	한학	건강태극권 중급	커플댄스
노래교실	건강체조	요가	웃음교실
국악초급	국악중급	라인댄스	통기타초급
통기타 중급	사물놀이 초급	사물놀이 중급	서예1반
서예2반	서예3반	한글서예 1반	한글서예 2반
사군·화조·산수 1반	사군·화조·산수 2반	윈도우 1반	윈도우 2반
인터넷초급 1반	인터넷초급 2반	인터넷중급 1반	인터넷 중급 2
인터넷 중급 3반	IT경진대비반	탁구(화)	탁구(목)
선합창단	오카리나 초급	오카리나 중급	문화탐방

자료: 예산군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를 살펴보면, <표 5-50>과 같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수를 달리하며,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0>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우리말교실	20	풍수지리	30
영어	20	건강태극권초급	40
일본어	20	건강태극권 중급	20
노래교실	80	요가	30
국악초급	30	라인댄스	50
통기타 중급	10	사물놀이 중급	30
서예2반	17	한글서예 1반	13
사군·화조·산수 1반	10	윈도우 1반	12
인터넷초급 1반	12	인터넷중급 1반	12
인터넷 중급 3반	12	탁구(화)	20
선합창단	30	오카리나 중급	30
중국어	25	스포츠댄스 초급	40
한문교실	20	스포츠 댄스 중급	40
한학	30	커플댄스	24
건강체조	60	웃음교실	50
국악중급	30	통기타초급	10
사물놀이 초급	30	서예1반	17

구분	인원	구분	인원
서예3반	17	한글서예 2반	13
사군·화조·산수 2반	10	윈도우 2반	12
인터넷초급 2반	12	인터넷 중급 2	12
IT경진대비반	12	탁구(목)	20
오카리나 초급	15	문화탐방	30

자료: 예산군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충남 예산군 노인복지관에서의 인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위가 건강체조, 문화탐방,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정보화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문화탐방과 정보화교육, 서예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 노인은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정보화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70대는 정보화교육, 건강체조, 사물놀이를 선호하는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건강체조, 문화탐방, 서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당 관련 사업

충남 예산의 노인여가복지사업예산의 상당부분이 경로당 관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개소 경로당별로 월 6만원씩 년 72만원이 지원되며, 난방비는 반기 당 45만원이 지원되어 년 90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1개소 당 년 162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5-51> 충청남도 예산군 각 읍·면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읍·면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예산읍	59	5,080	86.1
삽교읍	37	2,324	62.8
대술면	20	922	46.1
신양면	27	1,170	43.3
광시면	27	1,364	50.5
대흥면	18	649	36.1

읍·면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응봉면	21	816	38.9
덕산면	32	1,594	49.8
봉산면	24	940	39.2
고덕면	32	1,636	51.1
신암면	24	1,254	52.3
오가면	29	1,391	48.0

자료: 예산군 통계연보(2011)

충남 예산군에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명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지역 내 350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56개소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다.

1주일에 2회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지역 내의 생활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를 연계해 주는 역할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맡아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활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에 대한 파악과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로당에 프로그램 자원봉사단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다양한 학습을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산을 비롯한 충남에서는 거점 경로당 모델로서 ‘행복경로당’ 운영 중이며, 면단위로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현재 6개소의 행복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건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복경로당에서는 주 1회 식사제공과 연중 프로그램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소규모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계획되고 있다.

(3) 노인교실(대학) 사업

충남 예산의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3~12월(총 39주 과정)까지 주 1회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교실의 프로그램은 스포츠댄스, 신바람노래교실, 교양강좌, 사물놀이 동아리 등으로 다수의 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중으로, 사업비는 연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4)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충남 예산군의 경로당에 대한 주요 사업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경로당 관리 및 프로그램 사업과 행복경로당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노인보건복지지침에 의한 노인복지관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이 기본사업으로 지정되어있음으로 인해 예산군 노인복지관에서도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예산군 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은 1년에 경로당 3~4개소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정서지원 서비스(우울증 검사, 미술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적 접근), 여가지원 프로그램(노래교실 및 레크리에이션), 건강증진 프로그램(단학기공체조, 재활운동, 건강도우미), 자조집단 프로그램(생신잔치, 영화 상영, 임원 리더십 교육, 노래한마당, 평가회)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그 내용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실시하고 있는 강사과견형 프로그램과 큰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빈도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초기 예상했던 경로당의 자립 강화를 위한 목적 달성은 이루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충남 예산군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개선사항

충남 예산군은 인구 약 9만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고령화율은 높으나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사업은 1개소의 노인복지관과 350개소의 경로당,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은 시설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 예산읍 지역에 집중되며 그 이외의 읍·면지역에서의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군의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관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리적 한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강사비, 프로그램비 지원이 부족하여 더 많은 경로당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관의 여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충남 예산군은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운영주체인 대한노인회 지회가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과 노인교실 이용노인 간의 중복 이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향후 충남 예산군의 노인여가복지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경로당 관련 사업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역할을 일원화하여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경로당과 관련된 지원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와 관리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 예산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중적인 여가프로그램에 대해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분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교실은 주 1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읍이 아닌 타 읍·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행복경로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추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보다 고급화된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산군 차원에서 마련

하기 보다는 충청남도 수준에서 대학과의 MOU체결을 통해 도내 노인들의 학술적, 그리고 배움 욕구 충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개별 강좌 등록제 등의 도입이 된다면 다양한 수준의 노인여가문화를 위한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경상북도 의성군

가. 인구 및 지역 일반특성

경북 의성군은 1읍 17면 400리 1,545반의 행정구역으로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이다. 경북 의성군은 영남지방으로서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은 안동시와 예천군에 접하고, 동쪽은 청송군, 남쪽은 군위군과 구미시, 서쪽은 상주시와 인접하고 있다. 의성군이 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도내 시·군과는 직선거리가 울진군을 제외하면 모두가 80k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차 산업은 36%, 2차 산업은 8%, 3차 산업은 56%의 비율을 나타내며, 의성군의 전체면적은 1,176.6km²이고, 경상북도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59,422명으로 50.5명/km²의 인구밀도이며 2010년 현재 경북 의성군의 노인인구는 18,655명으로 전체 인구 중 31.4%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이다.

읍·면별로는 군 소재지가 위치한 의성읍에 전체 인구의 25.0%가 거주하며, 의성 전체 노인 중 15.3%가 거주하고 있다. 의성읍은 타 읍·면에 비해 거주 인구와 노인 인구수가 많지만, 고령화율은 19.2%로 타 읍면에 비해 높지 않다. 의성읍을 제외한 타 읍·면은 대부분 고령화율이 30%를 넘었으며, 면단위에서 50%인 곳도 있다.

<표 5-52> 경상북도 의성군 각 읍·면별 인구현황

(단위: 명, %)

읍·면별	세대 ¹⁾	총계			한국인			노인수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27,479	59,422	29,154	30,268	58,832	26,404	29,947	18,655(31.4)
의성읍	6,221	14,833	7,325	7,508	14,730	7,269	7,461	2,855(19.2)
단촌면	1,110	2,332	1,172	1,160	2,306	1,162	1,144	836(35.8)
점곡면	963	1,978	972	1,006	1,978	972	1,006	727(36.8)
옥산면	1,004	2,197	1,088	1,109	2,182	1,088	1,094	741(33.7)
사곡면	899	1,807	867	940	1,785	853	932	749(41.4)
춘산면	785	1,757	867	890	1,742	867	875	569(32.4)
가음면	785	1,757	867	890	1,625	811	814	599(34.1)
금성면	2,425	5,039	2,494	2,545	5,007	2,48	2,526	1,747(34.7)
봉양면	1,930	4,219	2,070	2,149	4,133	2,013	2,120	1,264(30.0)
비안면	1,411	2,783	1,332	1,451	2,779	1,330	1,449	1,071(38.5)
구철면	986	2,053	990	1,063	2,041	988	1,053	780(38.0)
단밀면	1,027	2,206	1,098	1,108	2,179	1,080	1,099	841(38.1)
단북면	1,029	2,163	1,075	1,088	2,149	1,069	1,080	802(37.1)
안계면	2,326	5,171	2,471	2,700	5,151	2,465	2,686	1,429(27.6)
다인면	2,271	4,775	2,342	2,433	4,732	2,317	2,415	1,729(36.2)
신평면	493	920	449	471	917	449	468	460(50.0)
안평면	1,237	2,424	1,201	1,223	2,397	1,198	1,199	1,001(41.3)
안사면	577	1,008	474	534	999	473	526	455(45.1)

자료: 의성군 통계연보(2011)

주: 1) 외국인 세대수 제외

나. 노인여가복지 정책 및 예산

경북 의성군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여가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의성건강복지타운’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사업으로 고령자가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통합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북 의성에서의 노인 여가복지정책은 3개소의 노인복지관과 421개소의 경로당, 1개소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노인여가복지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의성군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은 15.3%이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56.9%이다. 그러나 경북 의성군의 2012년은 특수하게 건강복지타운 조성의 비경상적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경상적 예산을 고려하면 이의 비율은 변화한다. 건강복지타운 조성비용을 제외한 경상적 복지 예산을 고려한 2012년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4.6%이며,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은 54.5%,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여가복지예산은 8.8%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예산을 노인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노인 1인당 년 약 1,869천원이며, 노인여가복지사업은 노인 1인당 년 약 320천원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즉, 경북 의성의 노인 1인당 여가복지는 월 26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비경상적 예산을 제외하고 경상적 예산만을 고려하면 148천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53> 경상북도 의성군 예산구성(2012년)

(단위: 천원, %)

	금액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대비
총예산	400,610,000	-	-	-
사회복지예산	61,275,645	15.3(14.6)	-	-
노인복지예산	34,868,886	8.7(8.0)	56.9(54.5)	-
노인여가복지예산	5,977,497	1.5(0.7)	9.8(4.8)	17.1(8.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2012년도 의성군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주: () 안의 값은 의성건강복지타운관련 예산을 제외한 비율임.

<표 5-54>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금액	노인여가복지예산대비	
				건강복지타운 포함예산대비	건강복지타운 제외예산대비
경로당	인프라	의성도동2리공원부지확장매입비	90,000	1.5	3.2
		경로당신축	210,000	3.5	7.6
		신평면중율2리경로당신축	90,000	1.5	3.2
		경로당개보수	300,000	5.0	10.8
		합계	690,000	11.5	24.8
	프로 그램	경로당특별연료비(496개소)	390,837	6.5	14.1
		경로당운영지원(496개소)	578,860	9.7	20.8
		경로당활성화사업(2개소)	40,000	0.7	1.4
		노인여가시설소식지구독	12,250	0.2	0.4
		모범경로당방문기념사진	400	0.0	0.0
		경로당가스안전점검수수료	1,050	0.0	0.0
		경로당전기안전점검수수료	7,650	0.1	0.3
		노인여가시설이전수수료	1,000	0.0	0.0
		경로당건강증진기구수리	5,000	0.1	0.2
		미등록경로당운영비(난방비)지원	48,800	0.8	1.8
		모범경로당시상	1,750	0.0	0.1
		경로당건강기구및에너지고효율 제품설치	45,000	0.8	1.6
		합계	1,132,597	18.9	40.8
	총 합계		1,822,597	30.5	65.6
노인복지관	인프라	의성군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 (옥상방수공사)	20,000	0.3	0.7
		금성노인복지관증축실시설계비	30,000	0.5	1.1
		합계	50,000	0.8	1.8
	프로 그램	의성군노인복지관위탁운영비	350,000	5.9	12.6
		의성군노인복지관안계분관위탁 운영비	170,000	2.8	6.1
		금성노인복지관위탁운영비	330,000	5.5	11.9
		합계	850,000	14.2	30.6
	총 합계		900,000	15.1	32.4
노인교실	노인교실운영비(1개소)	3,000	0.1	0.1	
기타 노인여가복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3,200,000	53.5	-	
	실버자원봉사단 운영(5개소)	7,000	0.1	0.3	
	노인문화활동 지원	19,000	0.3	0.7	
	노인행사	25,900	0.4	0.9	
총 합계			5,977,497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2012)

노인여가복지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경로당 관련 예산은 30.5%이고, 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은 15.1%로 두 종류의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5.6%로 전체 예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경로당 사업은 시설 개보수와 신축사업이 11.5%이며,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약 18%, 프로그램 지원은 약 1%로 경로당 사업의 상당수가 프로그램보다는 시설을 유지하는 것에 투입되고 있다.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기능보강사업 및 증축이 0.8%, 위탁운영비가 14.2%로 나타났다.

의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은 3,200,000천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는 여가문화와 건강 등의 사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여가사업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의성군의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제외한 경상적인 노인여가복지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노인여가복지예산은 2,777,497천원이며, 이중 경로당 관련사업의 비중은 65.6%, 노인복지관 관련 사업은 32.4%로 나타났다.

다. 노인여가복지자원현황

1) 노인 여가복지 자원현황

경북 의성군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의성읍, 안계면, 금성면에 각각 1개소씩 있으며, 경로당은 421개소, 노인교실은 1개소 운영 중이다.

<표 5-55>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의성군	3	421	1

자료: 의성군 통계연보(2011)

의성군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은 최근 5년간 경로당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관은 1개소가 늘었고 노인교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표 5-56> 경상북도 의성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증가추이 현황

(단위: 개소, 명)

연별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시설수	이용인원	시설수	시설수
2006	477	2	200	475	-
2007	482	2	280	479	1
2008	486	2	320	483	1
2009	490	2	320	487	1
2010	425	3	320	421	1(봉양면)

자료: 의성군 통계연보(2011)

2) 기관별 사업 현황

(1)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

경북 의성군은 3개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있다. 이중 금성면에 위치한 금성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경북 의성군에 위치하고 있는 금성노인복지관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 1회 이상 이용한 회원 수는 약 535명이며, 1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 수는 100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 수(회원 수)는 438명이며 1일 평균 여가복지프로그램 이용 노인 수는 88명으로 나타난다.

금성노인복지관은 의성군 금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읍·면별 이용자 분포를 보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에 거주하는 노인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의 81.7%가 금성면에 거주하는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읍·면별 노인 인구수 대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금성면이 20.5%로 가장 높으며, 가음면이 7.8%, 춘산면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적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금성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성군에는 분관을 포함하여 3개의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이용 경계가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표 5-57> 경상북도 의성군 읍·면별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수 및 노인인구대비 비율

(단위: 명, %)

읍·면별	65세 이상 고령자	노인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이용자	비율
의성읍	2,855	-	-
단촌면	836	-	-
점곡면	727	-	-
옥산면	741	-	-
사곡면	749	-	-
춘산면	569	33	5.8
가음면	599	47	7.8
금성면	1,747	358	20.5
봉양면	1,264	-	-
비안면	1,071	-	-
구천면	780	-	-
단밀면	841	-	-
단북면	802	-	-
안계면	1,429	-	-
다인면	1,729	-	-
신평면	460	-	-
안평면	1,001	-	-
안사면	455	-	-

자료: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여가프로그램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1주 평균 노인복지관 이용일수는 평균 3일이며, 노인 1인당 평균 등록 강좌 수는 2~3강좌로 나타났다. 이용노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70~74세, 65~69세에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80~84세 이용자의 비중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58> 여가프로그램 이용노인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인원	구분	인원
65세미만	46	80~84	40
65~69	119	85~89	8
70~74	154	90세 이상	2
75~79	69		

자료: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012년 경북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5-59>와 같이 크게 평생교육지원사업, 취미여가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한글교실, 한문교실, 영어교실, 일어교실, 요가교실, 풍물교시 등의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이와 같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교육적인 측면과 더불어 여가문화활동의 형태가 함께 실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59>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 리스트

한글교실	서예기초교실	요가교실
한문기초교실	서예중급교실	풍물교실
한문중급교실	탁구교실	단전호흡
영어교실	댄스스포츠	워킹댄스
일어교실	장구, 민요교실	하모니카
가요교실	풍수지리	

자료: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를 살펴보면, <표 5-60>과 같으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수를 달리하며, 가요교실을 제외하고는 대규모보다 소규모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0> 2012년 여가복지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수

(단위: 명)

구분	인원
한글교실	15
한문기초교실	15
한문중급교실	15
영어교실	15
일어교실	15
가요교실	100
서예기초교실	16
서예중급교실	16
탁구교실	10

구분	인원
댄스스포츠	30
장구, 민요교실	30
풍수지리	16
요가교실	35
풍물교실	30
단전호흡	30
워킹댄스	30
하모니카	20

자료: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경북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에서의 인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위가 가요교실, 요가교실, 워킹댄스, 풍수지리, 서예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서예교실과 풍수지리, 탁구교실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 노인은 가요교실, 요가교실, 워킹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70대는 한글교실, 일어교실, 탁구, 풍수지리, 댄스스포츠 등을 선호하는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가요교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당 관련 사업

경로당 관련 사업 전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시설유지에 투입되고 있었는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1개소 당 한 달에 약 10만원씩 년 13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특별 연료비로 년 8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다. 즉, 경로당 1개소 당 년 2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표 5-61> 경상북도 의성군 각 읍·면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소, 명)

읍·면별	시설수	노인수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의성읍	32	2,855	89.2
단촌면	16	836	52.3
점곡면	19	727	38.3
옥산면	16	741	46.3
사곡면	21	749	35.7
춘산면	20	569	28.5
가음면	20	599	30.0
금성면	36	1,747	48.5
봉양면	27	1,264	46.8
비안면	27	1,071	39.7
구천면	25	780	31.2
단밀면	20	841	42.1
단북면	19	802	42.2
안계면	25	1,429	57.2
다인면	45	1,729	38.4
신평면	12	460	38.3
안평면	27	1,001	37.1
안사면	14	455	32.5

자료: 의성군 통계연보(2011)

경북 의성군에서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명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해당 지역 내 421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9개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주일에 2~3회 정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다.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게이트볼, 경로당수익사업(텃밭 가꾸기), 꽃길 조성 등이 있다.

(3) 노인교실(대학) 사업

경북 의성군의 노인교실은 평생교육진흥회에서 운영 중이며, 월 1회 수업을 실시

하고 있다. 학기 구성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개월씩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0월에 이루어진다. 노인교실의 프로그램으로 노인관련 상담, 교양프로그램, 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군으로부터 3,000천원의 보조금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다.

(4) 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북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에서는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지역 중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혁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년 1회 경로당을 모집하는데 해당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방문 및 선정, 협약서 작성, 프로그램 실시, 평가의 절차를 거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물리치료, 취미여가교실, 생신상차리기, 율놀이, 야외나들이 등이 있다.

라. 경북 의성군 노인여가복지의 특성 및 개선사항

경북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노인여가복지사업은 3개소의 노인복지관과 421개소의 경로당, 1개소의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이용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용 상태를 살펴보면 금성면, 가음면, 춘산면 지역으로 이용 노인이 집중되어있다. 그 이외의 읍·면지역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편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한계로 노인복지관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충족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한 타 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게 읍·면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보다 많은 경로당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인교실은 월 1회 정도의 수업 진행으로 수강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월 1회 수업은 교육적 목적이기보다는 다분히 시간 보내기 식의 여가활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수강자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설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성군의 경우 노인교실은 1개소이나 노인대학이 18개소가 있으므로 노인교실(대학) 성격의 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한다.

향후 경북 의성군의 노인여가복지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로당 관련 사업을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 사업,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역할, 그 외에 경로당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여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경로당 관련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인프라와 운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음을 볼 수 있는데 추후 경로당 예산편성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노인교실의 경우 수강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기존의 타 노인대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노인교실만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노인여가복지보다는 좀 더 고급화된 여가욕구 충족을 위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성군에서는 은퇴노인복지촌과 실버문화복지관 건립,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지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역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노인여가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제4절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 사례 비교

노인여가복지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 특성별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각 2개 지역씩 총 6개 지역의

여가복지현황을 파악하였다.

대도시형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광주광역시 북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구는 351,026명이며, 노인 인구수는 22,563명으로 고령화율은 6.4%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인여가복지정책으로 1개의 노인복지관과 3개의 노인문화센터, 145개의 경로당, 5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 특성은 노인의 여가복지욕구 수준에 따른 인프라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즉, 경로당 - 노인교실 - 노인문화센터 - 노인복지관 - 광역단위의 노인종합문화센터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단일화를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경로당 혁신사업)를 통합·운영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174,151명의 인구규모를 갖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9.0%로 다른 구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3개의 노인복지관과 365개의 경로당, 20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 특성은 노인여가복지 이외의 다양한 노인복지자원을 타운형태로 집중화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관리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다.

중소도시형의 사례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와 전남 목포시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용인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총인구는 891,708명으로 이 중 8.5%인 75,827명이 65세 이상이다. 노인여가복지기관은 2개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723개의 경로당, 9개의 노인교실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 특성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노인여가복지대응형태를 갖고 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한 경로당 관리의 우수성이 나타났으나, 도시지역의 노인복지관 이용욕구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특성을 보였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서남권의 중심항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2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구는 247,442명으로 노인 인구수는 25,134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168개의 경로당과 4개의 노인복지관, 12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특성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적정규모

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수 규모를 타 시·군·구와 비교할 때 노인복지관의 수가 많다는 특성을 보인다. 즉,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여가복지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농어촌형의 노인여가복지 사례지역으로는 충남 예산과 경북 의성군을 선정하였다. 충청남도 예산군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는 19,140명으로 전체 인구 중 21.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이다. 1개의 노인복지관과 350개의 경로당, 2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다. 노인여가복지 특성은 노인복지관 1개소로 여가복지 욕구대비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만,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으로 경상북도의 중앙에 위치하며 인구는 59,422명으로 현재 의성군의 노인 인구는 18,655명으로 전체 인구 중 31.4%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지역이다.

3개의 노인복지관과 421개의 경로당, 1개의 노인교실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노인여가복지 특성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인여가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며,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의 안정적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표 5-62> 사례지역별 특성비교

(단위: 천명, %, 개소,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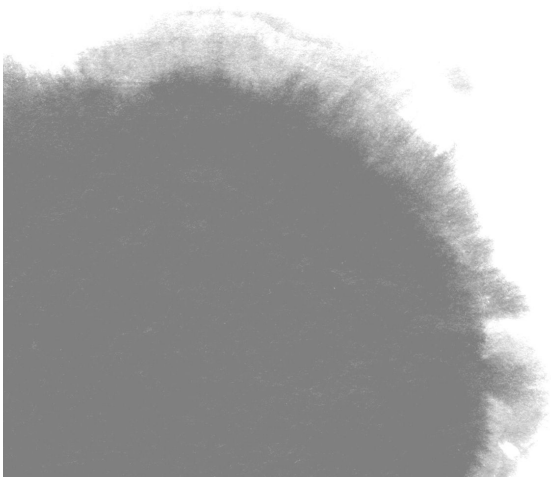
	구분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인천 계양구	광주 북구	경기 용인시	전남 목포시	충남 예산군	경북 의성군
인구특성	전체인구수	351	470	891	247	88	59
	노인인구수	22	42	75	25	19	18
	고령화율	6.4	9.0	8.5	10.2	21.7	31.4
노인여가 복지자원 특성	노인복지관 (분관, 소규모 포함)	1 (문화센터 3)	3(북구노 인센터, 효령)	2	4	1	3
	경로당	145	365	723	168	350	421
	노인교실	5	10	9	12	2	1
	기타	광역 노인종합 문화센터	광역 단위 빛고을, 효령				
예산	노인여가복지 예산총액	2,443,408	2,313,911	7,552,401	2,503,284	1,863,959	5,977,497
	여가예산대비 경로당예산	23.9	81.4	64.7	36.1	79.3	30.5 (65.6) ²⁾
	여가예산대비 노인복지관예산	28.5 (72.2) ¹⁾	15.9	32.2	52.8	18.2	15.1 (32.4) ²⁾
	노인 1인당 노인여가복지예산	108.3	54.6	99.6	100.0	97.4	320.4 (148.9) ³⁾
경로당 관련 사업	수행기관	노인복지 관	-	순회프로 그램, 복지관이 원화	-	순회프로 그램, 복지관 이원화	복지관 중심
	경로활성화사업 해당경로당비율	30.9	1.6	16.5	16.1	24.1	0.6
	경로당순회프로 그램담당지역할	노인복지 관내 위치, 활성화됨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비활성화

주: 1) 인천 계양구의 노인문화센터 3개소의 예산을 포함한 비율임.

2) 의성군의 의성노인건강타운 설립 비용을 제외한 경상적 노인여가복지예산 중 경로당예산비율과 노인복지관 예산 비율임.

3) 의성군은 의성노인건강타운 설립 중으로 이들 예산을 제외한 경상적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예산을 기준으로 노인 1인당 노인 여가복지예산을 계산한 수치임.

해외 노인여가복지 사례분석



제6장 해외 노인여가복지 사례분석

제1 절 일본의 정책 및 사례

일본은 매우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정책들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노인보건복지정책은 고령화율과 사회·정책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의 기초와 목표를 수정·보완해왔다(변재관, 1999; 후생노동성노건국, 2008; 정진욱, 2011). 또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에 기초하여 매년 고령사회백서를 발간하여 고령화 현황과 정책 실시현황 및 방향성을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대응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노인의 자아실현과 자존, 소속과 애정의 욕구의 실현을 지원하는 여가복지와 관련된 정책 현황을 중앙정부차원의 노인여가복지 정책들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의 여가복지 욕구 및 실태⁵⁾

가. 인구고령화 현황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1년 기준 23.3%이며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전체인

5) 인용되고 있는 통계자료는 2012년에 발표된 최근 『일본 고령사회백서』에 기초하여 있으며, 각 표와 도표에는 『일본 고령사회백서』에 제시되고 있는 자료원 관련 정보를 그대로 제시하고자 함.

구의 1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생)가 2012년에 65세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고령화율을 도도부현(都道府縣: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도쿄도, 오오사카현,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한 3개 도시권은 낮고 그 외의 지역은 높다. 2011년 현재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키타현으로 29.7%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17.3%로 두 지역은 12.4%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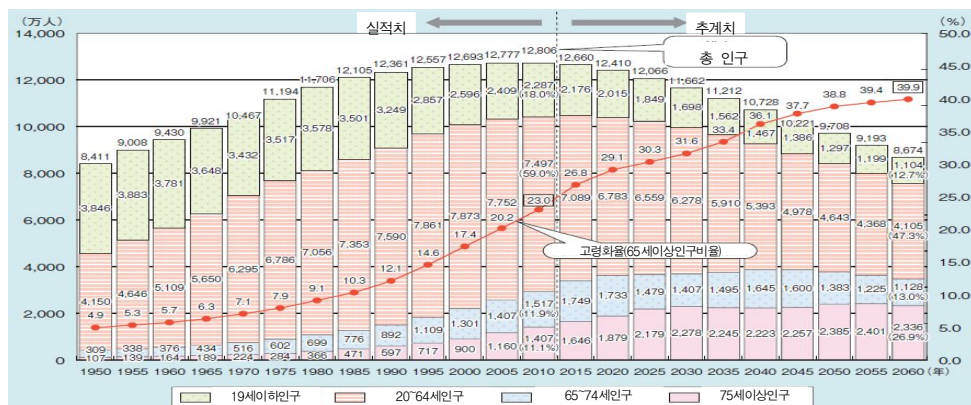
<표 6-1> 일본의 고령화 현황

(단위: 만명, %)

		2011년			2010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인구	총인구	12,780	6,218	6,562	12,806	6,233	6,573
	고령인구	2,975	1,268	1,707	2,925	1,247	1,678
	전기고령자(65~74세)	1,504	709	795	1,517	715	803
	후기고령자(75세 이상)	1,471	559	912	1,407	532	875
	생산연령인구(15~64세)	8,134	4,095	4,039	8,109	4,068	4,035
구성비	고령인구	23.3	20.4	26.0	23.0	20.2	25.7
	전기고령자(65~74세)	11.8	11.4	12.1	11.9	11.6	12.3
	후기고령자(75세 이상)	11.5	9.0	13.9	11.1	8.6	13.4
	생산연령인구(15~64세)	63.6	65.9	61.6	63.8	65.9	61.8

자료: 2011년은 총무성 「추계인구」, 2010년은 총무성 「국세조사」,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에 대한 남성인구의 비율

[그림 6-1] 일본의 고령화 추이와 장래 추계



자료: 2010년까지 총무성 「인구 조사」, 2015년 이후는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 인구(2012년 1월 추계)」의 출생·중간사망·중간 가정의 추계 결과

주: 1950년~2010년의 총 연령 미상을 포함.

<표 6-2>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별 고령화 현황

(단위: %)

구분	2011	2035	구분	2011	2035
홋카이도	25.2	37.4	시가현	20.9	29.9
아오모리현	26.1	38.2	교토부	23.7	32.3
이와테현	27.3	37.5	오오사카시	22.7	33.3
미야기현	22.4	33.8	효고현	23.4	34.3
아키타현	29.7	41.0	나라현	24.4	36.8
야마가타현	27.6	36.3	와카야마현	27.5	38.6
후쿠시마현	25.2	35.5	돗토리현	26.4	34.5
이바라키현	22.9	35.2	시마네현	29.1	37.3
도치기현	22.3	33.6	오카야마현	25.4	33.4
군마현	23.9	33.9	히로시마현	24.3	34.5
사이타마현	20.9	33.8	야마구치현	28.2	37.4
치바현	22.0	34.2	도쿠시마현	27.1	36.7
도쿄도	20.6	30.7	카가와현	26.1	35.9
카나가와현	20.6	31.9	에히메현	26.9	37.0
니이가타현	26.4	36.6	고치현	29.0	37.4
토야마현	26.4	36.0	후쿠오카현	22.5	32.6
이시카와현	23.9	34.5	사가현	24.7	34.2
후쿠이현	25.2	34.0	나가사키현	26.2	37.4
야마나시현	24.8	35.3	쿠마모토현	25.8	35.6
나가노현	26.7	35.6	오이타현	26.8	35.6
기후현	24.3	33.6	미야자키현	25.9	36.9
시즈오카현	24.1	34.6	가고시마현	26.5	35.9
아이치현	20.6	29.7	오키나와현	17.3	27.7
미에현	24.4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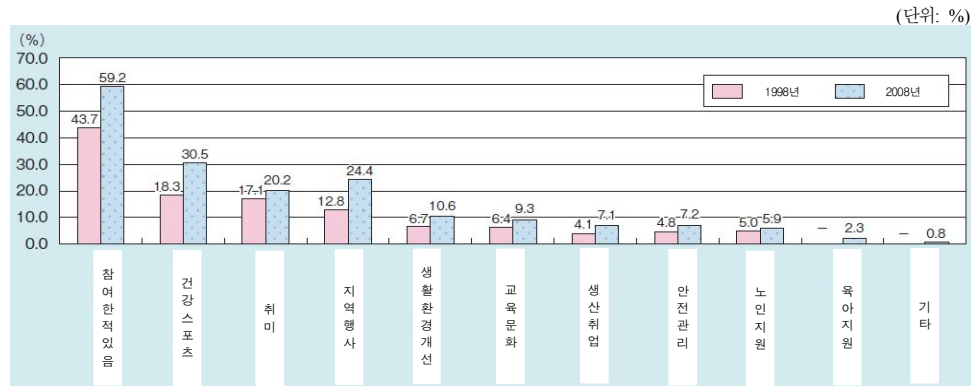
자료: 총무성 「국세조사」

나. 노인의 사회참가 현황 및 욕구

노인의 사회참가활동 실태와 욕구를 단체참여 및 NPO 활동, 학습활동참여, 세대 교류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60세 이상자의 59.2%가 1개 이상의 단체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의 43.7%에 비하여 15.5%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건강·스포츠 단체(30.5%), 지역행사(24.4%), 취미(20.2%), 생활환경개선(10.6%)의 순으로 모든 종류의 단체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향후 참가의향과 관련해서는 참가하고 싶다는 응답이 54.1%, 참가하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참가할 수 없다는 16.2%로 60대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정도가 참가를 희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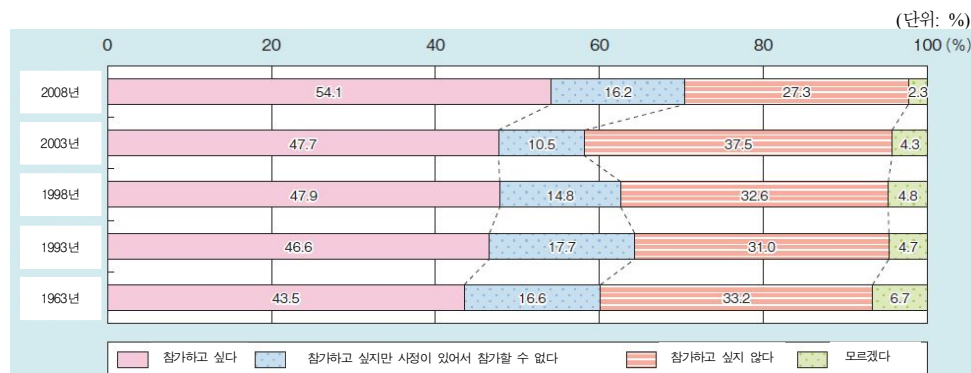
고 있다.

[그림 6-2]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 참가현황(복수응답)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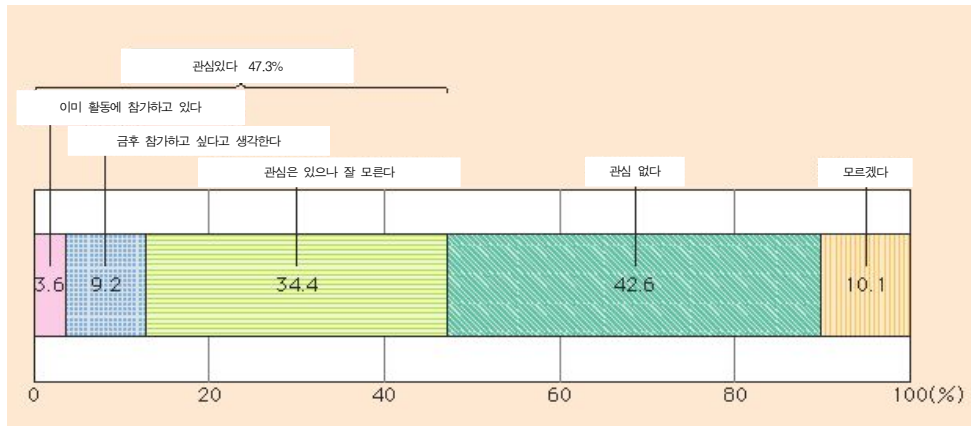
[그림 6-3] 일본 노인의 단체활동 참가 의향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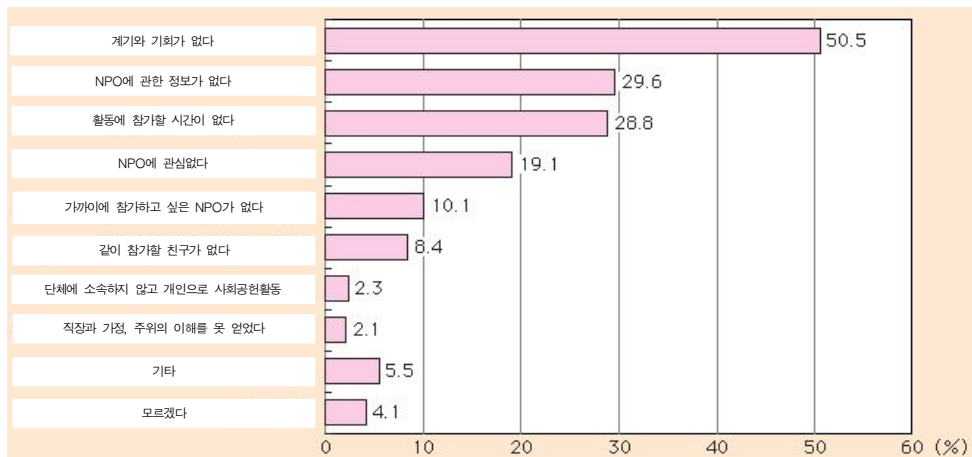
또한 60대 이상의 약 절반 정도가 지역복지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NPO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6%, 앞으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9.2%,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34.4%이다. 반면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2.6%에 달하고 있다. 현재 참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이유로는 계기와 기회가 없다는 가장 높고, 다음이 정보가 없다는 활동에 참가할 시간이 없다 등의 순이다.

[그림 6-4] 일본 노인의 NPO 활동 참가실태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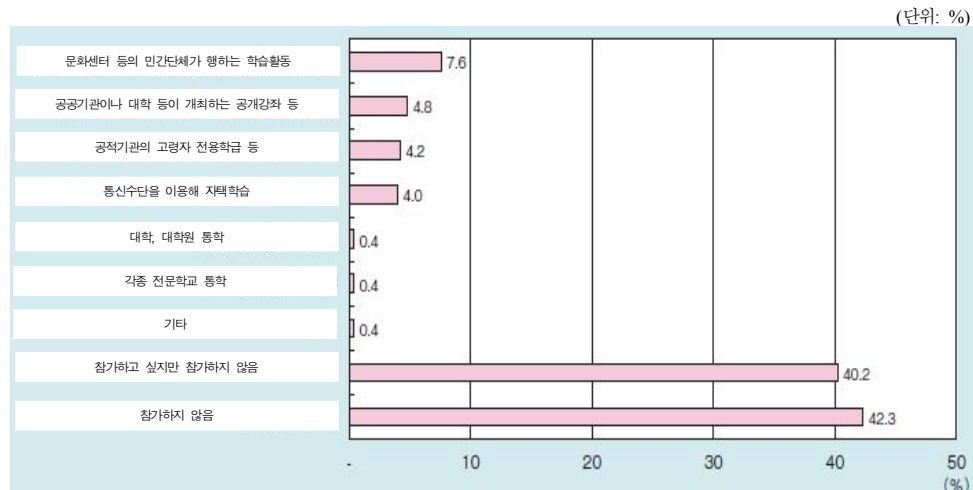
[그림 6-5] 일본에서의 NPO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자료: 내각부 「NPO(민간비영리조직)에 관한 여론조사」 (2005년)

한편 학습활동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의 17.4%가 참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센터 등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7.6%, 공공기관이 마련한 노인전용 강좌가 4.8%이다. 노인이 희망하는 생애학습의 내용으로는 60~69세군에서 건강·스포츠(건강법, 의학, 영양, 조깅, 수영 등)가 6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70세 이상에서는 취미(음악, 미술, 화도, 무용, 서예 등)가 5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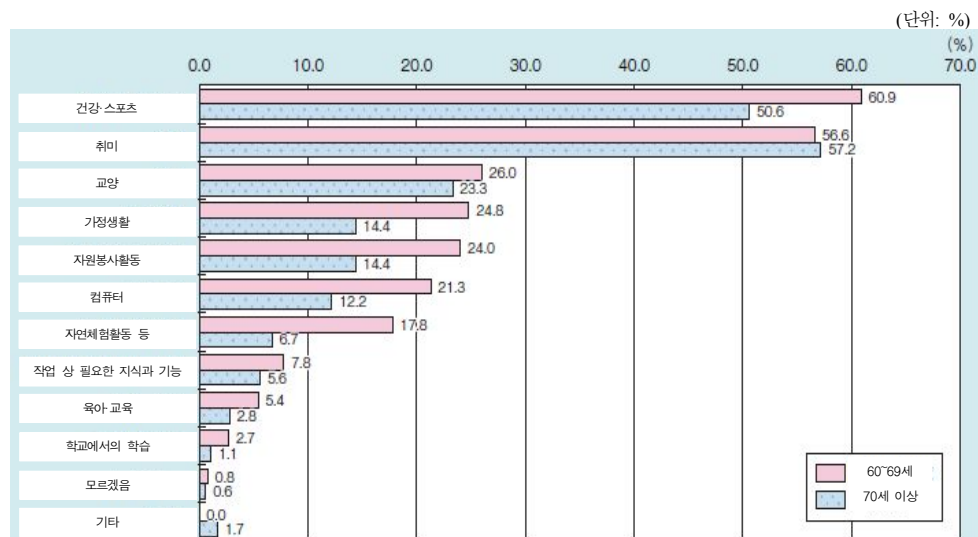
[그림 6-6] 일본 노인의 학습활동 참가 현황(복수응답)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2008년)

주: 전국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림 6-7] 일본 노인이 참가를 희망하는 학습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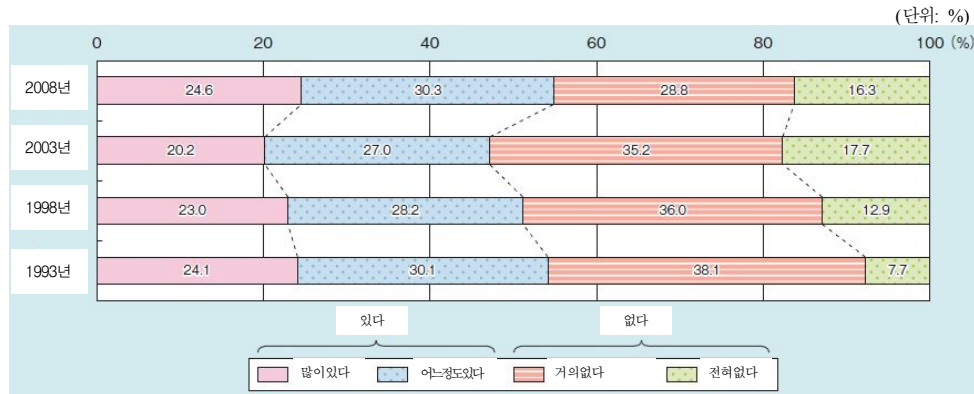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평생학습에 관한 여론조사」 (2008년)

더불어 노인이 세대와 교류의 기회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매우 많다고 상당히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모두 포함할 경우 54.9%가 그러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의 기회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은가라는 질

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2008년을 기준으로 62.4%를 나타내 199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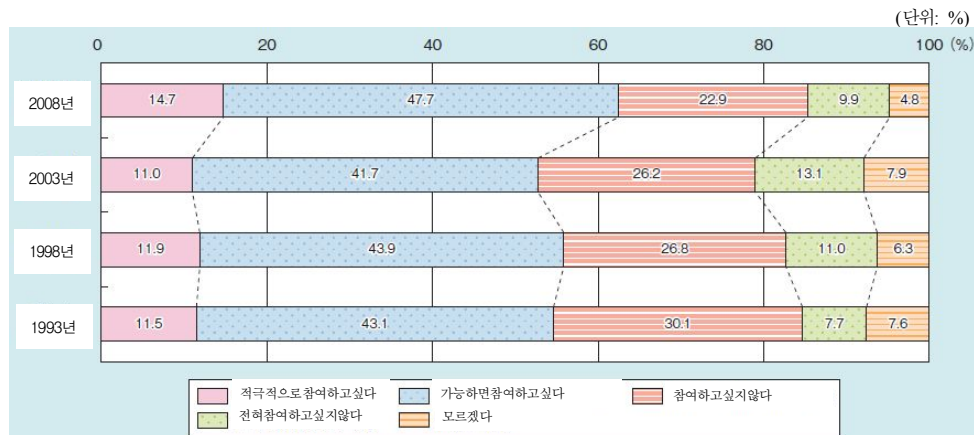
[그림 6-8] 노인의 세대 간 교육의 기회 여부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2008년)

주: 전국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림 6-9] 노인의 젊은 세대와 교류 기회에 참여 의향



자료: 내각부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가에 관한 의식조사」 (2008년)

주: 전국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노인 여가복지 정책

가. 노인복지정책수행의 법적 기반 및 전달체계

일본의 복지행정은 중앙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도도부현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시·정·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인하여 현 단위에서 마련하는 지역복지관련 계획은 ‘지역복지지원계획’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는 ‘지역복지계획’으로 명명되어 있다. 이는 ‘현’은 시·정·촌이 수립한 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의 경우 중앙 정부에 후생노동성의 노인보건복지국이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건복지국은 노인복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우는 지사의 사무부국으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경도에는 복지국, 도·부·현에는 민생부, 민생노동부, 생활복지부 등의 부서에서 노인복지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지사 밑에는 사회복지의 전문행정기관으로 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지사무소는 시 및 특별구에 의무적으로, 정·촌에는 임의로 설치하게 되어있다(김진희, 2007).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민간단체,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즉, 중앙 정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시정촌과 도도부현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조우홍, 2010). 이의 근간이 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에 기초하여 각 시정촌과 도도부현은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⁶⁾. 이러한 노인복지계획은 지역복지계획과 정

6) 이러한 노인보건복지계획은 지역복지계획에도 반영되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성장형 사회로부터의 이탈, 경제불황 등에 대처하고 지역의 상호부조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복지의 기본 이념은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 남녀공동참여, 복지문화창조이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지역에서 추진하기 위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량을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마련, 지역복지증진사업 발달전략, 주민참여 촉진전략 등을 포함하게 되며, 시정촌과 도도부현에서 수립하게 된다. 이 때 지역복지계획은 노인보건복지계획, 개호보험사업계획, 장애인 계획, 아동육성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합성을 가져야 한다.

나. 정책기조

『일본 고령사회백서』를 통하여 일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복지서비스의 틀을 살펴볼 수 있다. 취업·소득, 건강·복지, 생활환경, 조사연구 등의 추진과 더불어 학습·사회참가가 시책의 각 분야로 설정되어 있다.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년기 삶에 있어 활기 있는 노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학습·사회참가가 연계되어 정책의 한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학습·사회참가」라는 시책 영역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

(1) 생애학습사회의 형성

고령자의 학습 진행을 위하여 생애학습사회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생애 학습을 진흥시키기 위해 1990년에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계 등 정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생애학습의 이념을 명기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기반으로 생애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생애학습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국 생애학습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행정, 대학, NPO 등 단체, 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연구, 협의를 실시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사회교육행정 확충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지도자 육성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습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목표로 하여 각 개인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평가체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 학위수여 기구인 대학 등에서 일정 학습을 수행한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전주학교정(전문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2)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습기회 확보

일본 정부는 학교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자원봉사관련 체험활동과 고령자와의 교육활동 등을 확충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필요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높아지는 생애학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사회인 입시 실시, 야간 대학원 설치, 주·야 개강제 실시, 과목 등 이수생제도 실시, 장기이수학생제도 실시 등을 꾸준히 실시하여 이수형태를 유연화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의 공개강좌, 방송대학을 통한 대학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고 보조를 통하여 학교기능과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여유 교실은 지속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사회교육시설이나 스포츠·문화시설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림 6-10] 일본에서의 대학원의 사회인 학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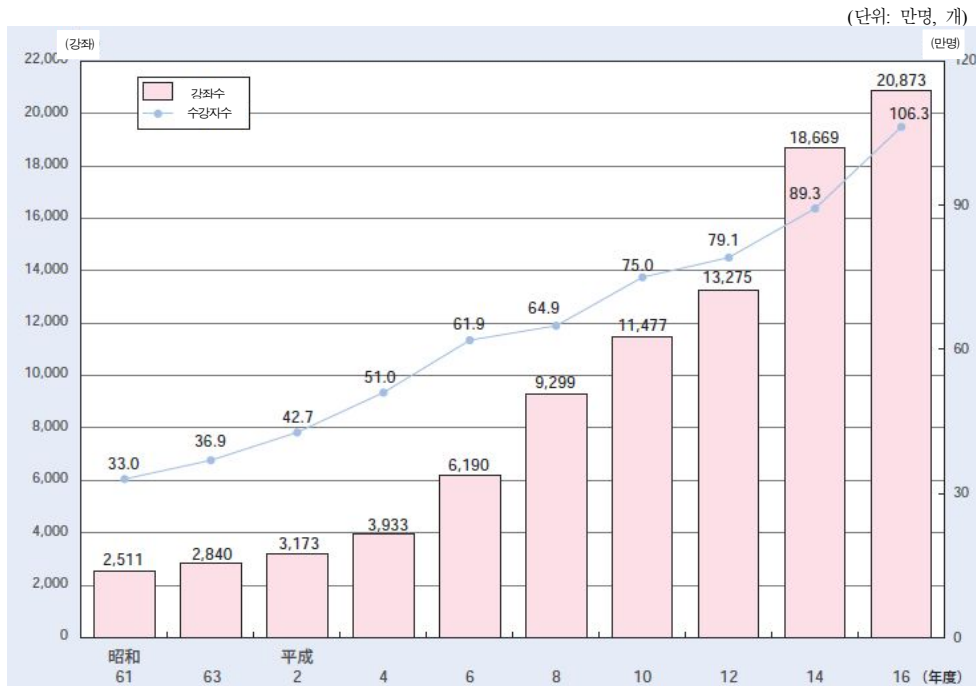
자료: 학교기본조사(매년 5월 1일 현재)

주: 1) 석사 [석사 및 박사 전기 과정 (5년 일관제 박사 1, 2학년을 포함한다.)]

2) 박사 [박사 과정 (의사·치과·약학(4년제), 수의학 박사 및 5년 일관제 박사 3~5년차를 포함한다.)]

3)平成 12년은 2000년임.

[그림 6-11] 일본에서의 대학 공개강좌 실시 추이



자료: 문부과학성 「대학 개혁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

주: 쇼와 61년은 1986년임.平成2년은 1990년임.

(3)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의 진흥과 자연과의 접촉을 증대해가고 있다. 사회교육 진흥의 경우 지역주민의 친밀한 학습거점인 공민관을 비롯한 사회교육시설에서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충해가고 있다.

또한,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 고령기에 마음놓고 알차게 생활하기 위한 학습기회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거점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 환경의 정비와 관련하여 향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ICT를 활용한 국내·외의 선진적 생애학습추진시책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의 학습·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문화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는 국민문화제 개최 등을 통한 문화활동에 대한 참가
기회의 제공, 국립 박물관 등의 고령자 우대조치와 배리어프리화 등을 통한 예술감
상 기회의 확충을 통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는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의 전국전개 추진, 전국스
포츠·레크리에이션대회 개최 등을 자연과의 접촉 증대를 위해서는 국립 공원 등의
이용자를 비롯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연과 접촉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접촉
시설과 체험활동이벤트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표 6-3> 일본에서의 교육위원회 및 주민회관의 고령자 대상 학급·강좌 상황

구분	2001년도	2004년도
학급·강좌 수	45,501개 강좌	57,356개 강좌
교양 향상	25,215	34,032
체육, 레크리에이션	9,898	8,533
가정교육, 가정생활	2,845	3,332
직업의식, 기술향상	823	1,264
시민의식, 사회연대	4,334	5,313
기타	2,386	4,882

자료: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

(4) 근로자의 학습활동 지원

다양한 학습기회의 제공과 근로자의 학습활동 지원이 두 가지 축으로 다양한 학
습기회의 제공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보급·촉진 등을 꾀하고 동시
에 교육훈련급부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 개인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자기 계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사회참가활동의 촉진

(1) ‘새로운 공공’ 추진회의

관청뿐만 아니라 시민, NPO,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공공의 재산·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되어 일상생활의 밀접한 분야에서 공조의 정신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공공’의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공’ 원탁회의가 실시된다. 여기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따라가면서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제안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공’과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 등 NPO 등의 활동기반 정비에 대한 검토활동을 수행한다.

(2) 고령자의 사회참가활동 촉진

가) 고령자의 사회참가와 보람형성

고령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자의 자율적인 활동조직인 노인클럽과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지역 고령자의 사회참가활동을 지원한다. 노인클럽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96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후의 생활을 건전하고 풍요롭게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노인클럽연합회, 도도부현 노인클럽 연합회 등이 결성되어 있다.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자 ‘전국건강복지축제’를 2011년 10월에 구마모토현에서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지원지역본부’, 방과 후와 주말에 초등학교의 여유교실 등을 활용하여 체험·교류활동 등을 제공하는 ‘방과 후 아동교실’,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정교육지원’ 등을 일원적·종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고령자를 포함한 폭넓은 세대의 지역 주민이 지역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양육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6-12] 일본의 노인클럽 수와 회원 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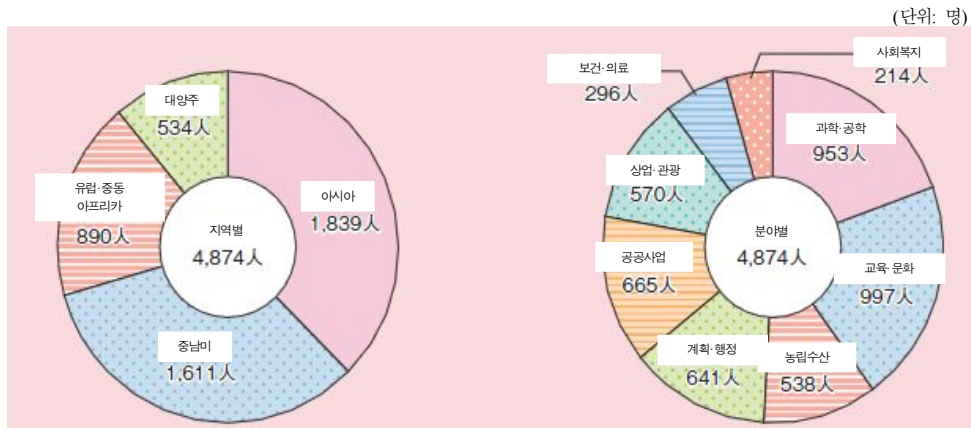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 (후생성보고, 2000년도부터 복지행정보고) (각 년도 3월말 현재)
 주: 쇼와 50년은 1975년이며,平成 2년은 1990년임.

나) 고령자의 해외지원활동추진

풍부한 지식, 경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볼런티어 정신을 가진 중·고연령자가 해외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시니어 해외볼런티어사업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지식을 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파견형태·기간의 다양화 등을 통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그림 6-13] 고령자 해외자원봉사 파견실태



자료: 외무성

주: 1990년도(사업시작)~2011년도

다) 고령자의 여가시간 등 확충

고령자 등이 TV방송을 통해 적절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자막방송, 해설방송 등을 확충하기 위해 2007년 10월에 책정한 행정지침 중에 정해진 보급목표(2015년도까지 자막방송과 관련해서는 대상 방송 프로그램 전체에 자막을 달고, 해설방송과 관련해서는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10%에 해설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위한 조성금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각 방송국의 자율적인 대처를 촉진한다. 고령자의 사회참가와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고령사회포럼’을 7월에 도쿄에서, 11월에 요코하마시에서 개최한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책임과 능력 면에서 자유롭게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령자(Ageless·Life실천자)와 사회참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고령자 단체 등을 매년 널리 소개하고 있으며 ‘고령사회포럼’ 등을 통해 사회참가활동 등의 사례를 널리 국민에게 소개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3) NPO 등의 활동기반 정비

볼런티어활동 기반 정비와 관련하여 전국 볼런티어·시민활동진흥센터가 실시하는 전국 볼런티어페스티벌의 개최와 볼런티어 활동 등에 관한 홍보·계발활동, 정보 제공, 연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 대해 ‘지역복지등추진특별지원사업’으로써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문제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 등 지역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선구적·시범적 노력 등에 대해 보조 활동을 실시한다. 고령자복지, 맞벌이 지원, 마을살리기, 환경보호 등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비즈니스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소셜 비즈니스를 진흥시킴으로써 고령자와 여성 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및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지역 활성화·고용촉진자금(사회공헌형 사업관련)의 활용을 통해 소셜 비즈니스사업자의 자금조달 욕구에 대해서는 민간금융을 보완하면서 일본 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소셜 비즈니스사업자에 대한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환경정비와 함께 사업활동의 촉진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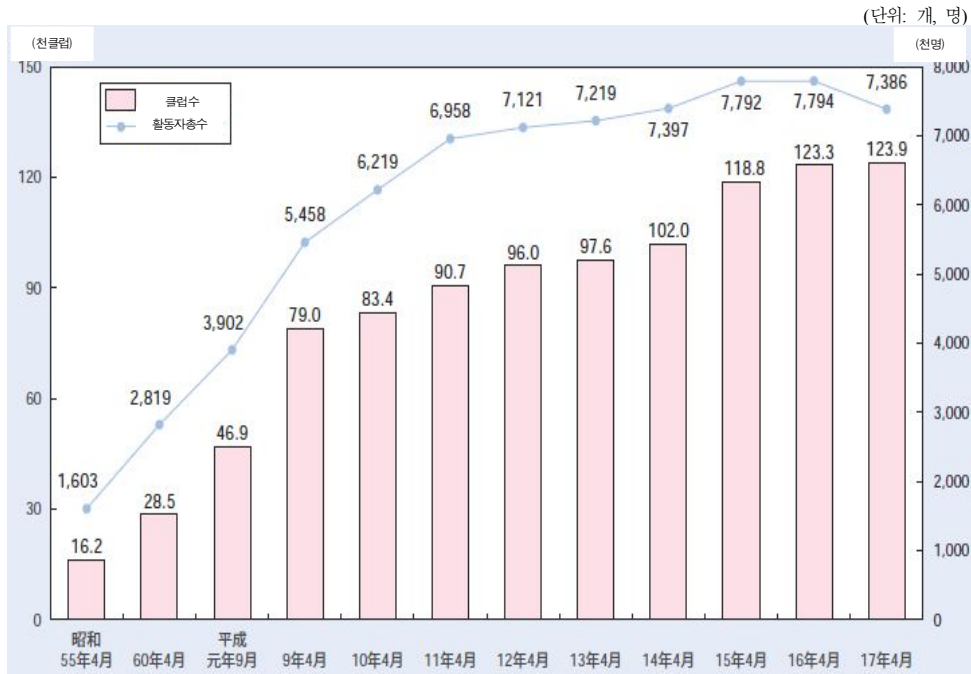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에 따라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의 인증·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내각부 NPO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립·국립공원 이용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자연공원지도원 연수를 실시하고 이용자 지도에 충실을 기하는 동시에 지방환경사무소 등에서 근무할 파크 볼런티어를 양성하여 그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립하여 함께 사회에 참가하고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생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NPO 등의 사회활동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사회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리더를 양성하는 ‘청년 사회활동 코어리더육성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1년도에는 9명의 일본 청년을 덴마크에 파견하고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에서 같은 분야의 청년 리더 13명을 초청하여 각각 일본 청년들과 각국의 청년 리더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고령자 관련시

설 등을 방문했다.

[그림 6-14] 자원봉사수의 추이



자료: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연보 2005년」

주: 1) 도도부현·지정도시 및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임.

3. 지자체의 노인여가복지 사례: 가나가와현과 요코하마시

각 지자체는 앞에서 살펴본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을 지향하되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과 요코하마시의 고령자보건복지계획(2012~2014년) 중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고령자보건복지계획의 모토는 고령자가 안심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요코하마시(横浜市)의 경우는 가나가와현 내 政令指定都市(인구 50만 이상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고령자 보건복지계획을 ‘고령자보건복지계획 개

호보험사업계획(제551: 2012~2014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가.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노인여가관련 정책 현황

1) 사회참여활동사업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은 고령자가 자신의 경험, 지식, 의욕을 살린 사회 참여활동을 통해 생생하게 활약 할 수 있도록 보람 건강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노인클럽활동 촉진,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정보 배리어프리를 추진하고 있다.

노인클럽은 지역에 밀착한 조직으로, 스스로의 건강, 삶의 보람 활동과 우애 활동을 비롯한 자원봉사활동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에서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노인의 요구에 대응한 매력 있는 클럽활동의 추진과 어린이 보호사업 등 다음 세대 육성 지원, 안전·안심 대책 등의 대처를 ‘(재)가나가와 현 노인 클럽 연합회’나 장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나가와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우애 팀 활동을 하고 있다. 1972년에 ‘(재)가나가와 현 노인 클럽 연합회’가 시작한 우애 방문 활동이 전국 운동의 하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노쇠하거나 독거노인의 마음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부분 또는 고령자의 삶의 보람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요코하마, 가와사키시 제외)에서 571팀(2011년 7월 현재)이 활동하고 있다.

둘째,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사업은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건강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자원 봉사 활동 등의 추진사업의 경우 가나가와 자원 봉사 센터와 가나가와 주민 활동 서포트 센터 등에서 현민의 자원 봉사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1년도 실시 ‘건강한 노인 간호 봉사 포인트 제도 연구사업’의 결과를 근거로 간호 자원 봉사 포인트 제도 미실시의 시정촌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보급을 도모하여 노인 자원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정보 배리어프리의 추진사업은 고령으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분

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이 정보 통신 기술의 편리를 누릴 수 있어, 정보 배리어프리를 추진하고 있다.

<표 6-4> 가나가와현의 고령자 사회참여활동지원 서비스

사업내용	사업명(실시주체)	사업내용
노인 클럽 활동의 추진	(재)가나가와 현 노인 클럽 아침 연합회의 노인 클럽 아침 활동 추진(민간)	지역의 요구에 대응 한 매력 있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읍면 노인 클럽 연합회 및 단위 노인 클럽의 육성지도 등
	노인 클럽 조성 비용 보조사업(시정촌)	봉사 활동, 사는 보람 만들기 활동, 건강 증진 활동과 우애 팀의 방문 활동 시정촌 단위 노인 클럽연합회의 활동에 대한 국가, 현과 협조하여 지원
노인의 삶의 보람과 건강 강 만들기 추진 사업	노인의 삶의 보람과 건강 만들기 추진 사업 (시정촌)	시정촌은 지역 지원 사업의 모든 사업으로 고령자 삶의 보람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각 단체의 참여와 협력 하에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하면서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과 기능을 살린 사업 실시
자원 봉사 활동 등의 추진	가나가와 자원 봉사 센터의 자원 봉사활동의 추진(민간)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종합 상담, 정보 제공 및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등의 인재 육성 등을 실시하고 광역자치의 관점에서 자원 봉사 활동의 추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가 진단 등 당사자 단체의 당사자 활동 지원 시정촌 자원 봉사 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해야하는 등 지역의 자원 봉사 활동을 지원
	가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의 자발적인 활동의 추진 (현)	가나가와 현민 활동 서포트 센터에서 NPO 나 자원 봉사 등 비영리 공익적 활동을 할 단체나 개인에 활동을 위한 장소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실시 또한 이러한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시, 기업 등과의 제휴 추진
	지역 개호 예방 활동 지원 사업(시정촌)	개호 예방에 관한 자원 봉사자 등의 인재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등의 육성·지원 실시
	(재)가나가와 국제 교류 재단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의 추진(민간)	(재)가나가와 국제 교류 재단에서 현 민이나 NGO (비정부 조직)에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정보 제공 공급 및 상담 등의 지원 실시
IT 배리어프리 추진	IT 배리어프리 추진 사업(현)	현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해 더욱 사용하기 쉽도록 노력

2) 기업·취업에 대한 지원

개별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요구에 대응한 취업 지원을 목표로 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고연령자의 취업 지원 추진과 창업 지원 촉진, 실버 인재 센터 사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6-5> 가나가와현의 고령자의 기업·취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

사업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	사업 내용
중·고 연령자 취업 지원	중고령자 근무형태 상담 조직 운영(현)	국가(가나가와 노동국)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40세 이상의 중·고연령의 다양한 근무 형태의 상담에 대응하는 조직 운영
	중년 취업 촉진 위탁 훈련 사업(현)	민간의 교육 훈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중·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실시
창업 지원	창업기 출시 지원 사업 (민간)	카나가와 산업 진흥 센터에서는 창업에 대한 의식 개발이나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 습득을 도모 세미나 개최하고, 창업에 관한 상담·정보 제공을 통한 창업 촉진
실버 인재 센터 사업	실버 인재 센터 육성지도 (현·시정촌)	실버 인재 센터 및 고령자 사업단의 지도·육성과 현 전역에서 실버 인재 센터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사)가나가와 현 실버 인재 센터 연합회(주) 설립, 이를 통해 실버인재센터 기능 강화 도모

3)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 추진

노인 건강 보람 있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학습이나 문화,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세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의 학습에 대한 의욕의 향상을 비롯해 보람 만들기나 건강 증진, 또한 세대 간의 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평생 학습·문화 활동 지원과 평생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학교 등의 지역 자원을 살린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

하여 학습 및 스포츠 활동, 교류 체험의 장 제공, 학습과 스포츠 등의 활동과 교류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표 6-6> 가나가와현의 평생 학습·평생 스포츠 추진

사업내용	사업명(실시주체)	사업내용
평생 학습문화 활동 지원	평생 학습 정보 시스템 운영(현)	인터넷을 활용 한 평생 학습 정보 시스템 'PLANET' 카드를 통해 현, 시정촌, 대학, 각종 학교 및 문화 센터 강좌 등의 정보 제공
	현립 학교 공개 강좌의 개발(현)	현립 학교의 시설 및 인력 등 교육 기능을 널리 지역 주민에 개방하고 다양한 학습 및 문화 강좌와 스포츠 교실을 개척시켜 지역의 학교라는 곳을 이용하여 다른 세대가 함께 배우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현립 보건 복지 대학 공개강좌의 개최(현)	현립 보건 복지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널리 현 민의 교양을 강화하고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또한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공개강좌 개최
	‘꿈 카나가와 시니어축제’의 개최(현)	노인의 문화적 활력을 지역에 전파하고 삶의 보람을 높이는 목적으로 노인의 평소 문화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장으로서 ‘카나 시니어 미술전’ 개최
평생 스포츠에 대한 지원	건강체력 증진 운동추진(현)	3033 (1일 30분 주3회 3개월간) 운동을 중심으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의 보급·계발을 하고 현 민의 건강·체력 증진을 추진 특히 노인에 대해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운동이나 스포츠에 친근한 것과 노인 3033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계발에 따르면 운동 스포츠의 추진 도모
	현역 광역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지원(민간)	현 레크리에이션 단체 등이 실시하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뉴 스포츠 등의 행사 지원
	‘가나가와 시니어스포츠 축제’개최 ‘전국 건강 복지 축제’에 참가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 삶의 보람 만들기 지원을 목적으로, 평소의 건강, 스포츠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로, ‘가나가와 시니어 스포츠 축제’ 개최 또한 현 건강·스포츠 활동 등의 교양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노인 스포츠 문화 축제 ‘전국 건강 복지 축제’에 현 대표 선수단 파견
활동·교류의 장 제공	현립 학교의 교육 시설, 체육 시설의 지역 개방(현)	학교 회의실, 음악실, 미술실이나 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의 체육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고 학습과 글과 그림, 스포츠 등의 활동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 추진
	중년 홈 농부 (home farmer)사업(현)	휴경기 등을 현이 빌려 기업 등을 퇴직하고 시간에 여유 있는 노년 자에 넓은 면적의 농지를 연수 함께 대어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보람의 장 제공

주) ‘꿈 카나가와 시니어 축제’ 참가자 수의 목표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참가자 수	5,215	3,654	3,371	3,700	3,800	3,900

2011년도까지는 실적이며, 2009년에는 ‘시니어 단가 대회’라는 명칭으로, 2010, 2011년은 ‘가나가와 시니어 스포츠 축제’ 및 ‘카나 시니어 미술전’을 개최

나. 요코하마시의 노인여가관련 정책 현황

1) 목표와 정책과제

고령자가 언제까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보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밀한 사회 공헌 활동, 취업, 평생 학습 등 다양한 장소에 사회 참여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가고 있다.

비교적 젊은 세대의 고령자 중에는 반상회 등 기존의 지역, 세대를 넘어,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주로 하는 서클 등에 참가도 활발하므로 이들이 앞으로 지역과 사회에 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관한 것이 보람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 유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6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노인 세대가 호응할 수 있도록 관심이 높은 건강과 개호 예방을 키워드로 앞으로의 사회 참여 촉진 시책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60대와 70대의 활동적인 친구 만들기 뿐만 아니라 지역친구 만들기는 노인 일수록 중요한 역할을 모두 서로 지지하는 동료가 되어 살고 있는 거리에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하므로 노인클럽의 활성화와 반상회·자치회 등 지역조직과의 연계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취업이나 자원 봉사 활동 참여 등의 요구에 따른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과 중앙 상담 창구의 설치 등을 계속 검토 과제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사업 내용

(1) 개호 지원 자원 봉사자 포인트 사업의 추진

노인 요양시설 등으로 행사의 심부름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 보조 등의 활동을 한 때에 포인트가 모여 쌓인 포인트에 따라 현금·기부 할 수 있는 구조의 보고사업으로 2011년 말, 개호 지원 자원 봉사 등록자는 5,500명을 넘어(수용시설도 277개소), 시내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증진 및 개호 예방으로 이어질 사회참여와 보람 만들기를 촉진하고 있으며, 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 사람과의 연결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사회 참여를 위한 계기 만들기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의 확충을 위해, 등록자의 증가, 개호 분야 이외의 대상 활동의 확대를 도모하고, 또한 ‘100만명의 건강 증진 전략’도 연동해서 사업 전개를 해나갈 예정이다.

(2) 사회 참여 등 삶의 보람 활동 지원

가) 노인 클럽 조성

자신의 고령기를 건강하고 풍부하게 하는 활동에 종사 자발적인 조직인 노인 클럽 아침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말에는 클럽 1,808개, 회원 123,458명이 시내 전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노인 친구 만들기나 건강 증진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 상호지지 서로 활동(우애 활동) 등 지역 공헌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노인 클럽에 대한 지원을 요코하마 노인 클럽 연합회에 조성으로 일원화하고 넓은 영역에서의 이벤트 개최와 지역성에 따른 활동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하였다. 또한, 2010년의 활성화 검토회의 제언을 토대로 고령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등에 대응한 노인 클럽의 자주성·독자성을 존중한 사업 전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갈 것이다.

요코하마 노인클럽 연합회의 우애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상호관심 제고, 살롱활동 등 지역의 노인 고립 방지, 친구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나) 요코하마 시니어대학 개최 지원

새로운 지식과 교양 등을 습득하기 위해, 각 구에서 요코하마 노인클럽 연합회가 주최하는 ‘요코하마 시니어 대학’의 개최를 지원하고, 건강 증진과 간호 보험지식을 비롯하여 방재, 경제·법률, 식생활의 지식 등 실생활에 유용에서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것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통한 노인의 동료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다) 노인복지센터 운영

노인복지센터는 지역 노인의 건강 증진, 교양의 향상, 레크리에이션 등의 위한 시설로, 각 구에 1개씩 전 구에 설치되어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건강 증진·개호 예방 대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미를 통한 노인의 삶의 보람 만들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센터가 다양한 강좌도 개최하고 있다. 이어 미술이나 음악, 공예 등 문화계에서 춤·체조 등의 스포츠계 있어서 다양한 강좌를 개최한다.

라) 노인 휴양 연수 시설 ‘후래유티(ふれーゆー)’ 운영

‘후래유티(ふれーゆー)’는 노인의 사회 참여와 교류 촉진, 휴식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수영장이나 목욕탕, 전사용 온실 등이 있고, 노인 이외의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간 교류 시설이다.

마) 경로특별 승차증 교부 사업(경로 패스)

노인이 집에 머물지 않고 부담 없이 외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승차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2011년도 현재 교부자수는 33만명이다. 예방 및 에너지 절약 효과도 예상된 유용한 사업이며, 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제도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바) 노인 우대 시설의 이용 촉진

노인을 존중 사회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사회 참가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상품·입장료 할인 등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대 시설·협찬가게를 더 확충하고 그 이용을 진행하고 있다.

사) 경로의 달 사업

장수를 기원 함께 고령자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매년 9월을 경로의 달로 하여, 노인 클럽이나 영역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시설 등의 무료 개방과 우대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는 축하품을 증정하고 있다.

(3) 고령자의 취업 지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건강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의 취업·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요코하마 실버 인재 센터는 시내의 사업소나 가정에서 노인에 적합한 임시적·단기적 기타 손쉬운 일을 주문을 받아 취업 의욕이 있는 노인(등록 회원)에 대해 경험과 희망에 맞는 일을 소개하고 취업을 통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등록 회원에게 녹지 관리, DIY 등 기능 습

득을 위한 각종 강습회 등의 개최 외에도 자원봉사 활동 참가 지원 등을 실시 중이다.

2007년 10월에 중·고령자에게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워크 지원 정보 플라자 요코하마’를 요코하마 실버 인재 센터에 개설, 고령자 등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전문 기관이나 사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요코하마 일 지원 센터’에서는 취업 상담, 직업 상담 등 취업 준비 단계에서 취업 후 노동 상담까지 ‘일’에 관한 폭 넓은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출과 정착을 위해 지역 노인 그룹의 창업과 활동을 지원 중이다.

(4) 평생 학습 지원

각 구의 시설 등에서 시민들이 널리 관심과 폭 넓은 교류와 평생 학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의 충실을 도모하고 있다. 전 구에 설치되어있는 시민 평생 학습 지원 센터(시민 활동 지원 센터와 복합화하고 있음)에서는 상담원이 학습 정보 제공과 학습 상담 등 시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한다.

시민·학교·민간 교육 사업자·기업 등과의 협동에 의한 학습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요코하마의 다양한 학습 자원을,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주체적인 학습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가진 지식·기술 등의 사회적 활용과 세대를 넘은 네트워크 만들기를 지원하고 있다.

(5) 평생 스포츠에 대한 지원

요코하마 노인 클럽 연합회 등을 통해 건강의 유지 증진과 노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때문에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의 다양한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을 주제로 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삶의 보람 만들기 및 사회 참

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니어 스포츠의 전개를 도모하고, 건강·체력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생활의 일부로 습관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스포츠 등을 즐기는 수 있는 기회와 장소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을 계기로 도시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코스 등 워킹 코스를 시내 전역으로 선정하여 맵 작성 배포 외에도 참가자의 인터넷의 교류 등 통한 워킹 인구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문화, 건강과 복지의 종합적인 축제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건강 복지 축제(노인파크)’에 시 대표 선수단을 파견, 건강·스포츠 활동 등의 고양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에 적합한 체조와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의 보급·진흥을 도모하고 신체 기능의 저하 방지나 동료 만들기를 지원한다. 또한 지도자로 양성된 노인이 지역에서 자주적인 체조 등 교실을 기획·운영하고, 새로운 노인의 확산 활동에 대해 지도자와 활동 그룹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가까운 지역에서 건강 증진과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를 대상으로 한 각종 스포츠 교실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개방하고 각종 스포츠 교실을 개최하고 있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각자의 흥미와 수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다세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클럽(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의 육성을 추진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하여 누구나 가까운 지역에서 스포츠를 실시 할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 더불어 노인의 스포츠 진흥 사업으로, 운동 놀이기구 설치된 공원에서 운동 프로그램시스템 소개 등을 통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보급해가고 있다.

4. 시사점

일본의 여가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생애주기적 관점에 기초한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시행과 더불어 자원봉사와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에 기초하여 있

다.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더불어 정책의 기초와 기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밀착형의 정책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의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고령인구의 자립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책대상자인 노인중 전기노인의 비중이 약 절반 정도이며 이들의 상당수가 적극적인 시민사회참여 경험과 욕구를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즉 국가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노인들로부터의 다양한 사회참여에 대한 높은 욕구도 적극적인 사회참여 정책의 수행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화 정책,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여가복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생교육과 같은 생애주기적인 시각에서 노년기 이전부터 자신의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인적자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현재 노인에 비하여 미래 노인의 교육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건강상태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회참여와 자기표현의 욕구 증대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둘째, 정책 수립과 수행 주체의 다각화와 연계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여가와 관련된 사업이 지방이 양되면서 기획과 실천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기획과 지방정부의 시행력, 이에 더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증가하는 노인

의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가정책에 접근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울과 고독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여가활동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더불어 직업경력에 단계마다 자신을 개발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노동과 여가의 배분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미국의 정책 및 사례

1. 노인의 여가복지 욕구 및 실태

미국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을 분석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인구학적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미국 노인들의 전반적인 인구학적 통계를 담은 연방정부 출간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의 고령화 현상을 제시한다. 본 절에서 사용하는 미국의 노인인구 관련 통계 자료는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 Related Statistics에서 발간한 Older Americans 2012: Key Indicators of Well-Being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다.

미국의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13%(4천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년은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집단인 베이비부머가 65세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로 인해 노인인구는 2030년까지 급격히 늘어날다(7천 2백만명, 미국 총 인구의 20%에 해당함) 그 이후로는 증가율이 다소 느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85세 이상 초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550만명을 차지하고 있는데(2010년 기준), 현재 베이비부머인 이들이 85세가 되는 2030년에는 이 숫자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은 2050년이 되면 85세 인구가 19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미국 노인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57%가, 85세 이상 노인의 67%

가 여성노인이었다.

미국의 노인인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Florida로 주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Florida 주 Sumter County는 전체 인구의 43%가 노인으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노인인구 비율이 15%이상인 주는 Maine, Pennsylvania, West Virginia로 나타났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Alaska(7.7%)와 Utah(9.0%)였다.

가. 미국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 형태

미국 노인들의 시간 사용 형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은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가시간 사용이다. 이는 노인 인구의 특성상 수면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행위가 여가시간이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 노인들의 전반적인 인구학적 통계를 담은 Older Americans 2010: Key Indicators of Well-Being라는 연방 정부 출간 보고서에 실린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주관하는 미국생활시간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를 이용해 미국 노인들의 시간 사용 형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량 및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 미국 노인들의 하루 평균 시간사용 형태(여가 시간 포함)

2008년을 기준으로 미국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주요 하루 행동에 몇 시간씩을 할애했는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노인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10). 5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연령군은 하루 중 23.6%를 여가시간에 보내고, 65세부터 74세는 29.7%를, 75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31.7%를 여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에서는 수업 참여나 조직에 속해 활동하는 시간은 기타 행동으로 분류하여 시간 사용을 따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포함하는 여가시간

의 사용은 더 늘어 날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6-7>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생활영역별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및 백분율

(단위: 시간, %)

구분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수면	8.3	34.4	8.8	36.5	9.1	38.1
여가 활동	5.7	23.6	7.1	29.7	7.6	31.7
일 관련 행동	3.5	14.7	1.2	5.1	0.4	1.5
집안일	2.1	8.7	2.3	9.5	2.3	9.7
다른 사람을 돌보기	0.6	2.5	0.4	1.7	0.2	0.9
식사	1.3	5.6	1.5	6.1	1.5	6.3
서비스 이용 및 물건 구매	0.9	3.6	0.9	3.8	0.8	3.1
개인위생 및 관리	0.7	2.8	0.6	2.6	0.7	2.8
기타 행동	1.0	4.1	1.2	5.0	1.4	5.6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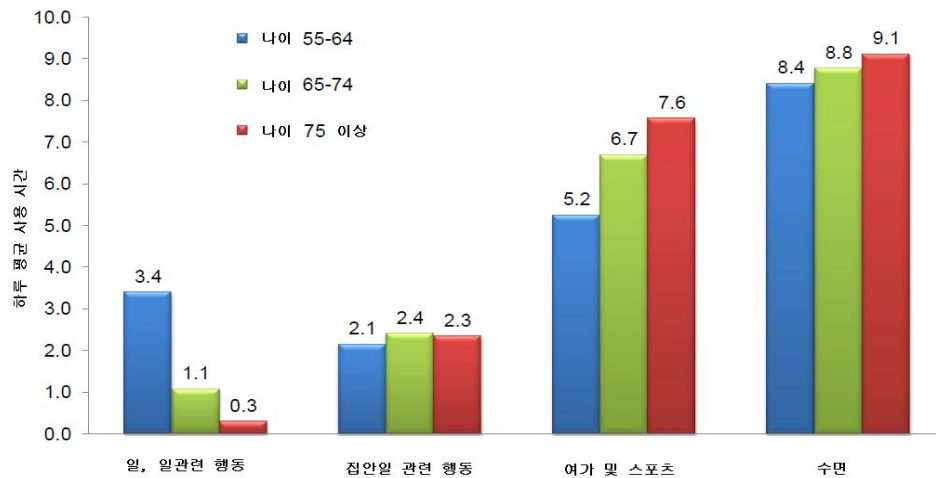
주: 1) 기타 행동은 교육적, 조직적, 종교적 활동에 보낸 시간 및 전화 사용시간을 포함함.

2) 위의 자료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수치임.

3) 위의 자료는 2008년 자료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같은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는 하루 평균 5.2 시간을 여가와 운동에 사용하였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연령 군에 속하는 노인들은 6.7시간을, 75세 이상 노인들은 7.6시간을 같은 행동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즉, 나이가 적은 노인과 나이가 많은 노인 집단 간에는 두 시간 반 이상 여가 및 운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세 집단 간에는 집안일이나 수면에서는 시간사용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발견되었다.

[그림 6-15] 55세 이상 응답자가 4가지 행동에 대해 하루 평균 사용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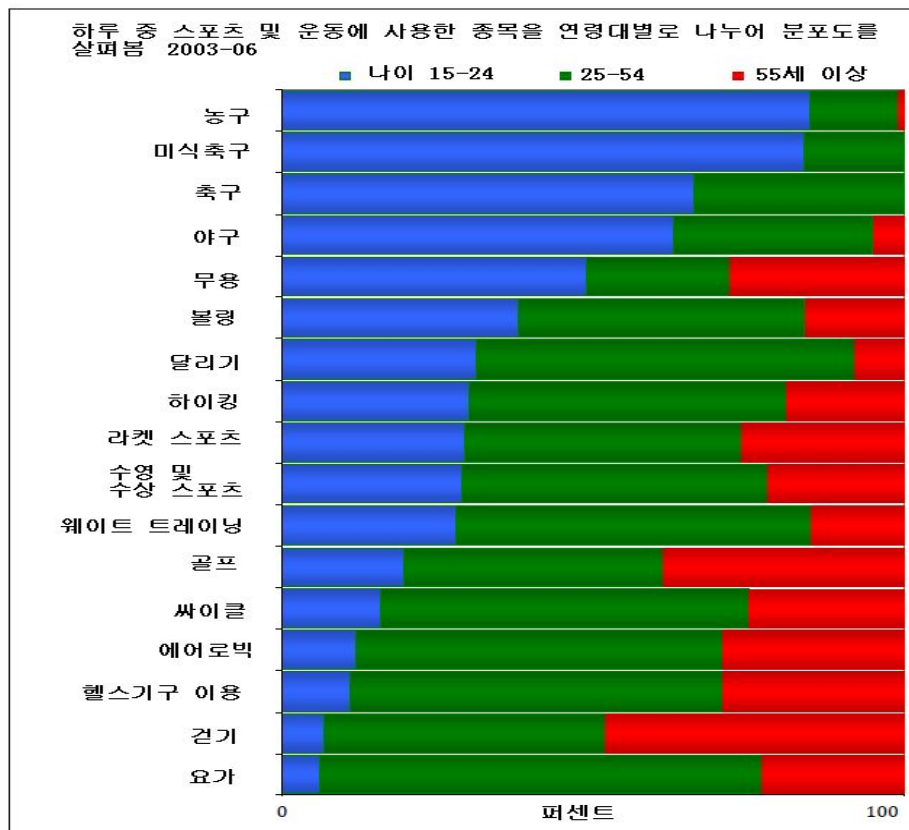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데이터는 2006-2010년 자료임.

2)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노인들의 시간사용 패턴

미국생활시간조사에서는 17가지의 스포츠 및 운동과 관련된 시간 사용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노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운동은 걷기였다. 이어서 골프, 무용, 에어로빅, 헬스기구 이용 및 라켓 스포츠 순으로 신체적 여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들이 가장 참여하지 않는 여가 스포츠로는 단체로 활동을 필요로 하는 미식축구와 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적 여가 생활 중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걷기라는 점은 흥미롭다. 흔히 스포츠 및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장소, 시간적 제약을 떠올리기 쉬운데 걷기는 다른 운동에 비해 장소, 시간, 설비 등에 구애를 받지 않는 활동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여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걷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림 6-16] 연령대별 스포츠 및 운동에 사용한 분포도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데이터는 2003-2006년 자료임.

3) 노인 연령대별 여가시간 사용 형태

위의 그림에서는 노인들이 참여한 스포츠 및 운동을 중심으로 여가생활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전체적인 여가사용 시간을 세 가지 연령대별로 구분하였다. 우선 연령대와 관계없이 노인들의 여가사용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행동은 TV보기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하루 평균 총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TV보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의 여가 형태는 연령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55세 이상 64세 이하 응답자간에는 교제 및 소통이 12.5%를 차지하여 2위를 나타냈고, 75세 이상 집단 간에는 읽기가 13.7%로 TV 시청 다음을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교제 및 소통(친구 만나기, 모임 참석하기 등)/ 스포츠·운동·오락참여 두 부분 모두 연령대별 간 실제 사용 시간은 유사하나 해당 행위가 하루 총 여가시간 중 차지하는 백분율은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휴식 및 사색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여가시간 사용 형태

(단위: 시간, %)

구분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하루 평균 사용 시간	비율
TV 보기	3.3	57.8	4.0	56.3	4.2	55.2
읽기	0.5	9.3	0.8	11.0	1.0	13.7
교제 및 소통	0.7	12.5	0.7	10.2	0.6	8.3
스포츠, 운동, 오락참여	0.2	4.1	0.3	4.2	0.2	2.3
휴식 및 사색	0.3	5.0	0.4	6.3	0.7	9.7
기타 여가	0.6	11.3	0.8	11.9	0.8	10.9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위의 자료는 2008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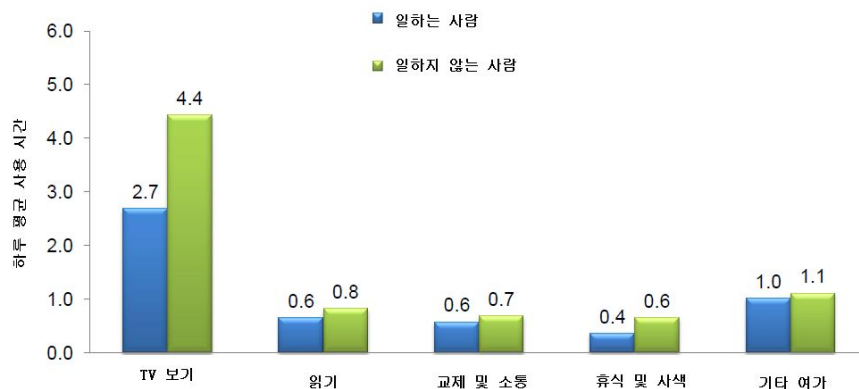
2) 기타 여가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이동 시간도 포함함.

4) 근로 유무별 여가 시간 사용 구분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근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근로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구분하여 여가 사용 시간을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길다. 이는 근로하지 않는 노인이 근로하는 노인보다 하루 중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제외한 재량시간이 더 길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읽기, 교제 및 소통, 휴식 및 사색, 기타 여가에서는 평균 사용 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TV를 보는 시간에 있어서는 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4.4시간을, 일을 하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2.7시간을 TV보기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에서는 여가 시간 사용 장소가 어디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TV 보기, 읽기, 휴식 및 사색 등은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6-17] 65세 이상 근로 유무별로 본 여가사용 시간 형태 (단위: 시간)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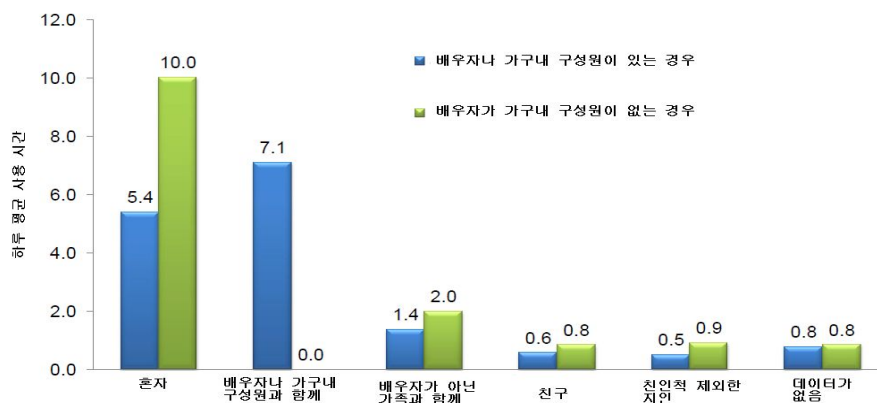
주: 데이터는 2010년 자료임. 기타 여가는 여가생활과 관련된 이동 시간도 포함함.

5) 여가 시간을 함께한 사람

65세 이상 노인들이 비수면, 비근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면 이들이 여가시간을 포함한 하루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림 6-4]에 의하면 가구 내에 배우자 및 다른 구성원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을 혼자 지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보낸 시간은 2시간, 친구와 보낸 시간은 0.8시간, 혈연관계가 아닌 지인과 보낸 시간은 0.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가구 내 구성원이 있는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혼자서 보내는 시간은 5.4시간으로 비교집단보다 절반가량 적었다. 또한 배우자나 가구 내 구성원과 보내는

시간은 7.1시간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 많았다. 이외에는 배우자가 아닌 가족과 1.4시간, 친구와 0.6시간, 혈연관계가 아닌 지인과 0.5 시간을 사용하였다. 노인들의 하루 시간 사용을 누구와 함께 했는지를 토대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유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배우자나 가구 내 구성원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살지 않는 다른 가족, 친구, 친인척이 아닌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8] 65세 이상 비수면, 비근로 시간 사용을 함께한 사람(단위: 시간)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데이터는 2006-2010년 자료임.

6) 성별로 본 여가시간 사용도 차이

Krantz-Kent와 Stewart는 노인의 여가시간 사용도 차이를 분석하며 노인집단을 4가지 연령으로 나누었다. 즉, 55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69세 이하, 70세 이상으로 나눈 후 남녀 노인의 시간을 따로 분석하였다. <표 6-9>에는 여가 및 운동 시간을 5개 종류로 구분한 하루 평균 시간 사용량이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TV 시청 시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표 6-9> 55세 이상 남·여 노인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사용량

(단위: 시간)

구분	55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69세 이하		7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교제 및 소통	0.6	0.8	0.7	0.7	0.7	0.8	0.7	0.8
TV 보기	2.8	2.2	3.1	2.6	3.9	3.1	4.2	3.8
스포츠, 운동 오락참여	0.3	0.2	0.4	0.2	0.3	0.2	0.3	0.1
휴식 및 사색	0.3	0.2	0.4	0.3	0.5	0.4	0.7	0.7
읽기	0.4	0.6	0.5	0.7	0.7	0.9	1.1	1.1
여가 및 운동 시간(총)	4.9	4.3	5.6	5.0	6.9	5.9	7.7	7.0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주: 1) Krantz-Kant & Stewart의 자료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2) 본 자료는 2003-2004년 자료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을 요약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여가시간은 노인들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사용량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가 사용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TV보기로 나타났고, 운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걷기였다. 근로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근로하지 않는 사람의 여가 시간이 길었고,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인여가복지정책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여가복지정책을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본다. 첫째는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여가프로그램이고, 둘째는 노인교실을 통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셋째는 자원봉사를 통한 노인들의 여가 생활측면이다. 여기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미국 노인의 특성을 조사한 선행 연구보고서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근 통계를 인용하여 위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노인복지관을 통한 여가복지

미국의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은 노인복지관을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노인법에 따르면, 다목적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에게 건강, 정신 건강, 사회, 영양, 교육서비스와 여가활동의 광범위한 서비스를 조직하고 전달하는 지역사회기관”이다(오영희 외, 2002).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노인복지관에 대한 자료는 National Council on Aging(고령위원회)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Senior Centers(전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였다(2012).

먼저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 전역에 11,00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100만명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평균 나이는 75세로, 70%가 여성이고, 절반 정도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75%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노인복지관을 찾고 있으며, 1회 방문 시 3.3시간을 복지관에서 보낸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여가와 교육, 사회서비스 등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노인복지관의 재정적 지원은 한군데가 아닌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의 지원 외에도 특별행사개최, 기부, 현물기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같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세 군데에서 여덟 군데에 이르는 크고 작은 재정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평가프로그램인 Performance Outcomes Measures Project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노인복지관의 수를 10,000개에서 16,000개로 추산하였는데, 이 중에 6천개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법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노인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금을 받은 주정부 노인국(State Units on Aging)과 지역정부의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서 집행 방식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보인다(Administration on Aging, 2004).

한편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은 각 주마다 구심점으로 간주되는 노인복지관의 수와 노인법이 지원하는 노인복지관의 수를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발간 자료 중 가장 최근 정보인 2010년 수치를 토대로 재정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표 6-10>을 보면 노인복지관이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지정되어있는 비율과 전체 노인복지관 개수를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4%의 지역사회 구심점이 곧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나타났다(총 6,958개소). 다음으로 주별 노인복지관의 숫자 및 재정 정보를 살펴본다. 주당 500개 이상 노인복지관이 있는 곳은 California(507개소), New York(697개소), Texas(603개소), Utah(655개소)로 집계되었다. 이는 노인 인구수 뿐 아니라 노인 인구밀도, 지역의 크기, 도시 간 거리 등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이 노인법 Title III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6-10>의 맨 오른쪽 칼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내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이 노인법에 근거한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Washington, D. C., Pennsylvania 등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주도 있었다(Delaware와 Kansas).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노인복지관 수(11,401개소)의 절반 이상인 56%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표 6-10> 노인복지관 현황(2009~2010년 자료)

(단위: 개소, %)

	노인 복지관 총계	구심점 총계	구심점이 곧 노인복지관인 곳의 수	구심점이 곧 노인복지관인 비율	노인법 3장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관의 수	노인법 3장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관의 비율
AK	62	49	30	61.2	31	50.0
AL	362	380	362	95.3	349	96.4
AR	182	147	141	95.9	182	100.0
AZ	229	107	107	100.0	195	85.2
CA	507	519	383	73.8	276	54.4
CO	133	248	133	53.6	19	14.3
CT	161	112	89	79.5	26	16.1
DC	11	8	3	37.5	11	100.0
DE	47	0	0	0.0	0	0.0
FL	212	253	133	52.6	131	61.8
GA	266	206	154	74.8	214	80.5

	노인 복지관 총계	구심점 총계	구심점이 곧 노인복지관인 곳의 수	구심점이 곧 노인복지관인 비율	노인법 3장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관의 수	노인법 3장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복지관의 비율
GU	12	15	12	80.0	12	100.0
HI	39	39	16	41.0	3	7.7
IA	143	119	77	64.7	61	42.7
ID	97	91	76	83.5	93	95.9
IL	201	157	111	70.7	127	63.2
IN	171	120	93	77.5	79	46.2
KS	367	238	217	91.2	0	0.0
KY	133	130	130	100.0	123	92.5
LA	139	214	139	65.0	0	0.0
MA	311	391	310	79.3	114	36.7
MD	123	132	119	90.2	120	97.6
ME	20	29	20	69.0	20	100.0
MI	400	367	241	65.7	172	43.0
MN	427	460	335	72.8	6	1.4
MO	225	230	225	97.8	197	87.6
MS	5	36	3	8.3	3	60.0
MT	162	129	117	90.7	158	97.5
NC	162	198	112	56.6	72	44.4
ND	217	8	0	0.0	0	0.0
NE	377	185	158	85.4	201	53.3
NH	63	13	12	92.3	0	0.0
NJ	285	242	116	47.9	124	43.5
NM	156	138	136	98.6	155	99.4
NV	71	94	71	75.5	48	67.6
NY	697	810	570	70.4	450	64.6
OH	330	216	190	88.0	143	43.3
OK	466	296	247	83.4	179	38.4
OR	99	133	93	69.9	46	46.5
PA	343	447	343	76.7	343	100.0
PR	154	154	154	100.0	143	92.9
RI	47	10	10	100.0	11	23.4
SC	84	100	71	71.0	83	98.8
SD	340	0	0	0.0	76	22.4
TN	123	115	109	94.8	93	75.6
TX	603	429	298	69.5	355	58.9
UT	655	82	74	90.2	654	99.8
VA	146	226	120	53.1	124	84.9
VT	86	39	34	87.2	54	62.8
WA	265	85	72	84.7	127	47.9
WI	293	82	0	0.0	4	1.4
WV	120	204	120	58.8	120	100.0
WY	72	78	72	92.3	72	100.0
US Total	11,401	9,310	6,958	74.7	6,399	56.1

자료: http://www.aoa.gov/aoaroot/program_results/SPR/2010/Index.aspx(접속 날짜: 2012년 10월 15일, 상단의 URL에 접속하여

Table 10 자료 내려받음)

나. 노인교육 정책을 통한 여가복지

미국의 노인교육은 주정부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자유롭게 실시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노인법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법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제3조 훈련, 연구, 임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교육적 방향을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의 두 가지로 잡고 있다(김태준 외, 2007).

노인법 이외에 노인교육에 주요 역할을 하는 정책은 학비면제정책과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 프로그램은 고용과 관련된 기회제공 및 취업에 적합한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여가서비스의 관점에서 노인교육을 조망해보는 본 연구와 거리가 있으므로 학비면제 정책만을 다루기로 한다. 학비면제정책은 노인들이 주립 또는 공립대학에서 다른 연령의 학생들과 같이 학점을 이수하거나 학위취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노인들은 수업료 감면혜택 또는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Manheimer, 1995; 김태준 외 2007 재인용). 한편 Laanan는 지역단위별로 있는 community college (카운티나 시 단위의 전문대학교)의 수강생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한 한 이유로 인하된 수업료와 집세가 가까운 편리한 위치, 다양한 강의 개설 등을 꼽았다고 하였다(Laanan, 2003).

Eisen(1998)은 미국 노년교육을 자격인증, 편리성, 사회화, 개인관심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사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인지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지의 여부와 학점과정인지 비학점과정인지의 여부도 분류체계에 포함하였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학생주도의 개인관심영역이 노인교육을 통해 주력할 수 있는 여가복지의 영역이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시는 도서관·인터넷이용,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 취미·학습 동호회활동, 자원봉사 공동체에 참여를 들 수 있다(Eisen, 1998; 김태준 외, 2007).

이 밖에 비영리단체 주관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OASIS(Older Adult Service and Information System)로 24개주 40여개 도시에

서 위치하여 노인들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이용자는 5만 6천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의 백화점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센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주요한 차이점은 개설되는 강의 내용이 50세 이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화했다는 점이다. 즉, 노인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를 개발하고, 기술적으로나 신체적 참여 강도 면에서도 이들에게 적합하며, 노인들이 수업을 통해 실용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을 강좌 개설에 반영한다. OASIS는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므로 참가자들은 수업료와 등록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다. 자원봉사를 통한 여가복지

미국 노인들의 여가 생활에서 자원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서 발간한 Beyond 50.05 A Report to the Nation on Livable Communities: Creating Environments for Successful Aging에 따르면 50세 이상 미국인의 68%가 지난 12개월 동안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원봉사를 한 이들은 평균적으로 한 개 이상의 기관을 위해 봉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봉사자들은 평균 1.8개의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였고, 이들의 18%는 4개 이상의 단체에 참가하여 자원봉사를 하였다. 75세 이상 봉사자들 또한 평균 1.6개의 기관을 위해 봉사를 하였는데, 4개 이상의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를 한 응답자도 15%나 있었다. 이들의 활동량을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50세 이상 자원봉사 유경험자들은 월 평균 10시간 이상을 봉사하는데 사용하였다.

<표 6-11> 노인자원봉사자의 비율

(단위: %, 개소, 시간)

구분	내용		
50세 이상 응답자 중 자원봉사 유경험자 비율	68		
연령집단	50~64세	65~74세	75세 이상
4개 이상의 단체에 참가하여 자원봉사를 한 노인의 비율	25	18	15
자원봉사를 한 기관 수(평균)	2.1	1.8	1.6
50세 이상 자원봉사유경험자의 월평균 봉사시간	10.5		

주: Beyond 50.05 A Report to the Nation on Livable Communities: Creating Environments for Successful Aging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앞에서 AARP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전반적인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현황을 살펴 보았다면, 여기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된 노인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Senior Corps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박세경 외, 2010) 제4장에서 제공한 미국의 자원봉사 현황과 Senior Corps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Senior Corps(전국노인봉사단)은 55세 이상의 이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서비스법인(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이 관리하고 있다. 노인봉사단의 법적 근거는 미국봉사법(Serve America Act)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09년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자격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위탁조부모프로그램의 시급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에 있던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법의 목적에다 노인의 봉사기회 확대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박세경 외, 2010).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0년 개정안에는 Senior Corps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Senior Corps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는 프로그램은 RSVP(Retired Senior Volunteer Program)이다. 2012년 2월에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RSVP는 한 해 296,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6천만이라는 봉사시간을 기록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주정부지원이 약 5천만 불, 비주정부지원이 약 4천만불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지만, 봉사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에서 개인 봉사자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Foster Grandparent Program은 노인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조부모님과 같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린나 이에 자녀를 양육하게 된 젊은 부모들에게도 다양한 도움을 제공한다. Foster Grandparent Program을 통한 자원봉사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7,9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만 이란 봉사시간을 기록하였다. RSVP와 비교했을 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수는 작 지만 참여자들은 약간의 금전적인 대가로 시급을 받으며(소득을 기준으로 해당자를 먼저 선정함) 사고 및 재해에 예방하는 보험과 식사, 교통비, 월별 교육을 제공받는다. 마지막으로 Senior Companion Program은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돕는 형태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자원 봉사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 역시 Foster Grandparent Program과 유사하게 참여자들은 약간의 금전적인 대가로 시급을 받으며(소득을 기준으로 해당자를 먼저 선정함) 사고 및 재해에 예방하는 보험과 식사, 교통비, 월별 교육을 제공받는다.

3. 미국 내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미국 내 여가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어떤 한 지역의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의 노인복지 여가서비스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 지역 워싱턴 D. C 및 인근 지역인 메릴랜드 주로 한정지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워싱턴 D. C에서 소개하는 사례가 인구 밀도나 대중교통 접근도로 보았을 때 도심형 모델에 해당하므로, 도심 외곽에 있는 주거지 중심 모델로는 Howard County, Maryland 내 구립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

터에서 제공되는 여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한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문화·여가 중심인지, 치료 중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가 중심으로 사례를 조사하였다.

가. 노인이파트 내 여가 프로그램 Friendship Terrace Retirement Community, 워싱턴 D. C 소개

프렌드십 테라스는 18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인이파트로 의료진 및 요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주거형태를 가진다. 건물 내 시설로는 식당, 도서관, 컴퓨터실, 발코니, 다목적 여가실, 세탁시설, 미용실, 세탁소 등이 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근무하며 노인이파트 거주자들이 가족이나 돌봄 서비스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내 직원들 및 입주민들이 거주지 내 여가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운동, 문화, 종교, 취미 등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활동 형태는 동호회 또는 수업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임 장소는 거주지 내 다목적 여가실 또는 방을 이용해 모임을 진행한다. 주중에는 매일 건강증진관련 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스트레칭, 요가, 치공, 타이치 수업이 요일별로 모임을 갖는다. 그 밖에도 주민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카드게임, 영화 감상 등이 있고, 공통의 취미를 가진 노인들끼리 만남을 갖는 시 작문 모임, 음악 감상 모임 등이 정기적으로 모인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여가 프로그램이 공지되어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노인이파트 내 여가프로그램은 한국의 경로당과 흡사한 점이 있다. 물리적으로 주거지역 내에 존재한다는 점,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여가 프로그램이 주요 행사인 점, 참여비용이 실비이거나 무료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표 6-12> Friendship Terrace 노인 아파트 내 여가 활동표: 2012년 6월 기준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여가 종류 및 시간	스트레칭 (10시) 성경공부 (2시) 음악감상 (5시)	요가수업 (10시15분) 카드게임 (11시)	스트레칭 (10시) 노래 (10시30분) 시작문 (2시) 음악감상 (5시)	치공 수업 (10시30분) 말 맞추기 (2시)	타이치 (12시) 영화감상 (7시)	카드게임 (1시30분) 영화감상 (7시)

나. IONA Senior Services 내 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워싱턴 D. C 소재

아이오나 노인 복지관은 워싱턴 D. C 북서쪽에 위치한 센터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가복지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을 두 가지 방면으로 소개한다. 첫째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데이케어센터 내 여가프로그램이다. 둘째는 복지관까지 오지 않고 거주지 가까이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 종교시설의 장소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여가 및 운동 프로그램이다.

1) 아이오나 데이케어센터 내의 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센터 내 데이케어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보호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다. 노인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후 낮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건강유지와 사회적 참여를 도모한다. 데이케어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이 중 점심 및 간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진행자가 있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케어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참여기회가 주어지므로 사전에 서류접수를 하지 않고 당일 방문하여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데이케어 이용비 외에 별도로 개별 프로그램 참가비를 내지 않는다.

요일별로 여가프로그램이 바뀌며 주로 운동, 게임, 문화(미술, 음악), 공예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개설된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요가, 스트레칭, 체조가 있고, 게임에는 퍼즐, 도미노, 카드게임, 체스 등이 자주 진행되는 여가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스토리텔링, 음악감상, 공예수업 등은 자원봉사자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매월 야외행사도 포함되어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2012년 5월 프로그램에 따르면 야외소풍, 박물관견학, 동물원 방문 등의 외부 여가활동 일정이 잡혀있다.

<표 6-13> The Harry and Jeanette Weinberg Wellness & Arts Center (아이오나 데이케어 여가 복지 프로그램: 2012년 5월 기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여가 프로그램 종류	체조 스토리텔링 게임 음악감상	체조 화초가꾸기 퍼즐 손톱관리	앉아서 하는 체조 음악 감상 게임	앉아서 하는 요가 시 작문 수채화그리기 게임	스트레칭 시작문 퍼즐

2) 아이오나 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여가복지프로그램

아이오나 노인복지관에서는 거주 지역 내에서 여가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고려해 지역 내 종교시설(교회)을 빌려 노인교실 형태의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점심식사, 뜨개질 모임, 컴퓨터 수업, 운동(타이치, 요가), 미술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영화 상영을 하며, 영양사, 법률가 등이 초청 강사로 나와 노인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시간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10시부터 시작하는 오전 여가프로그램이 있고 12시부터 30분간 점심 식사 후, 12시 45분부터는 오후 여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점심비용과 여가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무료이지만,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운영비에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인들이 참여하며 프로그램

기획부터 진행까지 많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내 노인 및 자원봉사자들, 교회 담당자, 그리고 노인복지관 전문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표 6-14> Iona's Active Wellness Program at St.Alban's Episcopal Church 아이오나가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2012년 5월 기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여가 프로그램 종류	운동 컴퓨터 수업	운동 타이치 뜨개질 모임	빙고 게임 퍼즐	미술 수업 컴퓨터 수업	빙고 게임 요가 영화 상영

다. 노인국 산하 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Howard County, Maryland 주)

Senior Center와 Fifty Plus Center는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카운티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관과 같은 모델로 새로운 참가자는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시설 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직접 운전하여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Senior Center Plus는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시간이 짧고, 치료 및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노인을 보살피는 보호자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respite care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참가를 할 수 있다. Senior Center Plus에 오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센터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기타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통지원 서비스를 받아서 참가를 한다.

1) Senior Center 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가) Ellicott City Senior Center 하워드 카운티 내 엘리컷 시티 노인복지관
(2012년 6월)

엘리컷 시티 노인복지관은 대규모 노인복지관으로 다양한 여가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45분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여가 관련 운동 프로그램으로는 에어로빅 수업, 앉아서 하는 운동 수업, 무용 수업(줄바, 라인댄스)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으로 참가자들은 수업료를 내고 등록한 후 활동한다. 비운동 여가 수업으로는 미술 수업을 개설되어 있다. 클럽 활동으로는 바느질 모임, 토론회, 카드 게임 모임이 있으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친목을 도모한다.

시설의 규모가 크고 참가 인원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수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6-15> 엘리컷 시티 시니어 센터 여가 프로그램(2012년 6월 월요일)

Time	Program	Room
8:45am - 9:30am	줄바	체련실
9:30am - 10:30am	에어로빅	체련실
10am - 12noon	미술	미술실
10am-3pm	카드게임	다목적실
10:45am-11:45pm	운동	체련실
11:45am-12:45pm	앉아서 하는 운동	체련실
1pm-4pm	카드게임 I	다목적실
1pm-4pm	카드게임 II	교실
1pm-4pm	탁구	체련실
5:30pm-6:30pm	줄바	체련실
6:30pm-7:30pm	요가	체련실

나) Senior Center Plus 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Ellicott City Senior Center Plus 하워드 카운티 내 엘리컷 시티 노인복지관 Plus(2012년 6월)

엘리컷 시티 시니어 센터 플러스는 같은 이름의 노인복지관 안에 위치해 있다. 4시간(반일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목적의 여가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함께 점심을 먹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으며 금요일은 원하는 사람들끼리 볼링장에 모여서 친선 게임을 치른다.

<표 6-16> 엘리컷 시티 시니어 센터 플러스 여가 프로그램(2012년 6월 기준)

구분	월	화	수	목	금
여가 프로그램 종류	역사이야기 낱말맞추기 운동	역사이야기 미술수업 운동	역사이야기 게임 운동	역사이야기 음악 게임 운동	볼링

4. 요약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의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검토해 보았다. 앞에서 노인의 여가복지 프로그램의 정책적 기반을 살펴보았고, 이어서 미국 노인들의 여가 사용에 관한 문헌을 검토와 함께 시간 사용을 통한 여가 이용 패턴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노인복지시설 및 주거시설에서 제공하는 여가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 주제인 한국 내 적용 가능한 여가 복지 모델을 탐색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 소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여가생활의 주요 무대가 되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조달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인복지관의 재정 운영방식과 자립도는 지역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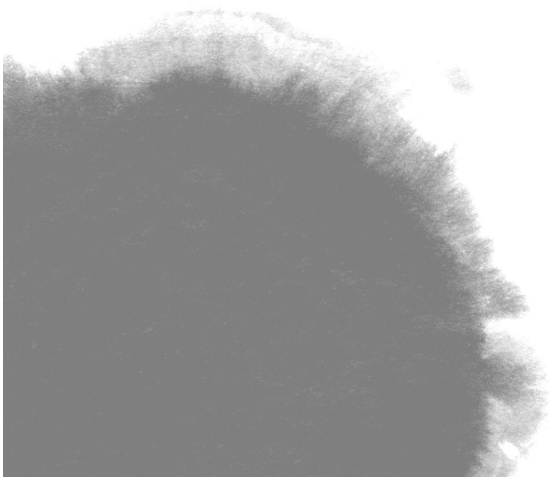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지역은 노인법에 근거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러한 케이스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들 기관은 어떻게 다른 많은 기관들이 지원받고 있는 연방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이 없이도 복지관 운영이 가능하였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재정 부족으로 여가프로그램 확장 및 내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복지관들이 위에서 언급한 해당 복지관을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둘째, 미국에서는 노인의 여가 생활에 관한 지원이 법률과 프로그램으로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가도 복지의 주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이 가정되었기에 가능하다. 미국도 초기에는 노인의 여가에 관한 지원은 언급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개정되면서 노인여가와 관련된 정책은 점차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봉사, 여가활동과 같은 노인의 사회참여가 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더욱 확장되었다.

셋째, 본 절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노인인구의 특성들이 거론되었는데, 초고령 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프로파일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들이 참가할 만한 눈높이에 맞는 여가활동 개발과 확대가 중요해짐을 시사한다. 즉, 85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까지의 이동문제, 프로그램에 독립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보조인과 같은 추가 인력이 필요한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의 전형적인 이용자들이 75세 정도의 여성이라는 점도 국내 여가복지서비스 개발에 있어 시사점이 크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은 젊은 노인층이, 경로당은 더 나이가 있는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평균 연령이 더 이상 젊은 노인층이 아니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요약해보면, 여기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여가 활동 형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여가복지서비스 개발 및 연구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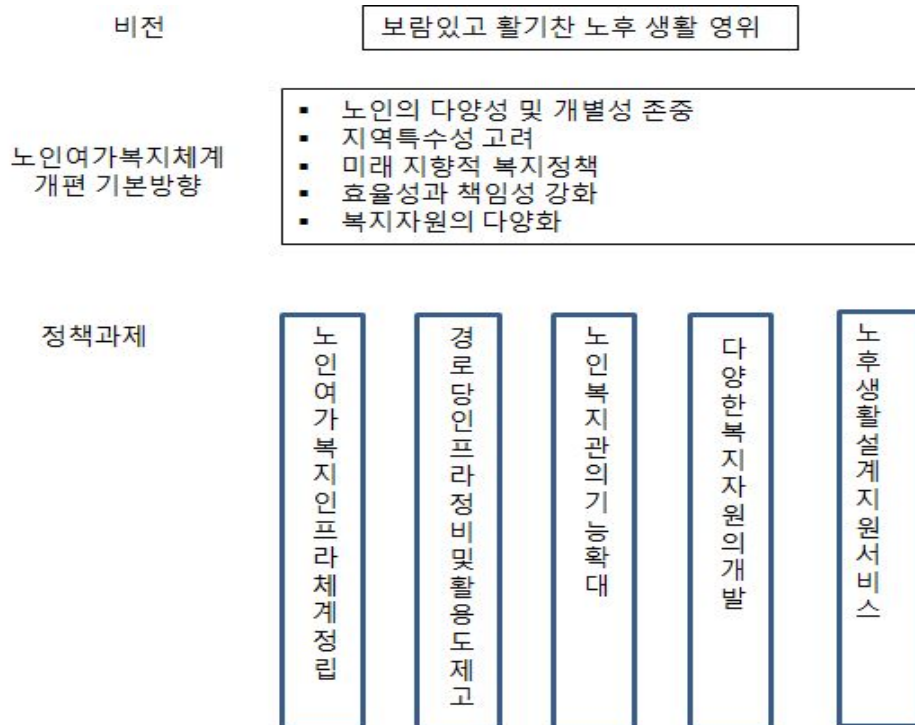


제7장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방안

제1 절 노인여가복지 개편의 기본방향

노인 여가복지정책 개편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7-1]과 같다. 노인여가복지의 향후 비전은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로 하며, 이를 위한 개편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7-1] 노인여가복지정책 개편 방향 및 정책과제



1. 노인의 다양성 및 개별화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2012년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1948년 이전 출생자이며 향후 5년 이내 한국전쟁 이후 출생자가 노인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하고, 계속하여 거대한 인구규모를 갖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진입이 예상된다.

즉, 향후 10년간 노인세대 진입할 세대는 현 노인세대와는 그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개개인에게는 노인으로서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되었으며,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가 진전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점차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여가문화산업 또한 성장하였다. 현 노인세대에서도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청·장년층의 여가문화에 대한 경험은 노년기에서도 욕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또한 점차 학력이 높은 노인층이 진입하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안정화된 직업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세대가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향후 노인세대의 여가문화적 욕구는 점차 다양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형태 및 성, 청·장년층의 여가문화 경험 등에 따라 다양화된 여가문화활동을 기대할 것이다. 또한 여가문화의 활동 종류의 다양성 뿐 아니라 수준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욕구가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는 점차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수성: 고령화 수준과 향후 인구변동에 대한 고려

노인여가복지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지역 특수성이다. 우리나라

전체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를 갖고 있다. 시·군·구 단위의 고령화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0%에 육박하는 지자체가 나타날 정도로 지역별 고령화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지역의 고령화 수준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향후 지역별 인구규모의 변화이다. 현재 군 지역(농촌)은 매우 높은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고령화 인구규모가 증가하는 것 보다는 전체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특수성으로서 해당 지역의 면적, 교통수단의 상황 등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특수성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인의 노후생활 유형의 차이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의 경우 경제활동 또는 소일거리로서 활동거리가 존재하지만, 도시지역 노인의 경우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나 소일거리 창출이 쉽지 않은 특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 개편에 있어 지역의 특수성은 미래 인구규모의 변화, 산업구조, 지리적 특성 등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미래지향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높은 고령화를 경험하게 되는 국가이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높은 사회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 개편에 있어서는 현 노인세대와 향후 노인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효율성 및 책임성

노인여가복지 개편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복

지정책과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의 중복 실시, 서비스 지원의 비합리성,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 없이 계속적인 지원 등의 문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여가복지사업에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편적이며, 유사한 서비스 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책임성 있는 정책설계와 집행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노인여가복지 개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편과 서비스(지원)에 대한 점검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복지자원의 다원화

복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는 복지자원의 다원화(welfare mix)를 통해 공공 복지자원 이외의 다양한 자원의 발굴을 통한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노인여가복지 개편에 있어서도 복지자원의 다원화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고려되어야 할 수 있는 복지자원은 국가 이외의 개인, 영리 민간, 비영리 민간단체, 기업, 대학 등이다. 다양한 복지자원의 활용은 노인 욕구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개별적 노인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으며, 또한 효율성에도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노인여가복지정책 개선 방안

1.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체계 정립

노인복지법의 노인시설 분류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며, 사례조사 등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제정한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형이 나타났다. 예

를 들면, 인천광역시의 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에서 사회교육기능 특화 형태), 광역 단위의 노인종합문화센터(고급 노인여가문화 수행 모형), 서울시의 노인복지센터 모형(소규모 노인복지관의 형태로서 사회교육, 요양기능을 함께 수행), 충청남도 행복 경로당(면 단위의 경로당 형태: 사회교육 프로그램 실시)과 같은 여러 형태의 노인 여가복지 인프라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현재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의 형태에서 보다 여가문화에 초점을 두고 수준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여가복지의 선두적 지역의 사례에서 보면 노인여가육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단계별 인프라 체계를 구성하고 또한 대중적 여가육구 충족을 위한 소규모 시설 확대를 통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는 노인여가의 다양하고 계층화된 육구 충족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대학수준 등)의 교육기회, 프로그램 제공(시·도 단위) - 중급 수준(시·군·구 단위 노인복지관) - 대중적 여가문화 육구(시·군·구내 권역 수준, 노인복지관 분관형태 수준) - 향유 및 친목 중심 여가 육구(경로당)로 단계적 체계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의 단계적 인프라 체계 구축을 인프라 유형별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 경로당 인프라 정비 및 활용도 및 책임성 강화

기존 인프라에 대한 검토(제2장~제4장)에서도 분석한 것과 같이 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및 자원투입은 경로당에 초점이 되어 구축되어있다. 경로당은 전국 5만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있음으로 인해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며, 노인의 휴식 및 여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인력 및 운영에서 매우 미흡하며, 실태에 대한 파악 등이 부족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노인의 모임장소,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 내 노인의 모임장소, 일부 프로그램의 실시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경로

당은 노인의 이용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장기적인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경로당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은 양적 증가 제한, 경로당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반의무화로서, ①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및 정비, ②경로당 관련 사업 주체의 일원화, ③경로당 프로그램비 확대 및 지역별 경로당 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가. 경로당 설치 기준 강화 및 정비

현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누구든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노인인구의 경로당 이용율은 34.2%(2011년 노인실태조사)로, 노인 약 1,902천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개 경로당별 평균 이용노인은 31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인의 1주일 평균 이용일수는 3.8일임을 고려하면 1일 평균 1개 경로당 평균 이용노인은 약 18명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경로당 규모(60,737개소)는 전국적인 인프라 규모로 볼 때 더 이상의 증가는 과다공급이라 볼 수 있다. 단, 지역별로 경로당 이용율 등에 따라 공급 적절성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역별 경로당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주택법의 경로당 설치 의무조항을 공동주택에서 관리·운영하는 해당 주민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 예산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며, 특히 소규모 경로당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등이 어려워 몇몇 노인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체계 내에서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과 이용인원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에

대한 단계적 통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진하여 통합하는 경로당에 대한 추가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대상 경로당은 월 평균 연인원 규모가 400명 미만(1일 20명×20일 기준)인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경로당 관련 사업주체의 일원화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과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추가적인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경로당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사례는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한 모범사례이다. 인천광역시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과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노인복지관에 배치하여 기존 노인복지관의 경로당활성화사업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지회와의 협조를 통해 경로당 추천 및 선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이다.

즉, 현재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여력을 지자체별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노인복지관의 별도의 사업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사례조사 결과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지역 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현황에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고, 담당직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대폭 지원 확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가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을 개방하고, 외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고리로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의 지원은 상당부분 운영비와 난방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경로당에서의 여가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경로당 주 1회 프로그램 실시”를 목표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율을 지자체 복지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시·군·구별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경로당 이용을 증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관: 지역 노인여가복지 중점사업의 초점화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약 8.8%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 거주 노인 인구수(전체 노인의 약 95%)와 노인복지관 수(259개소)를 고려할 때, 1개소 당 평균 이용노인은 약 1,900명으로 나타난다. 1주간 평균 이용일수(2.5일)를 고려한다고 해도 노인복지관 1개소 당 1일 평균 이용노인은 약 1,000명이다. 점차 노인의 여가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특히 노인복지관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관의 인프라 확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노인복지관(소규모 노인여가센터) 인프라 확대 기준 개발

노인복지관 개편방안은 1개 시·군·구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 설치의 현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가 전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인구 2만명 추가 시 1개소를 추가 건립(이용인원 약 2,000명 규모)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노인복지관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소규모 또는 특화된 사업 중심 모형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지역노인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모델로 판단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역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동반되므로, 기존 노인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최대한 행정소요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별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상황이 각기 다를 수 있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관 이용 주요 대상이 노인층이므로 별도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보다는 사회복지관의 분관방식으로 노인여가센터 또는 복합노인센터 형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 노인복지관의 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중점 기관 역할을 위한 개선방안

노인복지관의 지역 노인여가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재 노인복지관의 수행해야 할 사업 영역에서 일부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은 경로당 관련 사업이다. 이는 향후 지역 내 경로당 관련 사업의 통로를 일원화시키고, 현재 노인복지관의 의무 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단,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관련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여가 사업 실시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내 노인여가사업에 대한 민간 재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다. 이는 현재 정원 제한으로 인한 노인복지관 이용에 제한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4.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

가. 대학의 정원 외 노인 입학제도

노인층의 다양화로 인하여 대학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정원 외 노인의 입학(편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학 입학 외의 과목 단위 수강을 허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의 개발

지역 내의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특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간 부족으로 희망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도록 한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과 연계하여 초등학교에서의 노인교육(노인여가프로그램 진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세대 간 교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노인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민간 노인 여가지원 기관 활성화: 여가문화바우처 또는 할인카드 제도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예: 노인복지관) 이외에도 노인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설들(예: 기원,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이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노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가문화바우처 또는 할인카드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공공과 민간 시설들, 그리고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역 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우려되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의 역할

또한 수행할 것이다.

라.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확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일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 등의 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단,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확대제도를 도입할 때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5. 노후 생활 설계 지원 서비스

최근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노후준비 설계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미리 노후를 준비하여 계획되고 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미 노인세대로 접어든 경우는 노후에 대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 경우가 많고, 노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노후생활설계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속에서 가족관계와 여가활동,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향후 살아갈 노후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IT교육 확대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SNS기술이 확대되면서 IT기술을 통한 사회소통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지는 정보사회로 진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 노인층과 향후 노인층으로 진입한 세대에서는 빠른 정보화 발전에 뒤처져 사회의 정보소외계층이 될 확

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IT교육의 확대는 다양한 노인의 여가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매체일 뿐 아니라 고령사회의 정보소외계층 축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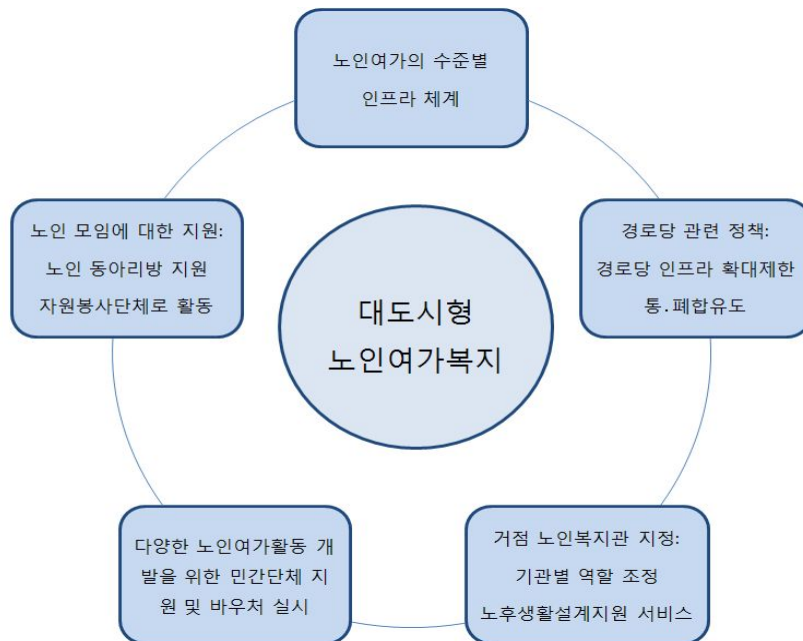
제3절 지역별 노인여가복지 모형 제안

노인여가복지 정책은 노인 특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가복지의 특성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여가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방안은 제2절에서 논의되었으며, 그 이외의 지역적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을 본 제3절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은 대도시(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중소도시(도 지역의 시), 농어촌(도 지역의 군)으로 구분하였다.

1. 대도시형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에서 반영되어야 할 가장 큰 특징은 노인 인구수가 많고 이로 인해 노인인구의 동질성이 낮으며, 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존 복지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이외의 민간자원이 풍부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대도시에서의 노인여가복지 정책 개편 방안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기존 시설 이용, 다양한 민간단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7-2] 대도시형 노인여가복지



가. 노인여가의 수준별 인프라 체계

광역 단위의 노인여가복지(노인교육시설)와 자치단체 수준의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분관(소규모 시설), 경로당으로 체계화하여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광역단위의 노인여가복지는 대학에서의 정원 외 노인입학제도로써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도시는 다양한 노인 인구층이 존재하고, 노인인구도 많음으로 인해 고급 여가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한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들 여가욕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유료화를 실시하고, 민간 자원 확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나. 경로당 관련 정책: 경로당 인프라 확대 제한과 통·폐합유도

대도시의 경우 지역 토착민에 비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고, 노인의 다양성

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비해 경로당 이용노인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대도시의 아파트 지역이 밀집되면서 의무적인 경로당 인프라가 확장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활용도는 농촌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로당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현재 경로당의 통·폐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경로당을 통·폐합할 경우에 인센티브 또는 기타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시설이 낙후한 경로당은 경로당 재설립보다는 경로당 시설 이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확대 설립하여 소규모노인여가센터(노인복지관 분관형태)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경로당은 향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소 1주일에 1~2회 프로그램이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경로당 정책은 현재 노인복지관 중심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중심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담당자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둘을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통일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담당자는 경로당활성화사업 담당자로 명칭을 변경한다. 현재 경로당과 관련 사업의 많은 부분을 대한노인회 해당 연합회와 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노인복지관에서의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기본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제안하되,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이는 광역단위의 평가를 실시하여 ‘전 경로당의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거점 노인복지관 지정: 기관별 역할 조정 및 노후생활설계지원 서비스

지역 내 계속적으로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 기관이 확대되어질 것이

다. 따라서 거점 노인복지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의 핵심 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기관간 역할 조정 및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대도시에서는 점차 노인복지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 내 노인 2만명 당 1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1만명이 증가할 때마다 분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분관은 거점 노인복지관이 운영하도록 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점 노인복지관에서는 노후생활설계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이 지역 내에서 노인여가문화를 비롯한 다양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라.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바우처 실시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 및 실천을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노인여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정책이 갖고 있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위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비영리기관 중심이지만, 프로그램의 우수성이 존재한다면 영리기관에 대한 지원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영리 기관이 존재하므로 이들로 하여금 노인여가문화 비용을 할인해주도록 촉진하고, 이를 위한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마. 노인 모임에 대한 지원: 노인 동아리방 지원 및 자원봉사단체로 활동

대도시 지역은 노인 인구수가 많고, 또한 다양하여 활발한 모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의 모임은 대부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임 장소가 식당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모임을 적극적 사회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차원에서 모임장소를 지원하고, 모임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별도의 노인자원봉사로 특화시키기보다는 현재 시·군·구별로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활

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동아리방 지원과 자원봉사 단체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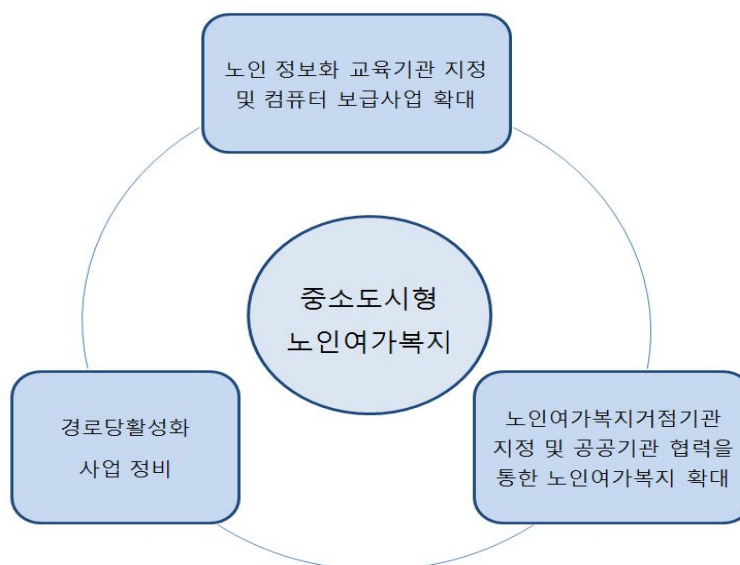
대도시 지역에서 동아리방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는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주민 센터, 학교, 청소년 회관,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중소도시형

도지역의 시 지역인 중소도시는 대부분 도농복합형태를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대도시에 비해 민간자원이 적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향후 노인 인구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 정책을 수행하되 인프라의 확대는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분관 형태, 또는 기존 시설물인 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프로그램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7-3] 중소도시형 노인여가복지



가. 노인여가복지거점기관 지정 및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확대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민간 기관의 풍부하지 않음으로 노인여가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거점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역내 공공기관인 학교,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대여하여 거점복지기관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노인여가복지기관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분관을 계속적으로 설치함으로써 향후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노인여가복지거점기관에서 공공기관을 분관형태로 활용하도록 한다.

나. 경로당활성화 사업 정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확대를 통해 전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담당자에 의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통해 모든 경로당이 주1~2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복지관 또는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며, 경로당순회프로그램 담당자는 위탁사업의 담당자로서 명칭을 경로당활성화사업 담당자로 변경한다.

향후 경로당활성화 사업 담당자는 경로당 약 200개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여 경로당별로 격월 1회 방문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로당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광역단위의 도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 노인 정보화 교육기관 지정 및 컴퓨터 보급사업 확대

노인 정보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내에 위치하는 컴퓨터 교육기관 등을 지정하여 노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노인복지관에서 항상 노인의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은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및 공간 부족으로 인

하여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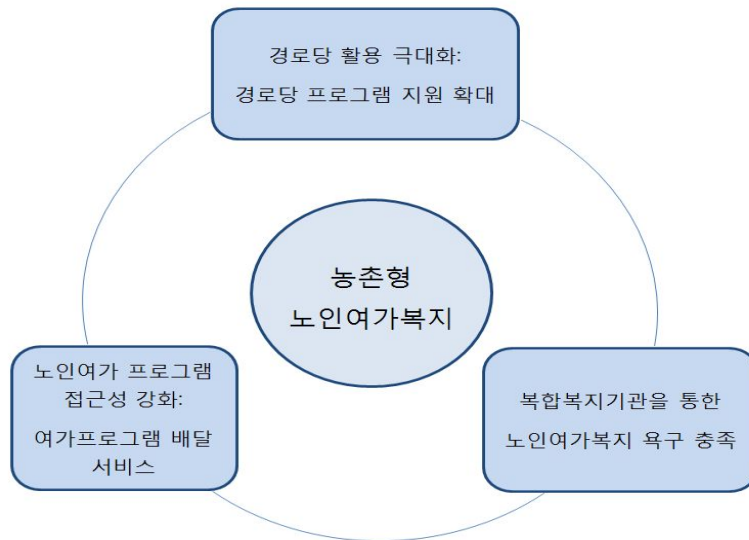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부족으로 인하여 도시에 비해 노인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한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바우처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되, 지자체와 교육기관, 일부 노인의 자부담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컴퓨터 보급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경로당, 마을 회관, 노인 개개인에게 컴퓨터 보급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농촌형

농촌지역은 노인 집단의 동질성이 높고, 지역 주민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발달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구밀도가 낮아 시설 인프라 중심의 노인여가복지 정책으로는 복지의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형 노인여가복지는 최대한 기존 기관과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림 7-4] 농촌형 노인여가복지



가. 경로당 활용 극대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우선 농촌에서의 경로당은 노인의 여가활동의 장소이자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를 펼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자녀 비동거 노인이 많음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보호체계로서 활용도가 높다. 따라서 농촌의 경로당은 시설 수의 확대는 제한하되,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노인들이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경로당에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 노인여가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여가프로그램 배달 서비스

농촌은 군 지역에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을지라도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이용 노인이 해당 시설 주변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여

가프로그램을 지역 내 거점 기관(예: 초등학교 교실 또는 면사무소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경로당은 규모 면에서 소규모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면단위 수준의 기관에서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배달하는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 모임에서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파견제도(충청남도 실시 중) 형태는 농촌지역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다. 복합복지기관을 통한 노인여가복지 욕구 충족

농어촌 지역은 과거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별 특화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갖고 있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사회복지관)의 형태로 시설을 설립하고, 이들 시설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희(2010). 정년 후의 80000시간.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계양구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계양구 효성노인문화센터 내부자료(2012).
- 계양구청(2011). 계양구 기본통계.
- 계양구청(2012). 2012년도 계양구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광주시 북구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광주시청(2011). 광주시정통계.
- 김수봉·권중돈·조한중·문병운·김지연(2011).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희(2007). 한국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운영기준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준 외 (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 교육 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 내부자료(2012).
- 목포시 이랜드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목포시청 내부자료(2012).
- 목포시청(2011). 목포시 통계연보.
- 목포시청(2011). 목포시정백서.

- 목포시청(2012). 2012년도 목포시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박세경·김유경·이영민·정진경·이주연(2010). 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제처(20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 변재관(1997). 일본 노인보건복지정책의 검토(재택복지의 중시와 보건·의료·복지의 연대). 보건복지포럼(12).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지자체 복지예산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북구청(2011). 북구통계연보.
- 북구청(2012). 2012년도 북구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예산군 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예산군청(2011). 예산군 통계연보.
- 예산군청(2012). 2012년도 예산군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오영희·정경희·변재관·이윤경(2002).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용인시청 내부자료(2012).
- 용인시청(2011). 용인시 통계연보.
- 용인시청(2012). 2012년도 용인시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의성군 금성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2).
- 의성군청(2011). 의성군 통계연보.
- 의성군청(2012). 2012년도 의성군 본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총괄표.
- 인천시청 내부자료(2012).
- 인천시청(2010). 인천시 통계연보.
- 인천시청(2011). 인천시 통계연보.
- 정경희 외(2009).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이수연(2011). 선진국의 고령화 대응정책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욱(2011). 일본의 인생 85년 비전: 인생 85년 시대를 향한 리디자인. 보건 · 복지 Issue&Focus(88).

통계청(2001). 5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2004). 200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2010). 2010년 인구 총 조사.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11). 5세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청(2011).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12월 현황). <http://www.kaswc.or.kr>(2012년 12월 6일 검색).

인천시 노인인구현황. <http://silver.incheon.go.kr>(2012년 10월 25일 검색).

위키백과사전(2012). <http://www.daum.net>(2012년 10월 23일 검색).

http://www.aoa.gov/aoaroot/program_results/SPR/2010/Index.aspx(2012년 10월 15일, 상단의 URL에 접속하여 Table 10 자료 내려 받음)

AARP(2005). Beyond 50.05 A report to the nation on livable communities: creating environments for successful aging. AARP. Washington, D.C.

Administration on Aging.(2004). Performance Outcomes Measures Project: senior center. <http://www.gpra.net/Scmain.asp>(2012년 10월 12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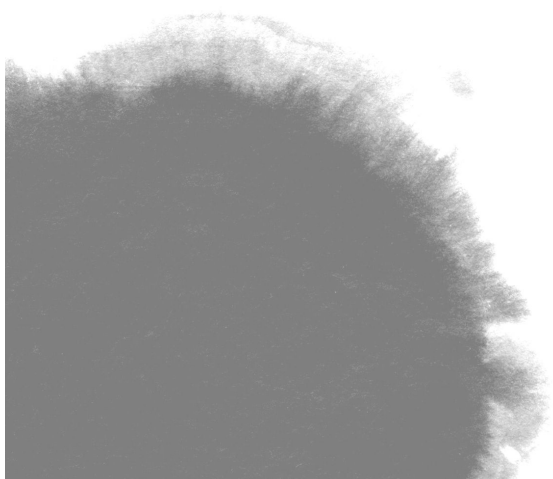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2012). Senior Corps: fact sheet. <http://www.seniorcorps.gov>(2012년 10월 1일 검색).

- Erikson, Erik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orowitz, B.P. & Vanner, E.(2010). Relationships among active engagement in lif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for assisted-living residents.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4:130-150.
- Kim, E., Kleiber, D.A., & Kropf, N.(2001). Leisure activity, ethnic preservation and cultural integration of older Kore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6 (1/2), 107-129.
- Krantz-Kent, R. & Stewart, J.(2007). How do older Americans spend their time? *Monthly labor review*, May 2007, 8-26.
- Laanan, F.(2003). Older adults in community colleges: choices, attitudes, and goals. *Educational gerontology*, 29.757-776.
- National Council on Aging.(2012). Senior centers: fact sheet. <http://www.ncoa.org/national-institute-of-senior-centers>(2012년 10월 12일 검색).
- OASIS.(2012). What is OASIS? <http://www.oasisnet.org>(2012년 10월 1일 검색).
- Taylor-Harris, D. & Zhan, H.J.(2011). The third-age African American seniors: benefits of participating in senior multipurpose facilit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4:351-371.
- U. S. Bureau of Statistics(2008). BLS Spotlight on statistics: sports and exercise. <http://www.bls.gov/spotlight>(2012년 6월 28일 검색).
- U. S. Bureau of Statistics(2011). American time use survey- charts by topic: older Americans. <http://www.bls.gov/tus/charts/older.htm>(2012년 6월 28일 검색).
- 横浜市(2012), 第5期 横浜市高齢者保健福祉計画・介護保険事業計画(計画期間 平成24年度~26年度)
- 神奈川縣(2012) かながわ高齢者保健福祉計画(平成24年度~26年度)

內閣府(2012) 高齡社會白書.

厚生労働省老健局(2008. 10. 23) 高齡者福祉施策の現況と動向.

2017





부록

1. 시·도 노인여가복지현황 조사

조사표종류	시도 일련번호	
1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시도명	_____ 시·도			
담당자	성명		소속(팀)	
전화번호	()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지역별 모형개발을 위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본 조사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 모형 개발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노인여가복지서비스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2012년 6월 2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보 건 복 지 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향아

(전화: 02-380-1680)

※ 각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노인여가복지 예산

1. 귀 시도의 2011년 노인여가복지 예산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천원)

비 목	예 산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포함)	_____천원
2)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또는 분관형태 등) 운영비 및 기능보강	_____천원
3) 노인교실 지원사업	_____천원
4) 노인여가복지 행사(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사업	_____천원
5)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	_____천원
6) 기타 노인여가복지 사업비	_____천원
1)~6)의 합계	_____천원

2. 귀 시도의 2011년 경로당 총 지원 사업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천원)

비 목	응 답	예 산
1) 운영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2) 난방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3) 양곡 및 식재료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4) 기타 지원 예산(집기, 시설개보수비 등)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5)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6)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 사업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II. 노인 여가복지 사업 현황

1. 귀 시도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수 : _____명

2. 귀 시도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근무처는 어디입니까?

- ☐ ① 대한노인회지부
- ☐ ②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등 기관
- ☐ ③ 시도청
- ☐ ④ 기타 (근무처 : _____)

3. 귀 시도의 소속인 시·도립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등)은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등)의 수 : _____개소

4. 귀 시도의 소속인 시·도립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2개소 이상일 경우 개소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의 합)

-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 : _____명

5. 귀 시도에서 지원하는 노인교실(노인대학)은 몇 개소입니까? _____개소

5-1. 귀 시도에서 노인교실에 지원하는 지원내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① 인력지원 또는 강사지원
- ☐ ② 운영비 지원(노인 교육비 지원)
- ☐ ③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 ④ 교육기구 지원(TV,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 ☐ ⑤ 교육장소 등 물리적 지원
- ☐ ⑥ 기타 (무엇 _____)

III. 기타 노인 여가문화 사업 현황

1. 귀 시도에서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① 예(1-1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② 아니오

1-1. 실시하고 있다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② 노인여가문화 관련 행사사업(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여가문화 대회, 솜씨 자랑 등)

☐ ③ 노인동아리지원사업(노인밴드 지원, 노인연극동아리 등)

☐ ④ 노인영화관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

☐ ⑤ 노인운동시설 지원(게이트볼장, 골프장 지원 등)

☐ ⑥ 기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2. 이상의 노인 여가복지사업 이외에 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문화사업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3. 귀 시도에서 노인의 여가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시·군·구 노인여가복지현황 조사

조사표종류	시도 일련번호
2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시도명	시·도 시·군·구			
담당자	성명		소속(팀)	
전화번호	()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지역별 모형개발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본 조사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 모형 개발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노인여가복지서비스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2012년 6월 2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보 건 복 지 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향아
(전화: 02-380-1680)

※ 각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노인여가복지 예산

1. 귀 시도의 2011년 노인여가복지 예산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천원)

비 목	예 산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포함)	_____천원
2) 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또는 분관형태 등) 운영비 및 기능보강	_____천원
3) 노인교실 지원사업	_____천원
4) 노인여가복지 행사(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사업	_____천원
5)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	_____천원
6) 기타 노인여가복지 사업비	_____천원
1)~6)의 합계	_____천원

2. 귀 시도의 2011년 경로당 총 지원 사업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천원)

비 목	응 답	예 산
1) 운영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2) 난방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3) 양곡 및 식재료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4) 기타 지원 예산(집기, 시설개보수비 등)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5)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6)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련 사업비	<input type="checkbox"/> ① 해당있음 <input type="checkbox"/> ② 해당없음	_____천원

II. 경로당 관련 사업 현황

1. 귀 시군구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그 중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2012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1. 등록 경로당수 : _____ 개소

1-2. 시군구 지원 경로당수(일부 지원 경로당을 포함하여 실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_____ 개소

2. 귀 시군구에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①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 등에서의 인력지원
☐ ② 전기요금 할인
☐ ③ 도시가스 요금 할인
☐ ④ 경로당 전자제품 지원(TV, 에어컨, 냉장고 등)
☐ ⑤ 기타 (무엇 _____)

3. 귀 시군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 ① 실시하고 있음
☐ ② 실시하지 않음 → 질문 5번으로 가시오.
☐ ③ 타 사업과 통합실시 중임

- 3-1. 귀 시군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탁운영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위탁하셨습니까?

- ☐ ① (종합)사회복지관
☐ ② 노인복지관
☐ ③ 대한노인회지부
☐ ④ 기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관
☐ ⑤ 시군구 자체 운영

3-2. 귀 시군구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상 경로당은 몇 개소입니까?

- 경로당활성화사업 대상 경로당수: _____개소

4. 귀 시군구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몇 명입니까?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수 : _____명

4-1. 귀 시군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근무처는 어디에 배치하십니까?

- ☐ ① 대한노인회지부
- ☐ ②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등 기관
- ☐ ③ 시군구청
- ☐ ④ 기타 (근무처 : _____)

III.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문화기관 현황

1. 귀 시군구 관할대상인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등)은 몇 개소입니까?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제외하여 주십시오.

-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등)의 수 : _____개소

2. 귀 시군구 관할대상인 노인복지관(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운영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2개소 이상일 경우 개소별 1일 평균 이용노인수의 합)

- 1일 평균 이용 노인 수 : _____명

3. 귀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노인교실(노인대학)은 몇 개소입니까? _____개소

3-1. 귀 시군구에서 노인교실에 지원하는 지원내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 ① 인력지원 또는 강사지원
- ☐ ② 운영비 지원(노인 교육비 지원)

- ☐③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④ 교육기구 지원(TV,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 ☐⑤ 교육장소 등 물리적 지원
- ☐⑥ 기타 (무엇 _____)

IV. 기타 노인 여가문화 사업 현황

1. 귀 시군구에서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 ☐① 예(1-1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② 아니오

1-1. 실시하고 있다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② 노인여가문화 관련 행사사업(체육대회, 게이트볼 대회, 여가문화 대회, 솜씨 자랑 등)
- ☐③ 노인동아리지원사업(노인밴드 지원, 노인연극동아리 등)
- ☐④ 노인영화관 등 문화활동 지원사업
- ☐⑤ 노인운동시설 지원(게이트볼장, 골프장 지원 등)
- ☐⑥ 기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2. 이상의 노인 여가복지사업 이외에 귀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문화사업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3. 귀 시군구에서 노인의 여가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전국 경로당 실태 조사

조사표종류	지역			일련번호		
3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경로당명				
주 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리(번지)
전화번호	()	-		
운영시작	년	월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노인여가복지서비스시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2012년 6월 2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보 건 복 지 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향아
(전화: 02-380-1680)

※ 각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시설 일반사항

1. 귀 경로당 대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대표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2. 대표자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3. 대표자의 재임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년 이상~2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2년 이상~3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3년 이상~4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4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_____) |

2. 귀 경로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주택밀집지역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③ 주택과 아파트 혼합지역 | <input type="checkbox"/> ④ 상가/사무실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⑤ 주택과 상가 혼합지역 | <input type="checkbox"/> ⑥ 농어촌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_____) | |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건축물 용도는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 주택(경로당 독립시설) |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input type="checkbox"/> ③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 |
|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복지시설 | <input type="checkbox"/> ⑤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 <input type="checkbox"/> ⑥ 문화시설 |
| <input type="checkbox"/> ⑦ 종교시설 | <input type="checkbox"/> ⑧ 가건물(컨테이너박스)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_____) |

4. 귀 경로당의 사용 건물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0평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0평~20평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20평~30평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30평~40평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40평 이상 | |

5. 귀 경로당의 사용 방은 몇 개이고, 별도의 거실이 있습니까?

(1) 방 수: _____ 개

(2) 거실 여부: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6. 귀 경로당의 설비·용품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설비·용품 유무	
1) 냉방시설		
(1) 에어컨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2) 선풍기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기타(무엇:)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2) 취사시설(취사 도구 등)		
(1) 가스레인지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2) 1회용 가스레인지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전기스토브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4) 전기밥솥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5) 기타(무엇:)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소화기(또는 비상벨)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4) 냉장고	<input type="checkbox"/> ①예 → (대)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5) 전용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7. 귀 경로당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중앙난방식-~~(질문 7-2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② 지역난방-~~(질문 7-2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③ 개별난방-~~(질문 7-1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7-1. 개별난방일 경우 어떤 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가스난방 ☐② 기름(경유 등) ☐③ 심야보일러
☐④ 태양열 ☐⑤ 연탄 ☐⑥ 기타()

7-2. 2011년 동안 몇 개월을 난방하였습니까? 년 개월

7-3. 2011년 동안 난방비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년 원

7-4. 귀 경로당의 난방비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 관리비에서 지출해줌
☐② 시군구 지원을 받아 지출(일부 시군구 지원도 포함)
☐③ 자체수입으로 전액 지출
☐④ 기타()

8. 귀 경로당의 등록 회원수는 몇 명이고, 1일 평균 이용 노인수는 몇 명입니까?

8-1. 등록 회원 수(2012년 6월 현재): 총 _____명

8-2. 년 평균 1일 이용 노인 수: (1) 남자: _____명, (2) 여자: _____명

9. 노인 1인당 경로당 월 회비는 얼마입니까? _____원

10. 귀 경로당은 노인일자리 또는 자활사업 등에서의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인력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귀 경로당은 2011년을 기준으로 몇 개월 운영되고 있습니까? 년 _____개월

II. 재정 및 시설운영 현황

1. 2011년도 수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각 항목별 수입금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수입금 종류		금 액(1년 총 비용)
1) 보조금 (시도 및 시군구)	(1) 난방비	_____원
	(2) 양곡비(현금인 경우만)	_____원
	(3) 기타 운영비	_____원
2) 회원회비		_____원
3) 자체사업 수익금		_____원
4) 부녀회로부터의 보조(지역 찬조금 등)		_____원
5) 기타 수입금		_____원
1)~5)의 합계		_____원

2. 귀 경로당은 다음의 기관과 업무 협의 또는 연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항 목	응 답
1) 관할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2)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자원봉사센터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4) 의료기관(의사회, 약사회 포함, 보건(지, 진료)소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5) 초·중·고·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6) 종교단체·민간기업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귀 경로당에서는 평소에 식사를 제공합니까?

☐①예 ☐②아니오→(5쪽으로 가시오)

3-1. 하루 평균 식사 제공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루 _____명

3-2. 2012년 상반기(6개월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양곡의 양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3-2-1. 시군구 지원: _____ kg

3-2-2. 기타 단체 지원: _____ kg

III.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1. 귀 경로당에서는 다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실시 여부	【보기】
1) 건강관련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건강관리 및 상담, 건강체조
2) 교양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전통예절, 정부시책
3) 정보화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컴퓨터 교육
4) 취미·오락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노래부르기, 서예, 장구, 바둑
5) 자원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교통안전, 자연보호, 공원관리
6) 소득연계사업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 공동작업장 운영

2. 귀 경로당에서는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질문 2-4로 가시오)

2-1. 운동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2. 운동프로그램 1회 참여 인원은 평균 몇 명입니까? _____명

2-3. 운동프로그램을 한 달에 몇 번 실시합니까? 월 _____회

2-4. 귀 경로당에는 실내 운동기기(예: 러닝머신, 스텝, 싸이클 등)가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 질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 2012년도 전국 노인교실 실태 조사

조사표종류	지역			일련번호		
4						

(위의 네모란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경로당명					
주 소	시·도	시·군·구	동·읍·면	리(번지)	
전화번호	()	-			
운영시작	년	월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교실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노인여가복지서비스시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는 2012년 6월 2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보 건 복 지 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김향아

(전화: 02-380-1680)

※ 각 질문에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 또는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시설 일반사항

1. 노인교실 운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운영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2. 운영자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3. 운영자의 재임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년 이상~2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2년 이상~3년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3년 이상~4년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4년 이상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_____) |

2. 귀 노인교실의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개인 | <input type="checkbox"/> ② 대한노인회 |
| <input type="checkbox"/> ③ 지역주민 공동소유(대한노인회 제외) | <input type="checkbox"/> ④ 종교단체 |
| <input type="checkbox"/> ⑤ 각종 복지기관 | <input type="checkbox"/> ⑥ 사회단체 |
| <input type="checkbox"/> ⑦ 초·중·고교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_____) |

3. 귀 노인교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주택밀집지역 |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③ 주택과 아파트 혼합지역 | <input type="checkbox"/> ④ 상가/사무실 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⑤ 주택과 상가 혼합지역 | <input type="checkbox"/> ⑥ 농어촌지역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_____) | |

4.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교실의 건축물 용도는 무엇입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 주택(노인교실 독립시설) | <input type="checkbox"/> ② 공동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input type="checkbox"/> ③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 |
|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복지시설 | <input type="checkbox"/> ⑤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 | <input type="checkbox"/> ⑥ 문화시설 |
| <input type="checkbox"/> ⑦ 종교시설 | <input type="checkbox"/> ⑧ 가건물(컨테이너박스)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_____) |

5. 귀 노인교실의 사용 건물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10평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② 10평~20평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③ 20평~30평 미만 | <input type="checkbox"/> ④ 30평~40평 미만 |
| <input type="checkbox"/> ⑤ 40평 이상 | |

6. 귀 노인교실이 사용하는 교실은 몇 개이고, 별도의 강당이 있습니까?

(1) 교실 수 : _____ 개

(2) 강당 여부: ☐①예(있다) ☐②아니오(없다)

7. 귀 노인교실의 설비·용품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설비·용품 유무	
1) 냉방시설(에어컨)	<input type="checkbox"/> ①있다	<input type="checkbox"/> ②없다
2) 난방시설	<input type="checkbox"/> ①있다	<input type="checkbox"/> ②없다
3) 소화기(또는 비상벨)	<input type="checkbox"/> ①있다	<input type="checkbox"/> ②없다
4) 전용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①있다	<input type="checkbox"/> ②없다

8. 귀 노인교실의 등록 회원수는 몇 명이고, 1일 평균 이용 노인수는 몇 명입니까?

8-1. 등록 회원 수(2012년 6월 현재): 총 _____ 명

8-2. 년 평균 1일 이용 노인 수: (1) 남자: _____ 명, (2) 여자: _____ 명

II. 재정 및 시설운영 현황

1. 2011년도 수입금에 대한 질문입니다(각 항목별 수입금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수입금 종류	금 액(1년 총 비용)
1) 보조금(시도 및 시군구)	_____ 원
2) 회원회비	_____ 원
3) 자체사업 수익금	_____ 원
4) 그 이외 기타	_____ 원
1)~ 4)의 합계	_____ 원

2. 귀 노인교실에서 실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타 기관과 업무 협의 또는 연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항 목	응 답
1) 관할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2) 노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자원봉사센터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4) 의료기관(의사회, 약사회 포함), 보건(지, 진료)소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5) 초·중·고·대학교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6) 종교단체·민간기업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3. 귀 노인교실의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 ☐① 운영 책임자 ☐② 회원이 함께 작성
☐③ 관련 행정기관 담당자 ☐④ 관련 복지기관(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
☐⑤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 ☐⑥ 외부 강사
☐⑦ 기타(_____)

III. 프로그램 현황

1. 귀 노인교실은 1년에 수업을 몇 개월 합니까?(방학기간 제외) 년 _____ 개월

1-1. 귀 노인교실의 수업은 얼마나 자주 실시됩니까?(학기 중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횟수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회 이상
☐④ 한 달에 1회 ☐⑤ 한 달에 2회 ☐⑥ 기타(_____)

2. 귀 노인교실은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질문 3으로 가시오)

2-1. 연간 외부강사 초빙 횟수는 몇 회입니까? 년 _____ 회

3. 귀 노인교실에서 다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유무	【보기】
1) 노인복지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재정관리 ◦ 노인보건복지제도 ◦ 삶의 보람 ◦ 주택선정방법 ◦ 노후 대책에 대한 법률
2) 건강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의학 상식 ◦ 노인 식생활 ◦ 노인운동
3) 기초교양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읽기와 계산하기 ◦ 외국어 교육 ◦ 정치·경제사회 ◦ 역사와 문화
4) 취미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예 ◦ 바둑·장기 ◦ 서예
5) 가족생활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 방법 ◦ 인간관계 ◦ 노인의 심리 ◦ 가사에 필요한 교육
6) 시민생활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이해와 선도 ◦ 환경문제 ◦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7) 기술전문교육	<input type="checkbox"/> ①예 <input type="checkbox"/> ②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취업을 위한 교육 ◦ 창업교육 프로그램

※ 질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노인 여가복지사업 이외에 시·도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문화사업 소개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부산	부산진구	노인이 살기좋은도시 부산진구건설	사업명대로 “노인이 살기 좋은도시 부산진구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노인이 가뿐 아니라 노인복지사업 전체에 역량을 쏟고 있음
		리프레쉬영화상영관 운영	롯데시네마 서면점에서 부산진구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 2시 영화상영관 운영
		무료저상버스운행	관내 거주하는 노인·장애인 등 약자들을 위한 CNG대형버스를 부산진구 전역(31개 정류소)에 1일 4회 운행함
	사상구	노래교실	정원 100명, 수강 128명(128%), 매주 월요일
		청춘합창단	정원 40명, 수강 19명(47%), 오디션 진행 중
		정보화교실 (컴퓨터교실인터넷활용)	정원 40명, 수강 34명(85%)
		댄스포즈교실	정원 50명, 수강 15명(30%)
		어학교실	정원 120명, 수강 52명
대구	수성구	경로당훈장교실	경로당 10개소에 서예교실 운영
		찾아가는경로당 노래교실	경로당 15개소에 주1회 1시간씩 찾아가는 노래교실 개최
	달서구	노인복지관 증축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인천시 자체 사업	아이리브카네이션 어버이축제	어버이날 기념식 및 세대 간의 어울림을 위한 실버예술 경연대회, 가족사진 전 등 개최
		인천효박람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무대, 전시 행사 등 개최
	동구	장수건강체조	노인의 체력단계에 맞는 건강체조교실 운영
		차밍댄스	차밍댄스교실 운영
인천	남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활성화, 경로당 결연사업 등을 통한 서비스 지원, 경로당 기능 및 역할 개선 등
		경로당문화바꾸기 사업	○ 경로당 물품지원 - 목적: 경로당을 노인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 지원물품: 런닝머신 - 지원대상: 80개소(2011년 40개소, 2012년 40개소) ○ 경로당 건강도우미 활동보조금지원 - 대상: 각 경로당 회장 또는 사무장 - 활동지원금: 월 50,000원 - 건강도우미 교육: 년 2회 - 활동내용 · 주관일과표 작성 및 운동 등 일과 진행유도 · 건강체조 차트 이용, 스스로 프로그램 진행 · 여가문화보급사업 진행시 프로그램 보조강사
	계양구	실버농장 운영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에게 실버 농장 무료 임대 운영
	서구	웃음치료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아 지속적으로 사업량을 늘리고 있음
	옹진군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양조공예, 방향제 만들기, 원예활동, 노래교실, 게이트볼, 발마사지, 수지침, 천연비누, 요가, 아트풍선 등
		노인효사랑 위안잔치	충효운동본부(사회단체)에서 주관하며 효문화 사상 고취를 위해 위안잔치 및 노래 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광주	북구	실버인터넷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으로 어르신 컴퓨터 교육을 통해 PC사용법 등 다양한 컴퓨터 교육 실시
		효령노인타운건강학	시설건강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연과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대전	대덕구	노인 건강축제	어르신대상 홀라후프 등 운동경기
		게이트볼 대회	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노인종합체육대회	어르신 종합체육대회
	유성구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기간: 연중(동절기제외) ○ 대상: 관내 등록경로당 ○ 주관기관: 유성구노인복지관 ○ 추진기관: 5개 기관 - 교양강좌: 유성구평생학습센터, 유성구노인복지관 - 건강강좌: 유성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타: 유성구자원봉사센터 ○ 프로그램명 - 교양강좌: 노래교실, 웃음치료, 댄스체조, 생활체조, 실버체조, 라인댄스 등 - 건강강좌: 건강100세프로그램,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 건강관리 등 - 기타: 경로당 청결활동
울산	울산시 자체 사업	평생교육	노인대학교실, 한글교실, 일본어교실, 생활영어, 컴퓨터 등
		취미교실	가요·민요·한국무용·단전·요가·장구, 아쿠아로빅, 신바람체조 교실, 댄스, 작품교실, 서예교실, 서예추사제, 교육관련행사 등
		지역복지연계사업	연극공연, 교양강좌, 노후코치프로그램, 노인의 날 행사, 노인관련 대회 참가, 자원봉사활동 등
		건강생활증진사업	체력단련, 건강검진, 건강교육, 건강상담, 헬스기회, 차매교육, 노인학대피해 교육 등
	남구	경로당 노래교실	경로당 18개소 1주/1회/2시간 노래강사 파견
		경로당 건강관리교실	경로당 20개소 1주/2회/2시간 체육강사 파견
		어르신 문화탐방사업	봄, 가을(2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탐방사업 실시
경기	파천시	새청춘 교육사업	분기별로 어르신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모시고 교육 실시
		경로당 취미여가교실 운영	요가, 수지침, 가요교실, 웃음치료, 컴퓨터 교실 운영
		노인복지관 사회교육사업	취미여가, 교양교육, 건강증진, 자유이용, 특화프로그램
	수원시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	실버가족 주말농장 운영
		모범경로당 선정	2011년부터 매년 시범 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모범 경로당 선정
	시흥시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 대상: 83개소 - 내용: 경로당별 특색사업(공동작업장, 교통지킴이, 거리청소등)
	양평군	경로당운영비지원	시군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원	춘천시	으랏차차9988어르신 프로젝트	춘천시 소재 경로당 130개소를 대상으로 강사(15명)를 주1회 파견하여 건강체조, 사군자, 한글서예,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 11개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각 경로당별로 발표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변화를 도모함
	원주시	평생교육사업	복지관 및 노인대학과 연계한 교양, 정보화 교육사업
		정서생활사업	일반, 전문심리상담, 집단상담 및 노인학대예방 홍보활동
	태백시	그라운드골프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경로당건강강좌	지역 한의원과 연계하여 경로당별 순회 건강강좌
	평창군	경로당소식지발행	지역소식 및 경로당 모범사례집 발간
		부업경로당 활성화사업	짬뽕공예, 콩가공품 등 경로당 부업지원을 통한 노인 여가선용 및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 기여
		정보화기기보급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정보접근 기회 제공
		건강관리기구 지원	전신안마기, 발바사지기, 혈압체크기 등 지원을 통해 노인운동 활성화를 통한 노인건강 증진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정선군	어르신어울림 교실지원사업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간: 2012. 3. ~ 12. - 인원: 75명 - 프로그램: 3개 분야 (댄스스포츠, 태극권, 에어로빅) - 예산액: 15,000천원		
충남	천안시	천안시 복지예술단운영	노인관련 행사 초청 공연 참여, 경로당순회공연		
	서산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 8명의 독거노인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 - 예산액: 4,300천원 지원 (운영비등)		
		행복가꾸기 실버사업	○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126명의 어르신 환경정화 활동(15회) - 예산액: 30,000천원 지원(1인당 225천원 인건비 지급)		
	서천군	어메니티 노인건강교실	- 기간: 동절기 5개월동안 주 4회 건강교실 운영 10개소 - 내용: 건강체조 및 창.민요, 요가등 프로그램과 중식제공		
		행복경로당 운영	동절기외에 주 1회 건강프로그램과 중식제공 8개소		
	청양군	남성어르신요리교실	가시수행경험이 없어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남성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 반찬 등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요리강습제공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일반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증개축하여 거점경로당으로 조성하여 노인들에게 각종 프로그램 지원		
	태안군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지회 취업센터에 사업비 10,000천원을 지원하여 항포구, 해수욕장 주변 등을 청소하고 인건비 지급(월 200천원/1인)		
		노인장기대회	경로당 이용의 건전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장기대회 개최 (군 지회에 보조하여 사업추진, 사업비 5,000천원, 100여명 참석)		
		짚밧싸리공예경진대회	농한기 건전한 노인이자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짚,싸리 공예품 제작 발표대회 개최(사업비 3,000천원, 100여명 참석)		
		게이트볼대회지원	노인의 대표적인 체육활동인 게이트볼 대회 지원으로 건전한 신체활동 유도(사업비 10,000천원, 2회 개최, 200여명 참석)		
		노인지회및읍면분회 운영비지원	노인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도모 (사업비 16,000천원, 지회 1개소, 분회 8개소)		
전북	고창군	노인사회참여사업	시조보급교실운영		
	무주군	경로당개보수	매년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10개소 내외 선정하여 사업실시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사업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 민간대행사업실시		
		경로당보험가입	경로당 상해 및 화재보험 가입		
	장수군	노인복지 생활프로그램	○ 대상: 7개소 (읍·면 대표경로당) ○ 예산액: 35,000천원(개소당 5,000천원) ○ 사업기간: 2012. 4월 ~ 2012. 12월 ○ 장소: 읍·면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회관 ○ 사업내용 - 교육활동분야: 한글·한문교육, 서예, 도예교실 - 레크레이션분야: 노래교실, 풍물 - 생활체육분야: 게이트볼, 건강체조(장수 춤) - 기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 선정		
			정읍시	정읍실버문화축제	노인동아리들의 노래, 춤 등 기량 경연대회
			김제시	그룹-홈	건강상담, 요가, 한글교실 등
경북	구미시	YOYO공연예술단 운영	연주(색소폰, 아코디언, 가야금), 춤, 노래, 민요 분야에 탁월한 소질이 있는 노인 12~15명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공연 등을 통하여 지역 사랑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영위함.		
		YOYO클럽 운영	댄스스포츠, 합창, 한국무용의 3개 동아리를 YOYO클럽으로 선정, 공연활동을 통한 지역사랑과 나눔의 봉사정신 실천, 여가생활 영위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영주시	노인취미활동지원	한지공예
	군위군	자치대학원운영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전 읍면에서 노인대학 운영 (2011년 예산 101,000천원, 8개 읍면 2,000명, 읍면별 16회 교육)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2011년 예산 24,000천원 25개 경로당)
	청송군	찾아가는 행복경로당 운영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관내 자원봉사단체의 봉사자들이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수지침, 웃음치료, 손발맞사지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음
	영양군	즐거운 경로당 조성사업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성주군	찾아가는 마을봉사	수지침, 네일아트, 컷트, 장수사진촬영 등
		경로당 노인교육강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아업의 일환으로 노인강사가 노인에게 한글, 체조, 노래교육
		어르신건강짱 프로그램	근력, 스트레칭 등 건강증진운동실시(보건소)
	봉화군	노인풍물단운영	풍물단 운영(지역축제시 공연, 노인복지시설 위문공연)
		은빛날개	취미클럽 게이트 볼 운영, 자원봉사활동, 각종 대회 참가
		실버자원 봉사	자원봉사대 55명 구성(지역 환경개선 및 축제장 자원봉사)
	울릉군	노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	노래교실 · 농악교실 · 실버체조 운영
경남	양산시	노인 pc교육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 인터넷 교육
		경로당복지 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내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통영시	후생복지시설 운영	경로식당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무료서툼버스 운영, 정보열람실 운영
	함양군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에 안마의자 보급사업
제주	서귀 포시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국선도, 장수무용, 국학기공, 댄스스포츠, 난타, 전통시조, 난타와 장구, 전통시조, 가요, 장구, 민요, 왈츠, 오카리나, 합창, 댄스와 왈츠
	제주시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들의 적성에 알맞은 소일거리를 마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기회 마련을 위한 노인공동작업장
		경로당 취미교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청소년 충효교실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한 초·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 함양과 예의 범절 등 웃어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자녀들에게는 과외 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